

국립국어원 2009-3-18

바른 국어 생활

원내 국어문화학교 교재



국립국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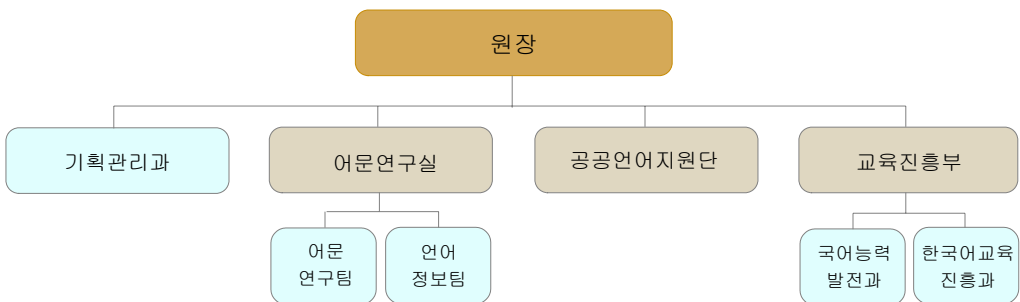
국립국어원 소개

설립 목적

▶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 활동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함.

- 국어·언어 정책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언어와 문자의 정보 자원 구축·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공공 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국어 관련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 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 국어·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국어·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등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조직



언 장	기 획 관리과	사무, 인사, 예산·회계 및 결산, 청사와 시설 관리, 주요 사업 계획의 수립·조정·분석, 국회 관련 업무, 감사 및 사정 업무 등
	어 문 연구실	◆ 어문연구팀 ■ 국어·언어 정책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국어·언어 관련 정책 통계 생성 및 수집 ■ 언어와 문자, 언어 소외 계층을 위한 특수언어 등에 대한 연구 ■ 어문 규범 관련 연구 및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 ■ 국어 분야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 남북 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 세계 언어 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 언어정보화팀 ■ 국어와 언어 정보화 관련 연구·실태조사 ■ 언어와 문자 관련 정보 자원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언어와 문자의 전산 처리 규격, 표준화에 대한 연구 ■ 자연어 처리 기반의 사전 편찬 및 분류 체계 연구 ■ 지역어 발굴 및 연구·조사 ■ 국어·언어·문자 관련 문헌·자료 등의 수집·관리·연구·조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국어 관련 홍보물 등의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 전산실 및 자료실의 운영 ■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언어 지원단	■ 공공 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 ■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 전문 용어 정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국어 능력·국어 의식·국어 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 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교 육 진흥부	◆ 국어능력발전과 ■ 국어문화학교 운영 ■ 국어 능력 검정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 국어 관련 교육 연수 발전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국어문화학교 및 국어 전문 교육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국어책임관 등 국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 국어문화원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한국어교육진흥과 ■ 국내외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사업 ■ 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 한국어 보급 기관 간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원 국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 ‘표준국어대사전’ 온라인 검색 서비스 및 국어 관련 정보 제공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에서 ‘표준국어대사전’, ‘국어연감’ 등의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국어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어문 규정, 정기 간행물, 연구 보고서, 소장 자료, 국어 논저, 기사, 공개 자료실 등).

(2) 가나다 전화(02-771-9909)

- 상담 시간: 월~금, 09:00~18:00, 전화 상담원이 국어 어문 규범을 비롯한 국어 관련 질문에 응답.
- 묻고 답하기: 국립국어원 누리집 게시판에서 국어 관련 상담.

(3) 국어 정보지 발간·배포

- 계간지 ‘새국어생활’: 국어 생활 전반의 관심거리를 다루어, 국민의 국어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고자 발간·배포함.
- 온라인 소식지 ‘섬표, 마침표.’: 국어 관련 소식 제공과 국어원 활동 홍보를 위해 달마다 발간하여 전자 우편으로 발송함. 정기 수신 요청: oz121@korea.kr로.

(4)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http://www.malteo.net>)

- 국립국어원에서는 1991년 개원 이래 일본어 투 용어, 어려운 한자어, 서양식 외래어 등을 순화해 왔음. 2003년 ‘우리말 순화 자료집(합본)’ 발간 이후, 2004년 7월부터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

(5) 디지털 한글 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

-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한글자료 통합 관리 체계.
- 한글문화 유산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체계화하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덧붙인 디지털 전시관(역사관, 조형 예술관, 학술 정보관, 교육 문예관, 미래관, 한글 생활관) 운영.

국어문화학교 소개

개 관

국어기본법 및 그 시행령의 시행(2005. 7. 28.)으로 인하여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 기관, 지방자치 단체, 기업체 등 공공 기관 종사자의 국어 재교육의 필요성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의 국어문화학교를 ‘국어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수강생의 다양한 학습 목적과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국의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의 신청으로 국어 전문 강사가 요청 기관에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국어 관련 강좌와 교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운 영 목 적

국어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 사용 능력을 키워 줌으로써,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운 영 현 황

국립국어원에서는 올바른 어문 규범을 보급하여 국민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1992년부터 국어문화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현재 국어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국립국어원 원내 국어문화학교 수강 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00년에는 1,100여 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약 2,400여 명에 이르러, 9년간 총 1만 5천여 명 이상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는 국어 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의 관심과 학습 욕구가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2.	국어반과 번역반을 3일간씩 출판인반, 일반인반, 청소년반, 공무원반으로 운영
1999. 8.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훈련성적평정대상 전문교육과정 5일 35시간 (5점 가산)을 승인
1999. 10.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사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 국어반 (5일간, 35시간), 번역반(3일간, 21시간) 운영
2000.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시작
2004. 2. 23.~24.	제1차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지방대학 강사 워크숍(12명) 개최
2004. 8. 26.~27.	제2차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지방대학 강사(7명) 워크숍 개최
2005. 1. 28.~29.	제3차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지방대학 강사(11명) 워크숍 개최
2005. 10. 24~25	서울방송 신입사원 국어 교육(신입기자, 아나운서, 프로듀서 등 20여 명)
2005. 12. 15.~16.	법제처 국어 전문 과정 교육(법제처 공무원 22명)
2006. 2. 9.~10.	전국 국어상담소 상담원 대상 찾아가는 국어 강좌 공동 연수 개최(전국 10개 국어상담소, 상담원 26명)
2007. 5.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제 개편으로 국어진흥교육팀 신설. 국어문화학교 강의전담 교수 채용
2009. 5. 4.	직제 개편으로 국어능력발전과에서 국어문화학교 관련 업무 수행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수강자의 연도별 증가 추이

과 정 연 도	원내 국어문화학교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개설 반	개설 횟수	수강 인원	강의 횟수	수강 인원
2001년	22	19	1,292	123	15,412
2002년	25	19	1,452	185	16,970
2003년	29	16	1,486	157	17,890
2004년	30	17	1,458	176	16,332
2005년	30	17	1,765	195	15,655
2006년	32	18	1,921	190	12,926
2007년	38	22	2,354	253	19,305
2008년	38	22	2,443	148	10,275
합 계	244개 반	128회	14,171명	1,427회	124,765명

교육 과정 안내

(1) 국어전문교육과정(원내 국어문화학교)

(가) 공무원 및 일반인반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참조
- 신청 자격: 직업 · 연령 제한 없음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52 / 전송 (02)2669-9787
 - * 공무원의 경우, 교육 시간 35시간 인정
 -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공문서 바로 쓰기, 문장 바로 쓰기, 글쓰기 지도, 협동적 의사소통,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이해와 훈련, 우리말 다듬기,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 시청각 학습 등

(나) 교사반

- 교육 기간: 동계, 하계 방학 중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 신청 자격: 초·중·고 교사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52 / 전송 (02)2669-9787
 - *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이 교사 직무 연수 기관으로 지정받음
 - * 교육 시간 30시간, 교육 점수 2점 인정
 -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이론과 실제, 구별해야 할 말, 띄어쓰기, 문장 부호 사용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글을 바르게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학교 생활문 쓰기, 국어 논술의 이해
 - 말을 바르게 하기: 청소년과의 대화법 등

(2)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 신청 기간: 전월 15일까지 접수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 신청 요건: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 수강 인원 30명 이상
-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어디나 가능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29 / 전송 (02)2669-9787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 글을 바르게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등
 - 말을 바르게 하기: 표준 발음법, 효과적인 말하기 등

- 언어와 문화: 언어 예절, 우리말과 국어문화 등

*강의료는 국립국어원에서 부담하고 교재도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합니다.

(3)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을 통하여 2008년부터는 ‘한글 맞춤법’ 강의를, 2009년부터는 ‘공문서 바로 쓰기’, ‘국어 순화’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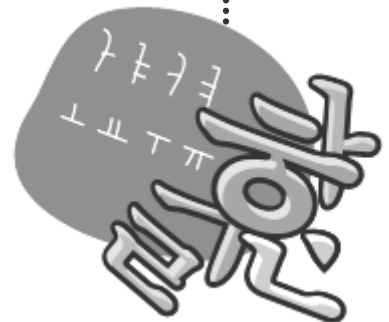
차례

제 1 부 : 어문 규정의 이해

1. 한글 맞춤법	3
2. 띄어쓰기	27
3. 구별해야 할 말	43
4. 문장 부호	53
5. 표준어 규정	87
6. 표준 발음법	105
7. 외래어 표기법	127
8.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43

제 2 부 : 윤택한 국어 생활

1. 우리말 다듬기	155
2. 문장 바로 쓰기	183
3. 공문서 바로 쓰기	193
4.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	207
5. 협력적 의사소통	219
6.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이해와 훈련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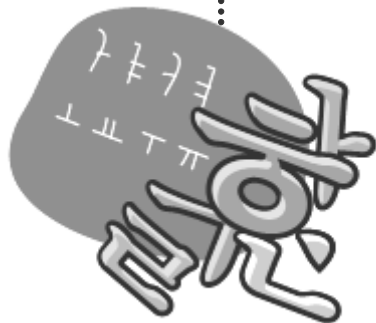




제 1 부

어문 규정의 이해

1. 한글 맞춤법 | 3
2. 띄어쓰기 | 27
3. 구별해야 할 말 | 43
4. 문장 부호 | 53
5. 표준어 규정 | 87
6. 표준 발음법 | 105
7. 외래어 표기법 | 127
8.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143





한글 맞춤법

1. 한글 맞춤법의 원리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¹를 소리대로 적되², 어법에 맞도록³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제1항)

- (1)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를 올바르게 표기하는 법이다.
- (2) 표준어를 표기하는 원리는 두 가지다. 첫째, 표준어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이다. ‘[가]’는 ‘가’로 적고 ‘[나]’는 ‘나’로 적는다. ‘[꼬치]’, ‘[꼰만]’, ‘[꼬또]’로 소리 나는 표준어는 ‘꽃이/꼬치’, ‘꽃만/꼰만/꼰만’, ‘꽃도/꼰또/꼬또’ 등으로 적을 수 있다.
- (3) 그러나 소리 나는 대로만 적을 경우 ‘花’를 의미하는 단어가 ‘꽃/꽃/꼰/꼰’과 같이 여러 형태가 되어 언어생활이 혼란스러워지고 독서의 능률도 떨어지게 된다.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꽃이’, ‘꽃만’, ‘꽃도’와 같이 적으면 의미를 파악하기가 쉬울 것이다.

① 꼬치, 꼬츨, 꼬또, 꼰만 / 갑째, 갑쓸, 갑또, 감만 / 떠기, 떠글, 떡또, 땡만

② 꽃이, 꽃을, 꽃도, 꽃만 / 값이, 값을, 값도, 값만 / 떡이, 떡을, 떡도, 떡만

또한 소리대로만 적기로 한다면 [반드시]로 소리 나는 ‘반듯이[直]’와 ‘반드시[必]’의 구별이 표기상 불가능하지만, ‘반듯하다’와의 관련성을 따져 ‘반듯이’와 ‘반드시’로 나누어 적으면 표기에 따라 의미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어법에 맞도록 함’이란 어떤 한 단어의 원형을 고려하여 표기에 반영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한글 맞춤법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어떤 단어의 원형을 고



려하는 일이다. 어떤 말을 표기할 때 그 모양과 의미가 유사한 다른 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서로 관련지을 수 있다면 원형을 살려 쓰고 그렇지 않다면 소리 나는 대로 쓰게 된다. 예컨대 [깨끄시 사용해라]에서 [깨끄시]라는 말은 ‘깨끗하다[깨끄타다]’와 관련이 있으므로 그 원형인 ‘깨끗’을 고려하여 ‘깨끗이, 깨끗하다’로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지그시 누르다]에서 ‘슬며시 힘을 주는 모양’을 의미하는 [지그시]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 ‘*지긋지긋, *지긋하다’와 같은 관련 단어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 원형을 고려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지그시’로 적게 된다. 한편, [나이가 지그시 든 노인]의 [지그시]는 ‘나이가 비교적 많아 듬직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지긋하다’가 있으므로 그 원형을 밝혀 ‘지긋이’로 적는다.

2. 한글 맞춤법 익히기

2.1. 같아/*갈애(한글 맞춤법 제15항)

“좋은 것 같아.”의 ‘같아’를 [*가태]로 발음하기도 하지만 어간 ‘같-’에 어미 ‘-아’가 결합된 것이므로 [*가태]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다. ‘같아’로 적고 [가타]로 발음해야 한다. ‘같아, 같아요, 같았어, 같았다’와 같이 활용한다.
[참고] 바라/*바래

2.2. 거친/*거칠은(한글 맞춤법 제18항)

‘르’ 받침을 가진 용언에 관형형 어미가 연결되면 ‘르’이 탈락되는 것이 원칙이다. ‘*거칠은, *날으는, *눅슬은’이 아니라 ‘거친, 나는, 눅슨’으로 적어야 한다. ‘*날으는, *거칠은’ 등이 가능하려면 ‘*놀이터에서 놀으는’, ‘*칼을 갈으는’ 등도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놀으는, *갈으는’은 잘못된 활용형이다.
[참고] 낫설다(→ 낫선), 내걸다(→ 내건), 절다(→ 전)

- ㄱ. 하늘을 {나는/*날으는} 비행기, 하늘을 {날/*날을} 것 같은 기분
- ㄴ. {거친/*거칠은} 피부, 피부가 {거치니/*거칠으니} 로션을 발라라.



- ㄷ. 옥외에 {내건/*내걸은} 현수막, 현수막을 {내거니/*내걸으니} ……
 ㄹ. {녹슨/*녹슬은} 철모, 철모가 {녹스니/*녹슬으니} ……

그러나 ‘끓은 달걀’을 ‘*곤 달걀’로 줄여 쓰는 것은 옳지 않다. ‘끓은’의 기본형은 ‘끓다’(속이 물크러져 상하다)이고 이 말의 ‘끓’ 받침은 관형형 어미 앞에서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불은 국수’, ‘홍수로 불은 강물’의 ‘불은’은 기본형이 ‘붙다’(물에 젖어 부피가 커지다,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이므로 ‘*분 국수’가 될 수 없다. 이는 ㄷ불규칙 용언인 ‘듣다, 신다’가 ‘어제 들은 음악’, ‘짐을 실은 마차’ 등과 같이 활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붙다’는 ‘붙고, 붙지, 붙게, 붙으면, 붙어서, 붙었다, 붙은, 붙을, ……」과 같이 활용한다.

2.3. 금세/*금새

‘금세’는 ‘금시(今時)+에’가 줄어든 말이므로 ‘금세’로 적어야 한다. ‘어느새, 요새’를 생각하여 ‘*금새’라고 적지만 이는 잘못이다. ‘어느새, 요새, 밤새’의 ‘새’는 ‘사이’가 줄어든 것이다.

- ㄱ. 효과가 금세 나타났다. / 소문이 금세 퍼졌다.
 ㄴ. 그 조그맣던 꼬마가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 밤새 비가 내렸나 봐.

2.4. 깨끗이/*깨끗히(한글 맞춤법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 ㄱ. ‘이’로 적는 경우
 ① ‘이’로만 나는 것: 가뜩이, 고즈넉이, 그윽이, 깊숙이, 끔찍이, 길쭉이, 멀찍이, 나직이, 느직이, 두둑이 ……
 ② ㅅ 받침 뒤: 깎듯이, 깨끗이, 느긋이, 둥긋이, 따듯이, 반듯이,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

③ 형용사 뒤: 가까이, 가벼이, 고이, 괴로이, 날카로이, 쉬이,

새삼스레 ……, 같이, 굳이, 많이, 적이, 헛되이 ……

④ 부사 뒤: 곰곰이, 더욱이, 오히려, 일찍이 ……

⑤ 첩어 명사 뒤: 간간이,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

ㄴ. ‘히’로 적는 경우

① ‘히’로만 나는 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익히, 작히, 족히, 특히, 엄격히, 간곡히, 까마득히, 머쓱히, 막막히, 뚝뚝히 ……

② ‘이, 히’로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정결히, 과감히, 꼼꼼히, 심히, 열심히, 급급히, 답답히, 섭섭히, 공평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간소히, 고요히, 도저히 ……

2.5. 나무꾼/*나뭇꾼/*나뭇꾼(한글 맞춤법 제54항)

‘나무꾼’이 옳은 표기다. ‘뉘시꾼’, ‘사기꾼’ 등도 마찬가지다. ‘때깎’, ‘빚깎’, ‘성깎’ 등도 ‘*땃깎’, ‘*빚깎’, ‘*성깎’ 등으로 적어서는 안 된다. 단 ‘젓깎’은 ‘*젓깎’이 아니라 ‘젓갈’이 옳다.

[참고] 심부름꾼, 익살꾼, 일꾼, 장꾼, 장난꾼, 지게꾼, ……

2.6. 늘이다/늘리다(한글 맞춤법 제57항)

‘늘이다’는 ‘힘을 가해서 본디의 길이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는 의미이고, ‘늘리다’는 ‘늘게 하다’는 의미로 각각 ‘고무줄을 늘이다’, ‘용수철을 늘이다’와 ‘재산을 늘리다’, ‘실력을 늘리다’와 같이 쓰인다. ‘바지를 {늘이다/늘리다}’의 경우는 옷감을 덧대어서 길게 하는 경우는 ‘늘리다’이지만 탄력성이 있는 바지를 당겨서 길게 한다는 뜻일 때는 ‘늘이다’가 된다. ‘수출량, 강의 시간’ 등은 ‘늘리다’와 함께 쓰일 수 있다.



2.7. 더욱이/*더우기(한글 맞춤법 제25항)

‘더욱이’, ‘일찍이’, ‘오뚝이’는 ‘더욱’, ‘일찍’, ‘오뚝’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더우기’, *‘일찌기’, *‘오뚜기’로 적지 않는다. *‘일찌기 문명을 꽃 피운 나라’와 ‘오늘은 일찍이 일어났다.’를 구분하는 일이 있지만 어느 경우나 ‘일찍이’로 적는다. 그러나 ‘반듯하다’와 관련이 있는 ‘반듯이’와, 관련이 없는 ‘반드시[必]’는 구분하여 적는다.

2.8. 덮이다/*덮히다

동사 ‘덮다, 짚다’의 피동형은 ‘덮이다, 짚이다’이다. 형용사 ‘높다’의 사동형은 ‘높이다’가 된다. ‘-히-’는 주로 ‘ㄱ’, ‘ㄴ’, ‘ㄷ’, ‘ㅌ’ 받침을 가진 말에 결합한다.

[참고] 먹히다, 막히다 / 굶히다, 읽히다 / 넓히다, 밝히다 / 굽히다, 입히다, 잡히다

2.9. 되라/돼라(한글 맞춤법 제35항)

‘되라’와 ‘돼라’의 차이는 전자는 ‘되- + -(으)라’이고 후자는 ‘되- + -어라’라는 점이다. ‘되-’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어 줄어드는 경우 ‘돼’가 된다. “어머니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되- + -(으)라고] 말씀하셨다.”와 “성실한 사람이 돼라(되- + -어라).”와 같이 구분된다. 한편 ㄷ과 같이 의고체의 명령형인 ‘-(으)라’가 연결되면 ‘되라’와 같은 형태도 가능하다.

‘되다’의 활용형 ‘되어’가 ‘돼’로 줄어드는 것은 ‘하다’의 활용형 ‘하여’가 ‘해’로 줄어드는 것과 똑같은 환경이다. 그러므로 ‘하다’의 활용형 ‘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면 ‘돼(되어)’가 가능하다.

[참고] 피다, 찌다, 뇌다, 되다, 뵈다(‘모이다’의 준말), 뵈다, 쇠다, 썰다, 죄다, 찌다

ㄱ. 되지 못한 것은 하지 말아야 돼(되- + -어).

※ 해

돼먹지 못한 놈 / 막돼먹은 인간은 되지 마라.

※ 해 먹다 / 하지 마라



그가 과연 회장이 될까? / 되었어(됐어)/되었네(됐네).

※ 할까 / 했어 / 했네

후보 가운데 누가 회장으로 선정되어도(선정돼도) 좋다. ※ 해도

얼굴이 안돼 보인다. / 그 사람 참 안됐군. ※ 했군

공부 더 해도 돼요? /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 해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돼라). ※ 해라

ㄴ. 어머니께서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하라고

ㄷ. 공부를 열심히 하라. 훌륭한 사람이 되래[되- + -(으)라]. ※ 하라

ㄹ. 선생님, 내일 뵈어요/뵈요/*뵈요.

이번 명절은 고향에서 쉬어요/쉴요/*쉬요?

2.10. 디뎠다/*뎠었다(한글 맞춤법 제32항)

‘뎠다’는 ‘디디다’의 준말로, ‘뎠고, 뎠자, 뎠게’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연결이 될 수 있지만 ‘*뎠어’, ‘*뎠었다’, ‘*뎠으며’, ‘*뎠어서’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연결이 될 수 없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디디다’와만 결합하여 ‘디디어(디더), 디디었다(디뎠다)’로 활용한다. ‘가지다/갖다’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미 \ 기본형	-고	-지	-니?(의문)	-어/아	-으니	-(으)며	-(으)ㄴ
디디다	디디고	디디지	디디니?	디디어 (디더)	디디니	디디며	디딘
뎠다	뎠고	뎠지	뎠니?	*뎠어	*뎠으니	*뎠으며	*뎠은
가지다	가지고	가지지	가지니?	가지어 (가져)	가지니	가지며	가진
갖다	갖고	갖지	갖니?	*갖어/ *갖아	*갖으니	*갖으며	*갖은

이와 조금 다른 것으로 ‘머무르다/머물다’, ‘서투르다/서툴다’, ‘서두르다/서둘다’ 등이 있다. ‘머물다, 서툴다, 서둘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중에서 ‘-어’와만 결합하지 못한다.



기본형 어미	-고	-지	-니?(의문)	-어/아	-(으)니	-(으)며	-(으)ㄴ
머무르다	머무르고	머무르지	머무르니?	머물러	머무르니	머무르며	머무른
머물다	머물고	머물지	머무니?	*머물어	머무니	머물며	머문
서투르다	서투르고	서투르지	서투르니?	서툴러	서투르니	서투르며	서투른
서툴다	서툴고	서툴지	서투니?	*서툴어	서투니	서툴며	서툰

2.11. -ㄴ걸/*-ㄴ걸

‘집에 갈까?’, ‘불의에 굴복할쏘냐?’, ‘어찌 할꼬?’의 ‘-ㄴ까’, ‘-ㄴ쏘냐’, ‘-ㄴ꼬’를 제외하고는 된소리로 끝나는 어미는 없다.

- ㄱ. 이미 {도착했을걸/*도착했을걸}.
- ㄴ. 내가 해 {줄게/*줄게}.
- ㄷ. 점심은 국수를 {먹을까/*먹을가}?

2.12. -(으)로서/-(으)로써(한글 맞춤법 제57항)

‘-로서’는 자격, ‘-로써’는 도구나 수단의 의미로 쓰인다. ‘나로서는 할 말이 없다.’,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자.’, ‘친구로서 나를 욕하다니!’와 ‘칼로(써) 연필을 깎는다.’, ‘술로(써) 인생을 탕진했다.’가 구분된다. ‘-(으)ㄴ으로(써)’와 ‘-므로’도 구분해서 써야 한다. ‘-(으)ㄴ으로(써)’는 ‘써’가 붙을 수 있지만 ‘-므로’에는 붙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그는 부지런하므로 돈을 많이 벌었다.’와 ‘그는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돈을 많이 벌었다.’가 구분된다.

2.13. 마라/*말아라(한글 맞춤법 제18항)

‘말다’에 ‘-아(라)’의 명령형 어미가 결합한 ‘말-아라/말-아’는 ‘마라/마’로 줄어든 형태가 표준어이다. 하지만 ‘-(으)라고’가 결합할 경우에는 ‘말라고’가 된다.



- ㄱ. 못된 짓은 하지 마라/마.
- ㄴ. 어머니께서 불량 식품은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 ㄷ. 밤새우지 말란 말이야.

2.14. 맞추다/맞히다/마치다(한글 맞춤법 제55항, 제57항)

‘맞추다’는 ‘기준이나 다른 것에 비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맞히다’는 ‘맞다’의 사동사로 ‘적중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답을 맞히다’와 ‘답을 맞추다’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말이 된다. “내가 열 문제 모두를 □□□.”라고 할 때는 ‘*맞췄어’가 아니라 ‘맞혔어’라고 해야 한다. 또한 “상자 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 □□□□ 보세요.”에는 ‘알아맞혀’로 써야 한다. 하지만 “내가 쓴 답과 모범 답안을 □□□ 보았다.”라고 할 때는 ‘비교하다’의 의미인 ‘맞추어(맞춰)’로 써야 한다.

‘마치다’는 “벌써 일을 마쳤다.”와 같이 ‘어떤 일을 마지막으로 끝내다’의 의미로 쓰인다.

2.15. 머릿기름/*머리기름(한글 맞춤법 제30항)

- ㄱ. ‘사이시옷’을 표기하기 위한 선결 조건
 - ① 합성어(명사)의 두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 이상은 고유어일 것.
 - ②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것.
- ㄴ. 위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다음의 음운 현상이 나타나면 ‘ㅅ’을 받쳐 적음.
 - ① 뒷말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가 [ㄱ, ㄷ, ㅂ, ㅅ, ㅈ]로 변할 때 (즉,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할 때)
 - 콧 + 구멍, 기름, 김, 대, 등, 바람, 방울, 병, 부리, 소리, 속, 수염
 - 콧병, 기댓값, 대폿값, 등긱길, 고깃국, 만둣국, 맥줏집, 머릿돌, 바닷가, 보랏빛, 빨랫줄, 성곶길, 시냇가, 장밋빛, 전깃불, 조갯살, 찻잔, 고깃집, 횃집
 - ②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 콧날, 콧노래, 콧물, 콧마루, 뺨머리, 수돗물, 뿔마루



-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즉, 모음 사이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 깻잎, 나뭇잎, 베갯잇, 옷잇, 예삿일, 사삿일
- ㄷ. 예외(다음의 6개 한자어에서만 ‘ㅅ’ 표기 허용)
→ 곳간(庫間), 차간(車間), 뒷간(退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횡수(回數)
※ ‘기차간(汽車間, ← 기차 + 간)’, ‘전세방(傳貰房, ← 전세 + 방)’은
위 6개 한자어 외의 것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음.
- ㄹ. 위 ㄴ.의 음운 현상이 없으면(즉, 소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ㅅ’을 표기
하지 않음.
→ 머리말, 머리글, 나무다리, 인사말
- ㅁ. 된소리, 거센소리로 시작하는 뒷말 앞에서는 ‘ㅅ’을 표기하지 않음.
→ 쥐뿔, 뒤풀이, 뒤쪽, 뒤편, 위쪽, 위칸
- ㅂ. 외래어와 고유어의 결합일 경우에도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않음.
→ 핑크빛, 피자집 등

2.16. 며칠/*몇일/*몇 일(한글 맞춤법 제27항)

한글 맞춤법 제27항의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삼는다면 ‘몇 + 일’은 ‘몇일’로 적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같은 항의 [붙임] 항목에는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라고 하고 예로 ‘골병, 골탕, 며칠’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이 한글 맞춤법은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몇일’이 아니라 ‘며칠’로 적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다음 예로 미루어 보면, ‘몇’ 다음에 ‘일(日)’이 오면 [며딜]로 소리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 ㄱ. 몇 월 → [며월], 몇 인 → [며딘], 몇 억 → [며덕], 몇 원 → [며웁]
- ㄴ. 몇 향 → ([며향]) → [며탕], 몇 해 → ([며해]) → [며태],
몇 호 → ([며호]) → [며토]
- ㄷ. 몇 날 → ([며날]) → [며날], 몇 년 → ([며년]) → [며년],



몇 묶음 → ([멸무끔]) → [면무끔]
 ㄷ. 몇 일(日) → * [며덜]

‘몇’ 다음에 명사가 오면 끝소리의 ‘ㄷ’은 중화되어 ‘ㄷ’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ㄱ.과 같이 ‘몇 + 월’은 [며췌]이 아니라 [며뵤]이 되고, ‘몇 + 억’은 [며척]이 아니라 [며덕]이 되는 것이다. 이는 ‘옷 + 안’이나 ‘꽃 + 위’, ‘날 + 알’이 [오산], [꼬취], [나탈]이 아니라 [오단], [꼬뒤], [나달]로 소리 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몇 + 일’의 구성은 [며덜]로 소리가 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며덜]이라고 하지 않고 [며췌]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은 이 말이 ‘몇 + 일(日)’의 구성이 아님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며췌]은 현대 국어에서 그 어원(원형)을 밝힐 수 없는 것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며췌’이라고 적게 되는 것이다.¹⁾

‘며췌’은 또 다시 ‘날’과 결합하여 ‘며췌날’이라는 합성어를 만들기도 한다 (“아버님 제사가 5월 며췌날이지?”). 일부에서는 ‘몇 일’과 ‘며췌’을 의미를 구분해서 적는 일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어떤 뜻이든지 ‘며췌’이라고 써야 한다.

- ㄹ. *오늘이 몇 월 몇 일이지?(×) → 오늘이 몇 월 며췌이지?(○)
- ㅁ. 며췌 동안 휴가를 다녀왔다.(○)
- ㅂ. 며췌만 시간을 주세요.(○)

2.17. 문득/문뜩(한글 맞춤법 제5항)

다음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 보자.

- ㄱ. 어느 날 문득 고향 생각이 났다.
- ㄴ. 나는 문득 고개를 들어 창 너머 하늘을 보곤 했다.

1) 사실 ‘며췌’는 중세 국어에서 이미 현대 국어와 같이 두 가지 의미(1. 그달의 몇째 되는 날, 2. 몇 날)로 모두 쓰이던 말이었다. 이 말이 현대 국어 ‘며췌’에까지 전해져서 쓰이는 것이다.

ㄱ. 오늘이 며췌고 《朴通事諺解(1677년) 중:53》

ㄴ. 며츠를 설워 하리러노 《翻譯朴通事(1517년) 상:75》



대부분의 화자들은 ‘문득’을 [문뜩]이라고 소리 내어 읽는다. 하지만 ‘문득’은 [문득], ‘문뜩’은 [문뜩]으로 소리를 내야 한다. 그 발음에 따라 구별해서 적어야 할 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더 있다.

[참고] 깜박/깜빡, 꿈작/꿈작, 끈덕끈덕/끈덕끈덕, 방긋/방긋, 번득/번득, 번듯/번듯, 번적/번적, 생긋/생긋, 싱긋/싱긋, 흘긋/흘긋, 흘깃/흘깃

2.18. -박이/-배기/-빼기(한글 맞춤법 제54항)

접미사	의미	단어 형성의 예
-박이	무엇이 박혀 있는 사람, 짐승, 사물, 장소 등을 나타내는 접미사	덧니박이, 점박이, 외눈박이, 토박이, 불박이, 오이소박이, 차돌박이, 장승박이
-배기	1. 그 나이를 먹은 아이	한 살배기, 다섯 살배기
	2. 어떤 것이 짝 차 있음.	알배기, 나이배기
	3. 어떤 명사 뒤에 붙어 그런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공짜배기, 진짜배기, 대짜배기
-빼기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이나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이마빼기, 고들빼기, 곱빼기, 억척빼기, 코빼기 (예외) 뚝배기, 언덕배기

2.19. 백분율/*백분률(한글 맞춤법 제11항)

한자어 ‘률, 률’은 모음이거나 ‘ㄴ’ 받침 뒤에 올 때는 ‘열, 율’로 적는다. 그 외의 경우와 외래어 다음에는 ‘률, 률’로 적는다.

한자	사용 환경	음	보기
率 律 栗 慄	ㄴ을 제외한 자음이거나 외래어 다음	률	악률(樂律), 출석률(出席率), 굴절률(屈折率), 음률(音律), 결합률(結合率), 법률(法律), 성공률(成功率), 생률(生栗), 영률(Young率: 고체 탄성률의 하나)
	모음, ㄴ 받침 다음	율	규율(規律), 분해율, 비율(比率), 실패율, 참가율, 백분율, 불문율(不文律), 선율(旋律), 전율(戰慄), 평균율(平均律)



列 例 劣 烈 裂	ㄴ을 제외한 자음이 나 외래어 다음	렬	격렬(激烈), 극렬(極烈), 열렬(熱烈) / 결렬(決裂), 멸렬(滅裂) / 졸렬(拙劣), 용렬(庸劣) / 행렬(行列), 정렬(整列), 병렬(並列)
	모음, ㄴ 받침 다음	열	선열(先烈), 치열(熾烈) / 균열(龜裂), 분열(分裂) / 우열(優劣) / 계열(系列), 대열(隊列), 반열(班列)

2.20. 부딪치다/부딪히다(한글 맞춤법 제57항)

‘부딪치다’는 ‘힘차게 부딪다’의 뜻이고 ‘부딪히다’는 ‘부딪음을 당하다’의 뜻이다. 그러므로 ‘자전거에 부딪쳤다.’는 상호작용으로 자전거와 충돌했다는 의미로, ‘자전거에 부딪혔다.’는 피동적으로 자전거에 충돌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부딪치다’는 ‘마주’라는 부사가 와도 자연스러우나, ‘부딪히다’는 그렇지 않다.

- ㄱ. 차와 차가 마주 부딪쳤다.
- ㄴ. 길을 가다가 자전거와 마주 부딪쳤다.
- ㄷ. *길을 가다가 자전거에 마주 부딪혔다.

‘그들의 결혼은 부모의 반대에 □□□□.’와 ‘졸업과 동시에 냉혹한 현실에 □□□□.’와 같은 문장에서는 ‘부딪혔다’로 써야 한다.

2.21. 붙이다/부치다(한글 맞춤법 제57항)

‘붙이다’와 ‘부치다’는 구별되는 말이다. 대체로 ‘붙다’의 뜻이 남아 있는 경우는 ‘붙이다’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치다’로 적는다.

- ㄱ. 붙이다: 반창고를 붙이다 / 불을 붙이다 / 흥정을 붙이다 / 감시원을 붙이다 / 주석을 붙이다 / 번호를 붙이다 // 따귀를 올려붙이다 // 소매를 걷어붙이다 // 친구를 범인으로 몰아붙이다
- ㄴ. 부치다: 편지를 부치다 / 안건을 회의에 부치다 / 극비에 부치다 /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치다 / 식목일에 부치는 글 // 기운이 부치다
// 논밭을 부치다 // 부침개를 부치다 // 부채를 부치다

2.22. 사귀어/*사겨/*사궤

“둘이 한번 사귀어 봐.”의 ‘사귀어’는 ‘*사겨/*사궤’로 줄어들 수 없다. 마찬가지로 ‘바뀌어’ 역시 ‘*바껴, *바궤’ 등으로 줄어들 수 없다. 흔히 ‘언제부터 *사궤니? / 짝이 또 *바궤어?’ 등으로 쓰지만 잘못이다. ‘사귀었니, 바뀌었어’로 써야 한다.

[참고] 지저귀어, 바뀌어, 나뉘어, 야위어, 비취어, 할퀴어

2.23. 시원찮다/*시원찮다(한글 맞춤법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그러므로 ‘시원하지 않다’는 ‘시원치 않다 → *시원찮다’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원찮다’와 같이 적는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찮’이나 ‘*잖’과 같이 적는 일은 없고 모두 ‘찮’이나 ‘잖’으로 적는다.

적지 않다 → 적잖다	만만하지 않다 → 만만찮다
그렇지 않다 → 그렇잖다	변변하지 않다 → 변변찮다
두렵지 않다 → 두렵잖다	성실하지 않다 → 성실찮다

2.24. 벌에 쏘였다/찌었다(한글 맞춤법 제37항)

동사의 사동형 혹은 피동형의 준말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한글 맞춤법 제37항에 근거한다. 한글 맞춤법 제37항에서는 “ㄱ, ㅋ, ㆁ, ㄷ, ㅌ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ㆁ, ㆁ, ㄷ, ㄷ, ㄴ으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라고 밝혀 ‘쏘이다 ~ 찌다’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꼬다, 눅다, 뜨다, 보다, 쓰다’ 등에 사동 혹은 피동의



접미사 ‘-이-’가 결합한 ‘꼬이다, 누이다, 뜨이다, 보이다, 쓰이다’ 등은 모두 ‘피다, 뉘다, 띄다, 뵈다, 씌다’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표기가 모두 가능한 것이다.

ㄱ. (쏘- + -이- →)	쏘이다 ~ 췌다: 벌에 손등을 {쏘였다/췌었다}.
ㄴ. (꼬- + -이- →)	꼬이다 ~ 피다: {몸이/일이} 점점 {꼬였다/피었다}.
ㄷ. (눕- + -이- →)	누이다 ~ 뉘다: 아이를 침대에 {누였다/뉘었다}.
ㄹ. (뜨- + -이- →)	뜨이다 ~ 띄다: 아침에 눈이 번쩍 {뜨였다/띄었다}.
ㅁ. (쓰- + -이- →)	쓰이다 ~ 씌다: 글씨가 {쓰여/씌어} 있는 공책.

다만, ‘고이다/괴다’의 쌍에서 도출되는 것이지만, ‘고인돌’은 쓸 수 있고 ‘권돌’은 쓸 수 없다. 이는 표준어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기인한 것이다.

2.25. 아니꼬워/*아니꼬와(한글 맞춤법 제18항)

ㅂ변칙 용언에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는 어간 말음의 ‘ㅂ’이 ‘ㅍ’로 바뀌므로, ‘안타깝다’, ‘가깝다’, ‘아니깝다’ 등은 ‘*안타까와’, ‘*가까와’, ‘*아니꼬와’가 아니라 ‘안타까워’, ‘가까워’, ‘아니꼬워’ 등으로 적는다. 다만 ‘곶-[麗]’, ‘돕-[助]’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 ‘와’로 소리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 그러므로 ‘곶-’과 ‘돕-’은 ‘고와, 고왔다’와 ‘도와, 도왔다’처럼 적는다.

ㄱ. 가깝다:	가깝고	가깝지	가까워	가까우니	가까운
자랑스럽다:	자랑스럽고	자랑스럽지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우니	자랑스러운
ㄴ. 곶다:	곶고	곶지	고와	고우니	고운
돕다:	돕고	돕지	도와	도우니	도운

2.26. 아니요/아니오

‘아니’라는 형태를 가지는 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



- ㄱ. 아니(부사, ㉠ 안): 밥을 아니(안) 먹다. / 아니(안) 슬프다.
 ㄴ. 아니(감탄사): 밥 먹었니? → 아니, 아직 못 먹었어. / 응, 먹었어.
 식사하셨어요? → [아니요(아뇨)], 아직 못 먹었어요.
 / 예, 먹었어요.
 ㄷ. 아니다(형용사): 직원이 {아니야/아니오/아닙니다/아니었어}. /
 직원이 아닌 사람

ㄱ.의 ‘아니’는 그 문장에 쓰인 서술어의 의미를 부정하는 부사이다. 이 ‘아니’는 줄어들어 ‘안’으로도 쓰인다. ㄴ.의 ‘아니’는 긍정·부정을 물어보는 의문문(판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며 감탄사로 분류된다.(이 ‘아니’는 ‘안’으로 줄어들 수 없다.)

ㄷ.의 ‘아니다’는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해체의 어미 ‘-야’, 하오체의 어미 ‘-오’, 합쇼체(하십시오체)의 어미 ‘-ㅂ니다’ 등의 어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도 결합할 수 있는 형용사로 쓰인다.(이 ‘아니다’ 역시 ‘안’으로 줄어들지 못한다.)

위에서 보면 우리가 부정의 대답으로 사용하는 것은 ㄴ.의 ‘아니’(감탄사)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의 반대말로 쓰는 [아니요]라는 말은 감탄사 ‘아니’에 해요체의 보조사 ‘요’가 결합된 ‘아니요’로 적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 문제에 ‘예/아니요’로 대답하십시오.”와 같은 문장에서는 ‘아니요’를 써야 한다. ‘아니요’는 줄어서 ‘아뇨’가 되기도 한다.

※ ‘요’와 ‘오’의 구분 방법

국어의 특성상 조사(격조사, 보조사)는 상황에 따라 생략해도 말이 되지만(예 ㄴ. 참조) 용언에 결합하는 어미는 어느 하나라도 생략하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예 ㄷ. 참조). 한편, 보조사는 다른 조사와 겹칠 뿐만 아니라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에도 두루 결합될 수 있다(예 ㄷ.~ㅅ. 참조).

- ㄱ. 나는 밥을 먹었어. / 철수가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ㄴ. 나 밥 먹었어. / 철수 시골 다녀왔습니다. → (보)조사 생략



- ㄷ. 나는 밥을 {*먹/*먹었} / 철수 시골 {*다녀오/*다녀왔습니다} → 어미 생략
 ㄹ. 철수가요 어제는요 학교에서도요 만화책을요 보았어요. → 조사 겹침 / 해요체
 ㅁ. 비행기가 {빨리도/빨리만/빨리는} 나는구나. → 부사 + 보조사
 ㅂ. 그런 소문을 {들어도/들어만/들어는} 보았어. → 동사 + 보조사
 ㅅ. 그는 친구를 {좋아도/좋아만/좋아는} 한다. → 형용사 + 보조사
 ㅇ. 이리로 앉으요. / 좋도록 하요. / 이 문을 여시오.
 ㅈ. 이리로 앉아요. / 좋도록 해요. / 이 문을 열어요.

그런데 ‘요’는 해요체의 보조사이고 ‘-오’는 하오체의 어미이므로, ‘요’는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하지만 어미 ‘-오’를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못한다. 이 둘을 구별하는 손쉬운 방법은 바로 이 차이를 구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즉, 그 ‘요/오’를 생략해서 문장이 성립하면 보조사 ‘요’가 쓰인 것이고 성립하지 않으면 어미 ‘-오’가 쓰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ㅇ.에서 ‘-오’를 생략하면 문장이 모두 비문이 되지만 ㅈ.에서는 ‘요’를 생략하더라도 해요체에서 해체로 준대의 등급은 낮아지지만 문장 자체는 성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안녕하세요/안녕하셔요’의 ‘-(으)세요/-(으)셔요’는 복수 표준어이므로 둘 다 인정되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연결형의 ‘이요’이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연필이요 그것은 공책이다.”처럼 연결형으로 쓰일 때는 ‘이요’를 사용하고 연결형이 아닌 경우에는 “이것은 내 책이요.”처럼 ‘이오’(서술격 조사 ‘이-’ + 하오체 어미 ‘-오’)를 쓴다(한글 맞춤법 제15항).

2.27. 아무튼/*아뭇든(한글 맞춤법 제40항)

용언의 활용형 가운데 하나의 형태만이 굳어져서 부사로 쓰이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 ‘아무튼’은 ‘아뭇-’에 어미 ‘-든’이 결합한 형태만 쓰이고 그 이외의 활용형은 전혀 쓰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부사로만 쓰이므로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 것이다.

[참고]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하지만 ‘이렇든, 그렇든, 저렇든, 아무렇든, 어떻든’ 등은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아무렇다, 어떻다’의 활용형이므로 ‘-튼’으로 적지 않는다.

한편, ‘아무튼’은 ‘의견이나 일의 성질, 형편, 상태 따위가 어떻게 되어 있든’의 뜻으로 ‘어떻든, 어쨌든, 여하튼, 하여튼’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2.28. 안/않-

“다시는 담배를 안/*않 피우겠다.”에서는 ‘안’이 옳다. ‘안’은 ‘아니’의 준말로 부사이고, ‘않-’은 ‘아니하-’의 준말로 ‘않다’, ‘않았다’, ‘않겠다’와 같이 활용하는 용언이다. 즉, ‘안’은 다른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 쓰이고, ‘않-’은 문장의 서술어로 “내가 하지 않았다.”처럼 ‘-지 않-’의 구성으로 주로 쓰인다.

ㄱ. 다시는 안 만날 거야. /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ㄴ. 안 보이니? / 보이지 않니?

2.29. 안치다/얹히다(한글 맞춤법 제57항)

‘안치다’는 기원적으로는 ‘얹다’에서 온 것으로 보이나 그 의미의 관련이 떨어진 것으로 보아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안치다’는 ‘끓이거나 쪄 물건을 솥이나 시루에 넣다’는 뜻으로 ‘쌀을 안치다’, ‘밥을 안치다’와 같이 쓰인다. 반면 ‘얹히다’(‘얹다’의 사동형)는 ‘얹게 하다’의 뜻이므로 ‘아이를 자리에 얹히다’와 같이 쓰인다.

2.30. 어떡해/어떻게/*어떻해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로 문장을 맺는 서술어이고, ‘어떻게’는 ‘어떻-’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한 활용형으로 다음에 서술어가 와야 한다.

ㄱ.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 (※ ‘어떻게 하다’가 줄어들어 ‘어떡하다’가 됨.)



어떡하든 성공해야 해. / 어떡하면 좋아. / 어떡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 / 나 어떡해? 어떡하지?

어떡하긴? 이제 와서 어떡하겠어? / 아이들은 어떡하고 있어?

- ㄴ. ‘어떡하다(<어떻게 하다<어떠하게 하다)’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 말 이력하다(이렇게 하다), 그럭하다(그렇게 하다), 저럭하다(저렇게 하다)
→ 이력하면 어떡하니? 그럼 그럭해도 돼? 이력하나 저럭하나 혼나는 건 마찬가지.

그러므로 ‘이 문제를 *어떡해 풀지?’는 잘못이다. ‘어떻게’로 써야 한다.

[참고] 이력하다(이렇게 하다), 그럭하다(그렇게 하다), 저럭하다(저렇게 하다)

2.31. 웬지/*웬지

“오늘은 웬지 기분이 좋아.”에서 ‘웬지’는 ‘왜인지’가 줄어서 된 말이므로 ‘웬지’로 적는다. 하지만 “웬 떡이냐?”, “이게 웬 날벼락이냐?”, “봄인데 웬 눈이 이렇게 많이 오지?”, “웬 사람이 널 찾아왔어.”라고 할 때는 ‘웬’으로 적는다. ‘웬’은 ‘어찌 된, 어떠한’을 뜻하는 관형사이다.

[참고] 웬걸, 웬만하다, 웬만큼, 웬일

2.32. 이에요/이어요

‘이에요’와 ‘이어요’는 복수 표준어로서 ‘이다’에 ‘-에요’, ‘-어요’가 붙은 말이다. 다시 ‘-어요’는 어미 ‘-어/-아’에 보조사 ‘요’가 결합한 것으로 ‘하다’ 어간 뒤에서는 ‘-여요’로 실현되고 ‘이다, 아니다’ 뒤에서는 ‘-에요’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요/이어요’의 ‘이’는 서술격 조사이므로 체언 뒤에만 붙는데,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는 ‘에요/여요’로 줄어든다. 한편 ‘아니다’는 용언이므로 ‘이에요/이어요’가 연결될 수 없고 어미인 ‘-에요/-어요’가 연결되므로 ‘아니에요(아네요)/아니어요(아녀요)’와 같이 쓸 수 있다. ‘아니다’에 ‘이에요’와 ‘이어요’가 붙은 ‘*아니에요’, ‘*아니여요’는 잘못이다.



경우	환경	용례
인명	받침 있는 인명	영숙이 + 이에요 → 영숙이에요 영숙이 + 이어요 → 영숙이여요 국어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사람 이름을 직접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접미사 ‘-이’가 붙는다. ‘영숙이가, 영숙이를, 영숙이도, 영숙이에게, 영숙이는…….’ 그러므로 우리가 [영수기예요]처럼 말하는 것은 조사결합체인 ‘이에요’가 ‘영숙’ 다음에 곧바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영숙이’에 결합되는 것으로 분석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숙이 + 이에요’의 구성으로 파악하여, ‘영숙이 + 예요 → 영숙이에요’로 적게 되는 것이다. ‘책을 읽은 사람은 *영숙이에요’는 잘못된 표기이다.
	받침 없는 인명	영희 + 이에요 → 영희예요 영희 + 이어요 → 영희여요
명사	받침 있는 명사	집 + 이에요 → 집이에요 집 + 이어요 → 집이어요
	받침 없는 명사	회사 + 이에요 → 회사예요 회사 + 이어요 → 회사여요
아니다	형용사 다음	아니 + (이)예요 → 아니예요(아녜요) 아니 + (이)어요 → 아니어요(아녀요) ※ *아니예요/*아니여요’는 잘못.

2.33. 있음/*있슴

‘있음’은 ‘있-’에 명사형 어미 ‘-(으)ㅁ’이 결합된 것이므로 ‘있음’이 옳다. ‘먹- + -(으)ㅁ’일 때는 *‘먹슴’이 아니라 ‘먹음’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전에 쓰던 ‘있습니다, 먹읍니다’의 ‘-읍니다’를 현행 맞춤법에서 ‘-습니다’로 적기로 한 사실에서 유추하여 ‘있음’, ‘없음’을 *‘있슴’, *‘없슴’으로 적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이다.

2.34. 자랑스러운/*자랑스런

‘자랑스럽다’와 ‘부끄럽다’에서 온 ‘자랑스러운’과 ‘부끄러운’은 *‘자랑스런’과 *‘부끄스런’으로 줄지 않는다. 이는 ‘깎다, 눅다, 줍다, 가깝다, 무겁다, 쉽다’ 등의 활용형인 ‘기운, 누운, 주운, 가까운, 무거운, 쉬운’ 따위가 *‘긴, *눈, *준, *가깐, *무건, *스런’으로 줄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2.35. 치러/*치뤼(한글 맞춤법 제18항)

‘(시험을) 치르다’는 ‘치러(치르- + -어)’, ‘치렀다(치르- + -었다)’처럼 된다. 일부에서는 ‘*치루고, *치뤼, *치뤼다’로, 심지어는 ‘*칠렀다’처럼 쓰기도 하나 이들은 모두 잘못이다. 또한 ‘김치를 담갔다’를 ‘*김치를 담꿔다’로, ‘문을 잠갔다’를 ‘*문을 잠꿔다’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담그다, 잠그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면 ‘담그- + -어/아 → 담가’, ‘잠그- + -어/아 → 잠가’와 같이 활용하므로 ‘문을 잠가라, 김치를 담가 먹었다’와 같이 적어야 한다.

- ㄱ. 시험을 {치르/*치룬} 후 집안에 잔치를 {치렀다/*치뤼다}.
- ㄴ. 어머니께서 김치를 {담가/*담귀/*담아} 주셔서 우리는 {담글/*담굴/*담을} 필요가 없었다.
- 며칠 전에 김치를 {담갔다/*담꿔다/*담궈다}.
- ㄷ. 현관문을 먼저 {잠근/*잠균} 후에 안방 문을 {잠가라/*잠귀라}.

2.36. 통틀어/*통털어

‘있는 대로 모두 한데 묶다’의 뜻을 가진 말은 ‘*통털다’가 아니라 ‘통틀다’이다. ‘통틀다’는 현대국어에서 그 활용에 제약을 심하게 받고 있는 말로 주로 ‘통틀어(서), 통틀고, 통틀면’ 정도의 예만 보인다. 또한 활용형 ‘통틀어’는 현대국어에서는 부사로 쓰인다.

- ㄱ. 있는 돈을 통틀면 모두 5만 원쯤 됩니다.
- 부여와 공주를 통틀고 나서도 아직 3천에선 2백여 명이 모자랐다.
- 〈이청준, 춤추는 사제〉
- ㄴ. 이사하는 데 통틀어 2백만 원이 들어갔다.
- 자녀는 아들과 딸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우릴 통틀어 경멸하는 소리는 삼가 줘. 〈박완서, 도시의 흥년〉



2.37. 퍼레지다/*퍼레지다

‘ㅎ’ 발음을 가진 색채 형용사들은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화하는 불규칙 용언이다. 활용할 때는 모음 조화에 따라 어미 ‘-어/-아’가 선택된다. 그러므로 ‘퍼렇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면 ‘퍼렇- + -어 → 퍼레’, ‘퍼렇- + -으니 → 퍼러니’ 등으로 활용하고, ‘하얏다’는 ‘하얏- + -아 지다 → 하얘지다’, ‘허엿다’는 ‘허엿- + -어 지다 → 허예지다’와 같이 활용한다.

기본형	-고	-지	-(으)ㄴ	-(으)니	-어/아	-었/았-	-(으)니?(의문)
까맣다	까맣고	까맣지	까만	까마니	까매(지다)	까맸다	까맣니/까마니?
꺼뭇다	꺼뭇고	꺼뭇지	꺼먼	꺼머니	꺼메(지다)	꺼맸다	꺼뭇니/꺼머니?
빨강다	빨강고	빨강지	빨간	빨가니	빨개(지다)	빨갸다	빨강니/빨가니?
빨ջ다	빨ջ고	빨ջ지	빨건	빨거니	빨게(지다)	빨갸다	빨ջ니/빨거니?
하얏다	하얏고	하얏지	하얀	하야니	하애(지다)	하언다	하얏니/하야니?
허엿다	허엿고	허엿지	허연	허여니	허예(지다)	허언다	허엿니/허여니?

2.38. 유의해야 할 띄어쓰기

(1) 들

- ㉠ 하나의 단어에 결합하여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 접미사(→ 붙여 씀.)
(예) 남자들, 학생들
- ㉡ 두 개 이상의 사물을 열거하는 구조에서 ‘그런 따위’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띄어 씀.)
(예) 쌀, 보리, 콩, 조, 기장√들(등)을 오곡(五穀)이라 한다.

(2) 뿐

- ㉠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 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조사(→ 붙여 씀.)
(예) 남자뿐이다, 셋뿐이다
- ㉡ 용언의 관형사형 ‘-을’ 뒤에서 ‘따름’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띄어 씀.)
(예) 웃을√뿐이다. 쳐다봤을√뿐이다.



(3) 대로

- ㉠ 체언 뒤에 붙어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 조사(→ 붙여 씀.)
(예) 법대로, 약속대로
- ㉡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 띄어 씀.)
(예) 아는√대로 말한다. 약속한√대로 이행한다.

(4) 만큼

- ㉠ 체언 뒤에 붙어서 ‘그런 정도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 조사
(→ 붙여 씀.)
(예) 여자도 남자만큼 일한다.
- ㉡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런 정도로’ 또는 ‘실컷’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띄어 씀.)
(예) 볼√만큼 보았다. 애쓴√만큼 얻는다.

(5) 만

- ㉠ 체언에 붙어서 한정 또는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조사(→ 붙여 씀.)
(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 ㉡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띄어 씀.)
(예) 떠난 지 사흘√만에 돌아왔다. 온 지 1년√만에 떠나갔다.

(6) 지

- ㉠ 막연한 의문이 있는 체로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킴 : 어미
(→ 붙여 씀.)
(예)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 ㉡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 띄어 씀.)
(예) 그가 떠난√지 보름이 지났다. /
은행에 간√지 한 시간 만에 돌아왔다.



(7) 차(次)

- ㉠ 명사 뒤에 붙어서 ‘...하려고’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 접미사(→ 붙여 씀.)
(예) 연수차(研修次) 도미(渡美)한다.
- ㉡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어떤 기회에 겹해서’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띄어 씀.)
(예) 고향에 갔던√차에 선을 보았다.

(8) 판

- ㉠ 합성어를 이루는 경우: 명사(→ 붙여 씀.)
(예) 노름판, 씨름판, 웃음판
- ㉡ 수 관형사 뒤에서 승부를 겨루는 일의 수효를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띄어 씀.)
(예) 바둑 한√판 두자. 장기를 세√판이나 두었다.



띄어쓰기

1. 띄어쓰기의 원리

띄어쓰기 원리는 《한글 맞춤법》에 명시되어 있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가 그것이다. 이 원칙은 대단히 명료해서 ‘단어’가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띄어쓰기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띄어쓰기 문제는 명료하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기준으로 제시한 단어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¹⁾ 흔히 조사는 단어로 다루어진다. 그렇지만 조사를 띄어 쓰는 일은 없다.

《한글 맞춤법》 제41항에서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는 별도의 조항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사가 단어인데도 붙여 쓰는 것을 보면 단어의 개념이 그리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단어’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2. 자립성과 의존성

아래의 말들을 두 개의 동아리로 나누어 보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1) 하늘, 자동차, 를, -는구나, 바다, 구름, -겠-, -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하늘, 자동차, 바다, 구름’과 ‘를, -는구나, -겠-, -습니다’로 나누는 데 동의할 것이다.

1) 띄어쓰기를 잘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을 만한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것이다. 국어사전 찾기를 불편해한다면 컴퓨터의 한글 문서 편집기에 들어 있는 문서 교정 기능을 이용하기를 권하고 싶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글쓰기를 하는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근의 문서 편집기는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잡아 놓아서 비교적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2) ㄱ. 하늘, 자동차, 바다, 구름
 ㄴ. 를, -는구나, -겠-, -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동아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앞의 것은 명사이고 뒤의 것은 명사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고 뜻이 있는 말과 없는 말의 차이가 아니냐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늘’과 ‘를’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쓸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 (3) ㄱ. 무얼 보니? 하늘
 ㄴ. 어딜 가니? 바다

(3)에서처럼 ‘하늘, 바다’ 등은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쓸 수 있다. 그렇지만 ‘를, -는구나, -겠-’ 등은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쓰는 일이 없다. [를], [는구나]라고 일부러 읽지 않는 한 이들을 단독으로 소리 내서 쓰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쓰는 말들을 ‘자립적’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말들은 ‘의존적(비자립적)’이라고 한다. 의존적인 말들은 단독으로는 쓰이지 못하고 언제나 앞이나 뒤에 나타나는 다른 요소에 의존한다는 특징이 있다.

- (4) ㄱ. 학교를
 ㄴ. 먹-습니다
 ㄷ. 가-겠-다

(4ㄱ)의 ‘학교를’에서 ‘를’은 ‘학교’에 의존하고 있고 (4ㄴ)의 ‘-습니다’는 ‘먹-’에, (4ㄷ)의 ‘-겠-’은 ‘가-’와 ‘-다’에 각각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단독으로는 쓰일 수 없어서 다른 말에 의존하고 있는 말들을 떼어 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의존적인 요소가 둘 이상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다.



- (5) ㄱ. 서울에서처럼만
 ㄴ. 좋-습니다그러

(5ㄱ)의 ‘에서’, ‘처럼’, ‘만’과 (5ㄴ)의 ‘-습니다’, ‘그러’는 모두 의존적인 요소이므로 언제나 붙여 쓴다. 그러므로 어떤 말이 자립적인지 의존적인지를 판정하는 일은 띄어쓰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존적이지만 띄어 쓰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의존 명사가 바로 그것이다. 의존 명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앞말에 의존적이다. 그렇지만 (6)에서 알 수 있듯이 명사와 의미와 기능이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명사처럼 앞말과 띄어 쓴다.

- (6) 먹을 것(밥)이 없다.

국어에서 의존적인 요소로는 ‘어미, 조사, 접사’ 등을 들 수 있다. 사전에는 의존 요소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서 띄어쓰기를 쉽게 결정할 수 있게 해 준다.

- (7) ㄱ. 개-
 ㄴ. -었-
 ㄷ. -는구나

위의 ‘개-’는 ‘개살구’와 같이 뒤에 오는 말에 의존한다는 뜻이고 ‘-었-’은 ‘먹었다’와 같이, ‘-는구나’는 ‘먹는구나’와 같이 다른 말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띄어쓰기를 쉽게 알 수 있다.

자립적인 요소는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말과 결합하여 새로운 말을 만들기도 한다.

- (8) ㄱ. 어디선가 귀를 찢을 듯한 큰 소리가 들렸다.
 ㄴ. 철수는 말로는 언제나 큰소리만 친다.



(8ㄱ)의 ‘큰 소리’와 (8ㄴ)의 ‘큰소리’는 의미가 다르다. ‘큰 소리’는 소리가 큰 것이지만 ‘큰소리’는 소리가 큰 것과는 관계없이 과장하여 말하는 것을 뜻한다.

(9) ㄱ. 철수가 시험에 안 났어.

ㄴ. 그래서 모두 철수가 안돼 보인다고 했구나.

(9ㄱ)의 ‘안 되다’는 ‘되지 않다’와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9ㄴ)의 ‘안되다’는 ‘안쓰럽다’의 의미다. ‘안’과 ‘되다’의 의미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안되다’는 띄어 쓰지만 새로운 의미가 생긴 ‘안되다’는 붙여 쓴다.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다.

새로운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이처럼 새로운 의미가 생겼는지 따져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루의 신체 기관’을 의미하는 ‘노루귀’는 띄어 쓰지만 ‘미나리아재빗과의 풀’을 의미하는 ‘노루귀’는 붙여 쓴다. ‘노루귀’에는 ‘노루’나 ‘귀’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의미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10) ㄱ. 노루√귀 - 노루의 귀

ㄴ. 노루귀 - 미나리아재빗과의 풀

두 번째 기준은 두 말 사이의 관계가 긴밀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단어인 ‘돌아가다’는 ‘돌아’와 ‘가다’의 관계가 긴밀하여 다른 요소가 중간에 끼어들 수 없지만 한 단어가 아닌 ‘받아 가다’는 다른 요소가 끼어들 수 있다.

(11) ㄱ.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돌아(서)갔다.

ㄴ. 모두들 선물을 받아 갔다/받아(서) 갔다.

이러한 사실은 ‘돌아가다’와 ‘받아 가다’의 띄어쓰기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부장이 화가 나서 서류를 찢어 버렸어.”라고 할 때 ‘찢어 버리다’의 띄어쓰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찢어 버리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인



경우이다. ‘밥을 먹어 버렸다’, ‘국이 식어 버렸다’의 ‘버리다’와 같은 경우인데 이럴 때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

(12) 서류를 찢어 V 버렸다/찢어버렸다.

그런데 겉모습은 같지만 ‘버리다’가 보조 용언이 아니라 본용언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서류를 찢어 버렸다’를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13) 서류를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

‘버리다’가 본용언으로 쓰인 경우라면 ‘서류를 찢어 V 버렸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만 가능하고 ‘서류를 찢어버렸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조 용언의 경우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붙이는 것을 허용한 것은 보조 용언 구성이 합성어와 구의 중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4) ㄱ.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죽어 간다.

ㄴ.*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죽어서 간다.

‘죽어 간다’는 ‘죽다’에는 의미 변화가 없고 ‘간다’에만 의미의 변화가 있다.

이는 구성 요소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합성어와는 다른 점이다. 그렇지만 (14ㄴ)처럼 중간에 ‘서’와 같은 다른 요소가 끼어 들지 못하는 점은 합성어와 동일하다. 이처럼 합성어와 구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어 지다’와 ‘-어 하다’가 붙는 경우는 이러한 원칙에서 예외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 다 보조 용언으로 다루기는 하지만 ‘-어 지다’는 타동사를 자동사로 바꾸고 ‘-어 하다’는 형용사를 타동사로 바꾼다는 점에서 언제나 붙여 쓰는 것만 가능하다.



(15) ㄱ. 뜻을 이룬다. → 뜻이 이루어진다.

ㄴ. 꽃이 예쁘다. → 꽃을 예뻐한다.

‘뜻이 이루어V진다’나 ‘꽃을 예뻐V한다’와 같이 띄어 쓰는 일이 있지만 이는 잘못이므로 ‘뜻이 이루어진다’와 ‘꽃을 예뻐한다’로 붙여 써야 한다.

3. 조사의 띄어쓰기

조사는 학교 문법에서 단어로 다룬다. 그렇지만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서 다른 말에 의존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자립적인 명사와 달리 조사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그것이 결합하는 체언의 문법적 기능을 표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띄어 쓰지 않는다.

조사의 띄어쓰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잘못은 여러 개의 조사가 겹칠 경우 띄어 쓰려고 하는 것이다. 조사는 둘 이상 겹치거나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16) ㄱ. 겹침:

집에서처럼 / 학교에서만이라도 / 여기서부터입니다 / 너마저도

ㄴ. 어미 뒤:

나가면서까지도 / 들어가기는커녕 / 갈게요 / “알았다.”라고

아래의 밑줄 친 말들은 조사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앞말과 띄어 쓰는 일이 많다.

(17) ㄱ. 너같이 바보 같은 놈은 처음 봤다.

ㄴ. 역시 친구밖에 없어.

ㄷ. 사과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던데?

ㄹ. “알았구나.”라고 말씀을 하셨어.

ㅁ.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래.



‘너같이’의 ‘같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단 ‘너와 같이’처럼 조사가 앞에 오는 경우는 조사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너 같은’의 ‘같은’ 또한 조사가 아니다. ‘밖에’는 조사인 경우와 명사인 경우로 나누어진다. 조사로 쓰일 때는 서술어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온다는 특징이 있다.

- (18) ㄱ. 가진 것이 천 원밖에 없어.
 ㄴ. 이런 일은 철수밖에 못할걸.
 ㄷ. 아직은 “맘마”라는 말밖에 몰라.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이 밖에도 다른 사례가 많이 있다.”의 ‘밖에’는 조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과는커녕’은 ‘사과는∨커녕’으로 띄어 쓰는 일이 많지만 ‘는커녕’이 하나의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알았구나.’라고”의 ‘라고’는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그러므로 앞말과 띄어 쓰지 않는다. ‘라고’와 비슷한 ‘하고’는 조사가 아닌 용언의 활용형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19) ㄱ. 할아버지께서는 “알았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ㄴ. 할아버지께서는 “알았구나.”∨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뿐만 아니라’는 ‘너뿐만아니라’로 모두 붙여 쓰거나 ‘너∨뿐만∨아니라’로 잘못 띄어 쓰는 일이 많다. ‘뿐만’과 ‘만’이 모두 조사이므로 ‘너뿐만∨아니라’가 옳다. ‘뿐만’은 명사 뒤에서는 조사이고 관형형 어미 뒤에서는 의존 명사로 쓰인다.²⁾

- (20) ㄱ. 온 사람은 철수뿐이다. (조사)
 ㄴ. 때렸을 뿐만 아니라 (의존 명사)

2) 요즈음 ‘뿐만 아니라’를 접속어로 쓰는 일이 있지만 이는 잘못이다. “과자를 먹었다. 뿐만 아니라 빵도 먹었다.”에서 ‘뿐만 아니라’는 ‘그뿐만 아니라’를 잘못 쓴 것이다.



4. 어미와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어미와 의존 명사는 겹으로 볼 때 형태가 같아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문법적인 설명을 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문법에 대한 지식을 특별히 갖추지 않은 보통 사람에게는 대단히 어렵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21) ㄱ. 학교에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ㄴ. 이 일을 하는 데 며칠이 걸렸다.

(21ㄱ)의 ‘-는데’는 하나의 어미이고 (21ㄴ)의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쓰기가 다르다는 설명은 웬만한 문법 지식을 갖추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는데’의 띄어쓰기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뒤에 ‘에’를 비롯한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지 따져 보는 것이다. ‘에’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띄어 쓰지 않는다.³⁾

- (22) ㄱ. 학교에 가는데에 …… (결합 불가능)
 ㄴ. 이 일을 하는 데에…… (결합 가능)

‘학교를 가는데에’는 ‘에’가 결합할 수 없으므로 붙여 쓰고 ‘이 일은 하는 데에’는 ‘에’가 결합할 수 있으므로 띄어 쓴다고 할 수 있다. 다음도 ‘에’를 상징할 수 있어서 ‘데’를 띄어 쓰는 경우다.

- (23) 얼굴이 예쁜 데(에)다가 마음씨도 곱다.

‘-나바’도 두 가지 경우를 혼동하는 일이 많다. 그렇지만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붙여 쓴다는 기준을 적용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3)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은 명사류의 특징 중 하나다.



(24) ㄱ. 금강산에 가 본바 과연 절경이더군.

ㄴ. 그 일은 고려해 본 바 없다.

(24ㄱ)의 ‘본바’는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없지만 (24ㄴ)은 ‘그 일은 고려해 본 바가 없다’와 같이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24ㄴ)의 ‘본 바’는 띄어 쓴다고 할 수 있다.

(25) 제시간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다.

(25)를 ‘도착했는V지’로 띄어 쓰는 것은 잘못이고 ‘도착했는지’로 붙여 써야 옳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ㄴ지’가 하나의 어미라는 문법적 사실을 외우기보다는 (25)와 (26)이 의미가 같고 띄어쓰기 또한 같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26) 제시간에 도착했는가 모르겠다.

국어의 화자 중에 ‘도착했는가’를 ‘도착했는 가’로 띄어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착했는가’와 ‘도착했는지’가 서로 같으므로 ‘도착했는지’로 붙인다고 이해하는 것이 ‘-ㄴ지’가 어미이므로 앞말과 붙인다는 문법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것보다 이해하기가 쉽다.

다음의 ‘도착할지 모르겠다’의 띄어쓰기 또한 ‘도착할까 모르겠다’와의 비교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7) ㄱ. 제시간에 도착할지 모르겠다.

ㄴ. 제시간에 도착할까 모르겠다.

또한 이렇게 이해하면 아래와 같이 ‘ㄴ’과 ‘지’를 띄어 쓰는 경우도 비교적 쉽게 구분할 수 있다.



(28) 벌써 집 떠난 지 삼 년이 지났다.

(28)의 ‘떠난 지’는 문법적으로 관형형 어미 ‘ㄴ’과 의존 명사 ‘지’로 이루어진 말이다. 이러한 구성은 주로 ‘시간의 경과’를 뜻하며 띄어 쓴다는 점에서 (25)의 ‘-ㄴ지’ 구성과는 다르다.

이 둘의 띄어쓰기는 틀리는 일이 많다. 그렇지만 (25)의 ‘도착했는지’는 ‘도착했는가’로 바꿀 수 있는 반면 (28)의 ‘떠난 지’는 “*떠난가”로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둘을 혼동하지 않고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 밖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말로는 ‘간’과 ‘만’이 있다. ‘간’은 접미사와 의존 명사로 쓰이고 ‘만’은 조사와 의존 명사로 쓰인다.

‘간’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그렇지만 ‘거리’를 뜻할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지’나 ‘만’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의존 명사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29) ㄱ. 한 달간, 십 년간 (시간)

ㄴ. 서울 부산 간, 부모 자식 간 (거리)

‘만’이 조사로 쓰일 경우에는 주로 ‘한정’이나 ‘비교’의 뜻을 나타낸다.

(30) ㄱ. 철수만 오너라. (한정)

ㄴ. 키가 형만 하다. (비교)

‘만’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이다. 이때는 주로 ‘만에’, ‘만이다’, ‘만이야’의 꼴로 쓰이는 특징이 있다.

(31) ㄱ. 십 년 만에 만난 친구

ㄴ. 이게 얼마 만이야.

다만 “정말 오랜만이군.”이라고 할 때는 ‘오랜 V 만’으로 띄어 쓰지 않는다. ‘오래간만’의 준말이기 때문이다.



한편 ‘만’과 ‘하다’가 연결된 구성은 두 가지로 쓰인다.

(32) ㄱ. 강아지가 송아지만 ∨ 하다.

ㄴ. 음악이 들을 ∨ 만하다/들을만하다.

‘송아지만 ∨ 하다’의 ‘만’과 ‘하다’를 접미사 ‘만하다’로 다루는 일도 있었지만 이때는 조사 ‘만’과 ‘하다’가 연결된 구성이다.⁴⁾ ‘들을 ∨ 만하다/들을만하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형 다음에 오는 ‘만하다’는 보조 용언이다. 그러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일 수도 있다.

의존 명사가 들어 있는 경우 띄어 쓴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한다. ‘ㄹ걸’의 띄어쓰기는 ‘ㄹ 것’으로 풀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33) ㄱ. 나중에 후회할걸.

ㄴ. 후회할 걸 왜 그랬니?

(33ㄱ)의 ‘후회할걸’은 ‘-ㄹ걸’이 어미로 쓰이는 경우로 ‘할 것’으로 풀 수가 없다. 그렇지만 (33ㄴ)은 의존 명사 ‘것’이 들어 있는 ‘할 것’으로 풀 수 있으므로 ‘할 걸’로 띄어 쓴다.

(34) ㄱ. 사랑을 할 거야(←할 것이야)

ㄴ. 내일 뭐 할 거니(←할 것이니)

이러한 점은 ‘터’가 들어 있는 구성에서도 마찬가지다. ‘할 터인데’, ‘갈 터이야’로 풀 수 있으므로 ‘할 텐데’와 ‘갈 테야’로 띄어 쓴다.

(35) ㄱ. 비가 와야 할 텐데(←할 터인데)

ㄴ. 나는 집에 갈 테야(←갈 터이야)

4) ‘송아지만 하다’의 ‘만 하다’가 접미사가 아니라는 것은 ‘송아지만은 하다’처럼 보조사가 끼어들어 가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만하다’가 접미사라면 보조사가 중간에 끼어드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



5. 관형사의 띄어쓰기

관형사는 뒤에 오는 말과 띄어 써야 한다. 아래의 예는 띄어쓰기를 잘못하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36) ㄱ. 각(各) 가정, 각 개인, 각 학교, 각 부처, 각 지방
 ㄴ. 고(故) 홍길동/고인(故人), 귀(貴) 회사/귀사(貴社)
 ㄷ. 동(同) 회사에서 3년간 근무했음.
 ㄹ. 만(滿) 나이, 만 15세
 ㄴ. 매(每) 경기, 매 회계 연도, 별(別) 사이가 아니다.
 ㄷ. 연(延) 10만 명, 전(全) 국민
 ㄹ. 갓은 양념, 탄 일, 맨 꼭대기, 못 백성, 새 신, 온 식구
 ㄹ. 온 사람이 몇 명이나?

(36ㄴ)에서 ‘고 홍길동’과 ‘고인’의 띄어쓰기가 다른 것은 ‘고인’의 경우 ‘인(人)’이 비자립적인 일 음절 한자어이므로 띄어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귀 회사, 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6. 수 표현의 띄어쓰기

‘스물여섯’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스물여섯’으로 붙여 쓴다. 그런데 국어사전에는 ‘스물여섯’이 올라 있지 않다. 이는 ‘스물여섯’이 합성어가 아니며 ‘스물V여섯’으로 띄어 쓴다는 말이다. 구성요소인 ‘스물’과 ‘여섯’에서 ‘스물여섯’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물여섯’은 분명히 합성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스물여섯’으로 붙여 쓸까? ‘스물여섯’으로 붙여 쓰는 근거는 《한글 맞춤법》 제44항에서 찾을 수 있다.



(37) 수를 적을 때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이 규정은 ‘십이억∨삼천사백오십육만∨칠천팔백구십팔’과 같은 띄어쓰기에 적용되지만 ‘스물여섯’에도 적용된다. ‘만’ 단위로 띄어 쓴다는 것은 ‘만’보다 작은 수일 경우에는 언제나 붙여 쓴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스물여섯’이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살’과 결합할 때는 ‘스물여섯∨살’로 띄어 쓴다. 그런데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조금 다르다.

(38) ㄱ. 스물여섯∨살

ㄴ. 26∨살(원칙)/26살(허용)

즉 한글로 적는 경우에는 ‘스물여섯∨살’만 가능하지만 아라비아 숫자로 적는 경우에는 ‘26살’로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아라비아 숫자와 다음의 단위 명사를 붙여 쓰는 현실의 직관을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6∨살’보다는 ‘26살’로 쓰는 일이 많다.

아래와 같이 ‘제-’가 붙어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의 띄어쓰기 또한 혼동하는 일이 많다.

(39) ㄱ. 제2∨차 회의(원칙)

ㄴ. 제2차 회의 (허용)

ㄷ. 제∨2차 회의(잘못)

‘제-’는 접두사이므로 뒤에 오는 말에 붙여 써야 하고 ‘차’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39ㄱ)이 원칙이고 (39ㄴ)은 허용된다. (39ㄷ)처럼 쓰는 일이 많지만 이는 잘못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라비아 숫자가 올 경우 다음의 단위 명사는 무조건 붙여 쓰는 것으로 단일하게 기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7. 전문어와 고유 명사의 띄어쓰기

전문어의 띄어쓰기 원칙은 “단어별로 띄어 쓰되 붙일 수 있다(한글 맞춤법 제50 항)”이다.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전문어는 단어별로 띄어서 제시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이 생긴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 (40) ㄱ.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40ㄱ)과 (40ㄴ)을 비교해 보면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한 경우가 뜻을 짐작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붙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 영역에서는 붙여 쓰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문어에 속하는 말은 모두 단어별로 띄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한 단어로 굳어진 아래와 같은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 (41) 염화-나트륨, 강장-동물, 사과-나무, 두시-언해

화합물이나 동식물의 분류상의 명칭, 책명처럼 이미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는 전문어라 하더라도 띄어 쓸 수 없다.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한글 맞춤법 제49 항)”라고 되어 있다. 단위별로 띄어 쓰도록 한 것은 자연스러운 띄어쓰기 직관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 (42) ㄱ. 서울∨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단어별 띄어쓰기)
 ㄴ. 서울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단위별 띄어쓰기)

(42ㄱ)보다 (42ㄴ)의 띄어쓰기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러한 직관을 보여 주기 위해 ‘단위별로 띄어 쓴다’는 단서를 단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⁵⁾

5) 이때의 ‘단위’는 직관에 맞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띄어 쓸 수 있지만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띄어 쓸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서는 위의 (42)와 같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래는 고유 명사지만 이러한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43) 이순신/이충무공, 황보민/황보 ∨ 민

사람의 성과 이름은 언제나 붙여 쓴다. 호가 올 경우도 마찬가지다. 띄어 쓸 수 있는 경우는 ‘황보민’과 같이 성과 이름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이다. 외래어 인명은 원어의 띄어쓰기를 따르되 관용에 따른 띄어쓰기도 허용한다.

(44) ㄱ. 돈 ∨ 조반니/돈 ∨ 카를로스, 돈키호테/돈키호테형 인물
 ㄴ. 모택동/마오쩌둥, 도요토미 ∨ 히데요시

지명은 우리나라 지명과 외래어가 포함된 지명의 띄어쓰기가 다른 경우가 많다.

(45) ㄱ. 경기도,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ㄴ. 태백-산, 소백-산맥, 낙동-강, 태안-반도, 나주-평야
 ㄷ. 아칸소 ∨ 주, 카리브 ∨ 해/동지나해(東支那海)
 ㄹ. 이탈리아 ∨ 어/이탈리아어, 이태리어(伊太利語)

‘카리브 ∨ 해’로 띄어 쓰도록 한 것은 외래어와 외래어가 아닌 요소를 구분해 주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 어’는 띄어 쓸 수 있지만 ‘이태리어’는 띄어 쓰지 않는 것도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8. 외래어의 띄어쓰기

외래어의 띄어쓰기는 원어의 띄어쓰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지만 국어에서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라면 띄어 쓰지 않는다.



- (46) 앵커맨, 백미러, 백네트, 콜론, 콜머니, 콜택시, 카페리, 슈크림, 커피숍, 콘칩, 코너킥, 쿠데타, 아이스크림, 골인, 골킥, 홀인 원, 홈인, 홈런, 핫케이크, 핫도그, 핫라인, 립크림, 팝송, 리어카, 티오프, 워밍업, 와이셔츠, 월드컵

아래의 예는 준말이나 음운론적 융합이 일어난 말로 이때에도 붙여 쓴다.

- (47) 애드벌룬(ad balloon), 에어컨(air conditioner), 리모컨(remote control), 오므라이스(omlet rice), 오토바이(auto bicycle), 오피스텔(office hotel)/아이큐(IQ)



구별해야 할 말

발음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말들, 의미상 연관성이 있는 말들은 언어생활에서 자주 혼동을 일으킨다. 다음은 의미나 용법을 잘 구별해야 할 말들을 묶어서 제시한 것이다. 한글 맞춤법 제57장에 나오는 예들과 일부 한자어 중 의미를 구별하여 사용해야 할 말들을 살펴보겠다.

1. **가름** (따로따로 나누는 일. (예) 셋으로 가름.)
갈음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 (예) 이것으로 치사를 갈음합니다.)
2. **목거리** (목이 붓고 아픈 병. (예) 목거리가 잘 낫지 않고 오래 가다.)
목걸이 (귀금속이나 보석 따위로 된, 목에 거는 장신구. (예) 금 목걸이)
3. **떼거리** (1. 떼[무리]의 속어. (예) 야간에 오토바이 폭주족이 떼거리로 몰려다니다.
 2. 떼[생떼]의 속어. (예) 장난감을 사 달라고 떼거리를 쓰는 아이)
떼거리 (떼를 지어 다니는 거지. 천재지변 따위로 줄지에 헐벗게 된 많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 전쟁으로 그 도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떼거리가 되었다.)
4. **거치다** (오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르다.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밟다. (예) 대전을 거쳐 서울에 왔다./ 대학교를 거쳐 대학원에 입학하다.)
견히다 (여러 사람에게서 돈이나 물건 따위가 거두어지다. (예) 수재의 연금이 잘 견히다.)
5. **견잡다**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 헤아려 짐작하다. (예) 견잡을 수 없는 상태.)



걸잡다 (걸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 (예) 걸잡아서 닳새 걸릴 공사.)

6. **늘이다** (물체의 길이를 본디보다 더 길게 하다. (예) 엿가락을 늘이다. 고무줄을 늘이다.)

늘리다 (수나 분량을 본디보다 많아지게 하다./ 힘이나 기운, 세력 따위를 이전보다 큰 상태가 되게 하다./ 살림을 이전보다 더 넉넉하게 하다./ 시간이나 기간을 이전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 (예) {바짓단/ 수출량/ 학생 수/ 세력/ 실력/ 재산/ 살림/ 시험 시간}을/를 늘리다.)

7. **다리다**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기 위하여 다리미나 인두로 문지르다. (예) 양복을 다리다.)

달이다 (액체 따위를 끓여서 진하게 만들다./ 약제 따위에 물을 부어 우려나도록 끓이다. (예) 간장을 달이다./ 보약을 달이다.)

8. **닫히다** ('닫다'의 피동사. (예) 창문이 바람에 저절로 닫히다.)

닫치다 (열린 문짝, 뚜껑, 서랍 따위를 꼭꼭 또는 세게 닫다. (예) 문을 꽁하고 힘껏 닫치다.)

☞ '닫히다'의 '-히-'는 '피동 접미사', '닫치다'의 '-치-'는 '강세 접미사'이다.

9. **부딪히다** ('부딪다'의 피동사. (예) 자전거가 승용차에 부딪혔다.)

부딪치다 ('부딪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예) 승용차와 승합차가 마주 부딪쳤다.)

☞ '부딪히다'의 '-히-'는 '피동 접미사'이고, '부딪치다'의 '-치-'는 '강세 접미사'이다.

10. **빼치다** (성이 나서 토라지다. (예) 생일 선물을 하지 않았더니 아내가 빼쳤다.)

빼지다 (칼 따위로 물건을 얇고 비스듬하게 자르다. (예) 국밥에 넣을 무를 빼졌다.)



11. **저리다**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오래 눌러서 피가 잘 통하지 못하여 감각이 둔하고 아리다. /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쭈시듯이 아프다. / 가슴이나 마음 따위가 못 견딜 정도로 아프다. (예) 오래 쪼그리고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몹시 저리다.)

절이다 ('절다'의 사동사. 푸성귀나 생선 따위에 소금기나 식초, 설탕 따위가 배어들게 하다. (예) 배추를 절이다.)

12. **조리다** (어육이나 채소 따위를 양념하여 간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국물을 바짝 끓이다. (예) 멸치를 간장에 조린다. 소고기 장조림)

줄이다 (속을 태우다시피 초조해하다. (예) 마음을 줄이다.)

13. **반드시** (틀림없이 꼭. (예)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반듯이 (작은 물체 또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 (예) 환자의 몸을 반듯이 눕어라./ 비녀를 반듯이 찌르고 새 옷으로 몸단장을 하다.)

14. **이따가** (조금 지난 뒤에. (예) 이따가 오너라.)

있다가 ((있-+-다가). (예) 대기실에 있다가 친구가 오면 함께 출발하자.)

☞ '이따가'는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고, 위 예의 '있다가'는 동사 '있-'에 어미 '-다가'가 결합된 형태이다.

15. **-노라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예) 하노라고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느라고 (앞 절의 사태가 뒤 절의 사태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예) 친구 부친상에 문상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16. **-(으)러** (동작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예) 일하러 가다.)

-(으)려 (어떤 행동을 할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예) 대학에 진학하러 한다.)



☞ ‘-(으)러’는 ‘가다’나 ‘오다’와 같은 말 앞에 쓰여서, 그 동작의 ‘직접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이고, ‘-(으)러’는 ‘하다’ 앞에 쓰여서 그 동작의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다.

17. **-(으)로서**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 그녀는 애인으로서는 매력적이지만, 신붓감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으)로써 (재료나 원료, 수단이나 도구가 됨을 나타내는 격 조사./ 시간을 셈할 때 셈에 넣는 한계를 나타내는 격 조사. (예) 닭으로써 꿩을 대신했다./ 상냥한 말 한 마디로써 천 냥 빚을 갚는다./ 엄격한 매로써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었다./ 집을 떠난 지 올해로써 30년이 된다.)

18. **-데**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말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예) 김 교수는 말을 좀 어눌하게 하데./ 지리산은 과연 경치가 좋데.)

-대 (어떤 사실을 주어진 것으로 치고 그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섞여 있다./ ‘-다고 해’가 줄어든 말. (예) 왜 이렇게 일이 많대?/신랑이 어쩜 이렇게 잘생겼대?/ 숙희가 이번 달에 시집을 간대.)

19. **-던** (어떤 일이 과거에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 (예) 이것은 원시인이 사용하던 돌도끼다./ 딸 때는 푸르던 토마토도 하루 이틀 후면 붉게 된다.)

-든 (둘 이상의 사물이나 일을 나열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든지’의 준말. (예) 싫든 좋든 이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 어디에 살든 고향을 잊지는 마라.)

20. **결재** (決裁.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 직원이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예) 사흘 전 기안한 전자 문서의 결재를 오늘에야 받았다.)



결제 (決濟.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음. (예) 병원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21. **관여** (關與.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함. (예) 시민 단체들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일이 많아졌다.)

간여 (干與. 관계하여 참견함. (예) 그 집안의 혼사는 내가 간여할 바가 아니다.)

22. **보상** (報償. (1) 남에게 진 빚 또는 받은 물건을 갚음. (2)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갚음. (3) 『심리』 행위를 촉진하거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동물에게 주는 물질이나 칭찬. (예) 칠순의 어머니에게는 아들의 성공이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상이었다.)

보상 (補償. (1)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 (2) 『법률』 주로 국가나 공공 단체, 기타 공권력의 주체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에 그 손실을 갚아주기 위해 금전, 물건 등을 제공하는 것. (예) 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을 개인별로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토지 보상금.)

배상 (賠償. 『법률』 주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금전, 물건 등을 지불하는 것. (예)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빌었다.)

23. **임대** (賃貸.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 줌. (예) 이 건물 주인은 상가를 임대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임차 (賃借.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씬. (예) 아파트 안의 상가를 임차해서 세탁소를 열었다.)



24. **자문** (諮問.¹⁾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 (예) 통일 정책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일자문위원회를 둔다.)

고문 (顧問. 어떤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는 직책. 또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 주로 국가, 공공 단체 등에 대하여 정책적 사항, 전문적 사항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조언·권고를 함. (예) 그는 우리 회사의 고문 변호사다./ 통일 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일고문회의를 둔다.)

1) 자문(諮問): 諮(물을 자), 問(물을 문). ‘자문’은 과거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묻는 경우’에 썼지만 현대에는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묻는 경우’에 씀. 비전문가가 일정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 어떤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나 조언을 구하는 경우에 ‘자문한다’고 하고, 이때 그 자문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 주는 기관을 ‘자문 기관’, 그런 일을 하는 개인을 ‘자문위원’(대개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이라 함. 자문위원은 자문하는 위원이 아니라 자문에 응하여 조언하는 위원이다.



[참고] 한글 맞춤법 제57항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가름	둘로 가름.
갈음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
거름	풀을 썬 거름.
걸음	빠른 걸음.
거치다	영월을 거쳐 왔다.
견히다	외상값이 잘 견힌다.
견잡다	견잡을 수 없는 상태.
겉잡다	겉잡아서 이틀 걸릴 일.
그러므로(그러니까)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
그럼으로(써)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은혜에 보답한다.
노름	노름판이 벌어졌다.
놀음(놀이)	즐거운 놀음.
느리다	진도가 너무 느리다.
늘이다	고무줄을 늘인다.
늘리다	수출량을 더 늘린다.
다리다	옷을 다린다.
달이다	약을 달인다.



다치다	부주의로 손을 다쳤다.
닫히다	문이 저절로 닫혔다.
닫치다	문을 힘껏 닫쳤다.
마치다	벌써 일을 마쳤다.
맞히다	여러 문제를 더 맞혔다.
목거리	목거리가 덧났다.
목걸이	금 목걸이, 은 목걸이.
바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받치다	우산을 받치고 간다.
	책받침을 받친다.
받히다	쇠뿔에 받혔다.
받치다	술을 체에 받친다.
반드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반듯이	고개를 반듯이 들어라.
부딪치다	차와 차가 마주 부딪쳤다.
부딪히다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부치다	힘이 부치는 일이다.
	편지를 부친다.
	논밭을 부친다.
	빈대떡을 부친다.
	식목일에 부치는 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인쇄에 부치는 원고.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친다.



붙이다

우표를 붙인다.
책상을 벽에 붙였다.
홍정을 붙인다.
불을 붙인다.
감시원을 붙인다.
조건을 붙인다.
취미를 붙인다.
별명을 붙인다.

시키다

일을 시킨다.

식히다

끓인 물을 식힌다.

아름

세 아름 되는 둘레.

알음

전부터 알음이 있는 사이.

앓

앓이 힘이다.

안치다

밥을 안친다.

앉히다

윗자리에 앉힌다.

어름

두 물건의 어름에서 일어난 현상.

얼음

얼음이 얼었다.

이따가

이따가 오너라.

있다가

돈은 있다가도 없다.

저리다

다친 다리가 저리다./^{*}저린다 (형용사)

절이다

김장 배추를 절인다.(동사)

조리다

생선을 조리다. 통조림, 병조림.

줄이다

마음을 줄인다.



주리다
줄이다

여러 날을 주렸다.
비용을 줄인다.

하노라고
하느라고
- 느니보다(어미)
- 는 이보다(의존 명사)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나를 찾아오느니보다 집에 있거라.
오는 이가 가는 이보다 많다.

- (으)리만큼(어미)
- (으)ㄴ 이만큼(의존 명사)

나를 미워하리만큼 그에게 잘못된 일이 없다.
찬성할 이도 반대할 이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 (으)러(목적)
- (으)려(의도)

공부하러 간다.
서울 가려 한다.

- (으)로서(자격)
- (으)로써(수단)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답으로써 핑을 대신했다.

- (으)므로(어미)
(- ㅁ, - 음)으로(써)(조사)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
그는 믿음으로(써) 산 보람을 느꼈다.



문장 부호

1. 들어가는 말

국어의 문장 부호는 맞춤법이나 표준어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져 온 감이 없지 않다. 북한의 문장 부호 규범이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발음법과 대등하게 표기 4법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반해 국어의 문장 부호는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올라 있으며 다른 규정과는 달리 해설도 없다. 이 글에서는 현행 문장 부호의 사용 실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조사는 문장 부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한편 문장 부호의 올바른 사용을 일깨운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현행 문장 부호 규정은 23개(가로쓰기 19, 세로쓰기 4)의 문장 부호를 크게 7가지로 대분류하여 문장 부호의 용법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 글은 주로 교과서와 신문,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현행 문장 부호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문장 부호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규정대로 잘 지켜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규정에 용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부호의 사용과 많이 사용되는 용법이지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용법, 그리고 문장 부호에 없는 부호 순으로 그 사용 실태를 기술하고자 한다.

2. 현행 문장 부호의 사용 실태

2.1. 마침표의 사용 실태

마침표의 사용 실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명칭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흔히 마침표라고 하면 ‘.’를 떠올림에도 불구하고 현행 문장 부호 규정은 부호 ‘.’를 온점으로 명칭하고 마침표라는 명칭으로 온점, 물음표, 느낌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는 문장 부호 명칭의 일반적인 사용과는 거리가 있어 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온점



이라는 명칭은 1940년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새판’에서 인쇄상의 이름으로 쓰였던 것이(당시 문장 부호의 이름으로는 ‘마침표’가 쓰였음) 1988년 ‘한글 맞춤법’부터 문장 부호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대로 ‘.’의 명칭을 온점으로 쓰는 예는 초등학교 교실이 아니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흔히 ‘끝을 내다’라는 의미로 ‘마침표를 찍다’라는 관용구가 사용되는데 이때 ‘마침표’를 물음표나 느낌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이다.

2.1.1. 온점의 사용 실태

온점의 첫 번째 규정은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이다. 그 예로 종결 어미로 끝나는 문장들만 제시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종결 어미로 끝나지 않는 경우에도 서술이나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면 온점을 쓴다. 그 예로 한글 맞춤법 규정을 보자.

제53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제57항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전략)

걸잡다 걸잡을 수 없는 상태.

걸잡다 걸잡아서 이틀 걸릴 일.

제53항의 소괄호 안의 문장은 명사형으로 끝났지만 서술을 나타내므로 온점을 써야 옳다. 제57항의 ‘걸잡다, 걸잡다’의 풀이는 문장은 아니지만 서술이 끝난 것을 표시하기 위해 온점을 쓴 것이다. 이처럼 온점은 서술이나 명령, 청유 등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문장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되는 예가 많다. 사전의 뜻풀이 뒤에 찍는 온점이나 교과서의 단어 풀이 뒤에 쓰인 온점, 책의 저자의 약력 뒤에 쓰인 온점은 온점이 문장 뒤에만 한정되어 쓰이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사전(辭典) 어떤 범위 안에서 쓰이는 낱말을 모아서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싣고 그 각각의 발음, 의미, 어원, 용법 따위를 해설한 책. (표준국어대사전)



서식지(棲息地): 동물이 깃들여 사는 곳. (고등학교 국어 상, 16)

1916년 4월 27일 개성 출생. 본명은 화순.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 서서, 속지)

그러나 신문의 제목은 서술을 나타내도 마침표를 찍지 않는데 이것은 온점의 첫 번째 규정에서 ‘다만, 표제어나 표어에는 쓰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온점 (2)의 규정은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적에 온점을 쓴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대부분 연(年)과 월(月) 뒤에는 온점을 찍는 데 반해 일(日) 뒤에는 마침표를 잘 찍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아일보, 한겨레 홈페이지: 2002. 11. 13(수)

조선일보 홈페이지: 11/13(수)

중앙일보 홈페이지: 2002. 11. 13. 수.

야후 코리아 홈페이지: 11. 13 수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서구에서처럼 빗금을 사용하여 월과 일을 구분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에는 없는 용법이다. 중앙일보 홈페이지의 연월일 표기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데 요일 뒤에도 연월일과 마찬가지로 온점을 찍은 것이 눈에 띈다.

대한민국 법령문과 대한민국 정부 공문의 연월일은 예외 없이 일(日) 뒤에 온점이 없었으나, 공무원과 정부 기관에 대한 계도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온점 규정 (4) “준말을 나타내는 데 쓴다. 서, 1987. 3. 5. (서기)”는 요즘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법으로 실례를 찾기 어려웠는데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2.1.2. 물음표와 느낌표

문장 부호 물음표 규정의 예에는 의문형 어미로 끝난 문장이 주로 나오는데 물음표는 의심이나 물음을 나타내면 의문형 어미로 끝난 문장이 아니어



도 어디에나 쓰인다.

마찬가지로 느낌표 역시 감탄형 어미 다음이 아니라도 감탄이나 놀람, 명령 등 느낌을 나타내면 어디에나 쓰인다.

“제에미 키두!” (고등학교 국어 상, 108, 뽀뽀)

삼천만의 우리 민족이 옛날의 그리스 민족이나 로마 민족이 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고등학교 국어 상, 80~81, 나의 소원)

“돌멩이를 뺨기는 게 어떤 놈이냐!” (고등학교 국어 상, 270, 장마)

한편, 서술문이라도 물음이나 의심을 나타내면 온점 대신 물음표가 사용되기도 하며, 감탄을 강하게 나타내는 서술문의 경우에는 온점 대신 느낌표가 사용된다.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안면 싹 바꾼다?(포구에서 온 편지, 박덕규의 소설, 98)

나는 고독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국어 상, 94, 두꺼비 연적을 산 이야기)

반갑다! / 기타의 神 (중앙일보 1997. 8. 27. 41면)

흥미진진한 그 서막이 지금부터 열립니다! (오! 한강, 허영만의 만화, 권 1, 12)

시나리오에서는 물음표와 느낌표가 출연자들의 얼굴 표정을 대신하는 지문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홍수: ……?(방 쪽으로 가는) (고등학교 국어 하, 129, 어느 날 심장이 말했다)

홍수: !(본다.) (고등학교 국어 하, 131, 어느 날 심장이 말했다)

통신언어나 만화에서는 의문을 나타내는 물음표와 감탄을 나타내는 느낌표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겹쳐 나타나거나 물음표와 느낌표를 함께 쓰는 경우도 많은데 물음표와 느낌표가 풍부한 감정 표현의 도구로 사용된 예라 할 수 있다.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다음 홈페이지)

보패 「화룡포」다!! (봉신연의, 만화, 264)

「남자 셋 여자 셋」 각본을?! (반항하지 마!, 만화, 263)

물음표나 느낌표가 겹쳐 사용되는 것을 규범에 어긋난 것으로 지적하기도 하나 이러한 용법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겹침에 의하여 강조하거나 물음표와 느낌표의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문장 부호의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며 글의 종류에 따라 한정되어 나타나므로 그 사용을 강제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2.2. 쉼표

2.2.1. 반점

온점이라는 명칭과 마찬가지로 ‘.’을 가리키는 명칭으로는 규정의 반점보다는 ‘쉼표’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반점의 규정은 15개나 되는 것처럼 그 쓰임이 다양한데, 그중 규정 (4)는 ‘대등하거나 종속적인 절이 이어질 때에 쓴다’고 되어 있어 마치 모든 연결 어미 뒤에 쉼표를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해석되곤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은 교과서에 그대로 적용되어 연결 어미 뒤에는 예외 없이 쉼표가 사용되고 있다. (“교과서 문장 실태 연구 2·3”, 국립국어연구원(2000) 참조.)

10쪽의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초등학교 국어 쓰기 1-2, 11)

대한 제국이 전제 정치 국가이며, 황제권의 무한함을 강조하고,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외교권 등을 모두 황제의 대권으로 규정하여 전제 군주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고등학교 국사(하), 94)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때에 한해 쉼표가 사용된다.

마찬가지로 규정 (9)는 문장 첫머리의 접속이나 연결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쉼표를 쓴다고 되어 있으나 초등학교 교과서만이 이 규정을 예외 없이



잘 지키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접속어 뒤에 쉼표가 사용되는 경우보다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그때, 등불을 든 장님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국어 읽기 2-2, 67)

먼저, 동물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거북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등학교 국어 읽기 2-2, 81)

옛날, 어느 마을에 독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국어 읽기 2-2, 98)

규정 (14)는 수의 폭이나 개략의 수를 나타낼 때에 쉼표를 쓴다고 하였으나 예의 ‘5, 6세기’ 등은 ‘5~6세기’, ‘5-6세기’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규정 (14)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표기도 조사되었다.

6, 70년대 (고등학교 국어 상, 19)

규정 (15)의 자릿점을 나타내는 쉼표는 연도, 번지, 전화번호, 주민 등록 번호, 쪽수 등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현행 규정에는 접속어 ‘및’이나 ‘또는’ 등으로 어구가 연결될 때 쉼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이때는 쉼표를 쓰지 않는데, 다음 예의 ‘그리고’는 영어 번역의 영향으로 쉼표를 사용한 경우와 ‘및’과 같이 쉼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발견된다.

국가와 사람, 그리고 역사
사랑, 낭만 그리고 피아노
이명철의 고국, 조선족 그리고 통일
바람, 대지, 물, 그리고 나우시카

첫 번째 예의 경우처럼 접속 조사에 의해 선행어가 연결된 경우는 접속어 ‘그리고’ 앞에 쉼표를 찍는 예가 더 많지만, 선행어가 쉼표에 의해 나열된 경



우는 ‘그리고’ 앞에 쉼표를 찍는 경우와 찍지 않는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하다’나 ‘되다’같이 접사가 붙은 두 단어가 연결될 때는 보통 앞의 ‘하다’나 ‘되다’가 생략되고 중간에 쉼표나 가운뎃점이 사용되거나 쉼표가 아예 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신문 기사는 정보를 가공, 변형하는 ‘편집’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국어 하, 61)

‘정리하기’를 통해 단원 전체의 학습 내용을 확인·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등학교 국어 하, 4)

민족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고등학교 국어 상, 2)

제조 기술을 발전 보호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오비그린가이드 홈페이지)

국내 산업과 비교 분석해 보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 (스포츠 투데이 2000. 10. 5. 17면)

신문은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 없는 용법과 부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주제어임을 나타내고 싶을 때 쉼표를 사용하는 것이다.

盧·鄭, 단일화 방식 합의 (조선일보 11. 16. A1)

이라크 무기사찰 / 유엔, 4년 만에 재개 (중앙일보 11. 19. 1면)

이, 선관위에 계좌추적권 부여 (한겨레 2002. 11. 13. 5면)

2.2.2. 가운뎃점

가운뎃점은 한국과 일본에서만 사용되는 문장 부호로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많으나, 국어에서 사용되는 폭이 대단히 넓다. 쉼표의 규정 (1)은 같은 자격의 어구를 나열할 때 쉼표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이 경우에 쉼표 대신 가운뎃점을 쓰는 예도 많이 발견된다.

시인·평론가. (고등학교 국어 상, 33)

신라·고려·조선 시대의 충신·효자·열녀의 사적 (고등학교 국어 상, 316)



신문에는 아래와 같이 반점보다 가운데점이 많이 쓰이는데 반점보다는 가운데점이 편집상 깨끗하기 때문인 듯하다.

배해진(23·사진·도시개발공사) (한겨레)

김병현(23·다이아몬드박스) (동아일보)

가운데점은 마치 수학에서 인수분해를 하듯이 반복되는 말을 생략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국·한문, 국·공채, 농·어민, 영·정조 시대, 사회·문화적 상황, 비폭력·비협력주의, 10대 초·중반 여가수, 중·고교생, 초·중·고등 학교, 유·무형의, 작사·곡 : 하덕규

이러한 예는 비단 교과서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이나 인터넷, 법조문 등에서는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간편하다는 이유로 많이 사용되는 가운데점의 과용은 이미 사전에 올라 있는 ‘국한문, 국공채, 농어민’ 같은 단어에도 사용되어 오용이 되기도 한다.

2.2.3. 쌍점

쌍점의 띄어쓰기는 예문에 근거하여 규정 (1)~(3)의 경우는 앞 말에 붙이고 그 뒤는 한 칸을 띄며, 규정 (4)의 경우는 앞뒤를 띄지 않는다.¹⁾ 그러나 (1)~(3)의 경우 아래 예처럼 앞뒤를 적당히 띄어 쓰는 예가 많다.

날짜: 2002. 11. 23.

날짜 : 2002. 11. 23.

참고 문헌의 출판 연도와 쪽수 사이에도 쌍점이 쓰이는데 이때도 띄는 경우와 안 띄는 경우가 모두 발견된다.

1) 규정 (4)는 ‘시와 분, 장과 절 따위를 구별할 때나, 둘 이상을 대비할 때’ 사용하는 쌍점에 대한 규정이다.



주시경(1909:56)/주시경(1909: 56)

희곡이나 시나리오에서 대화자 다음이나 본제목과 부제 사이에도 쌍점이 사용되는데 현행 문장 부호 규정에는 없는 용법이다.

2.2.4. 빗금

빗금은 규정된 것보다 그 쓰임이 넓다.

2002/11/13

100미터/초

/김기철 기자 (조선일보)

작문의 절차 / 崔明玉 (대학국어작문 I, 차례, 서울대학교 대학국어작문
편찬위원회(1995))

빗금은 연월일을 간편하게 나타내고자 할 때 온점 대신 사용되기도 하며, 수량의 단위를 표시할 때, 기사 작성자나 글의 저자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시의 행과 연을 구분하는 기호로 빗금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행은 빗금을 하나 사용하는 데 반해 연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빗금을 두 개 사용한다.

‘모든 山脈들이/바다를 戀慕해 휘달릴 때도/참아 이곳을 犯하던 못하였
으리라.’ (대학국어작문 I, 435)

선운사 골짜기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안했고/ 막걸릿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상기도 남
였습니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었습니다. (우리말·글과 생각, 315, 이화
여대 교양국어편찬위원회(2000))

위의 예에서 보듯 빗금의 띄어쓰기도 제각각이다.



2.3. 따옴표

2.3.1. 큰따옴표와 겹낫표

큰따옴표는 대화, 인용, 특별 어구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특별 어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큰따옴표의 사용에 혼란이 있다.

문장 중간에 나타나는 따옴표 안의 종결문에 쓰는 온점의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음을 문제로 제기하기도 하는데, 큰따옴표 규정 (2)의 예를 보면 문장 중간에 나타나는 따옴표 안의 종결문에 온점이 찍혀 있고 교과서도 이를 따르고 있다. 신문은 독특한 인용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큰따옴표를 사용하면서 간접 인용 조사 ‘고’를 사용하고 이때의 인용문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반면 아래 두 번째 예처럼 남의 말을 그대로 인용할 때는 마침표를 찍고 있다.

정 교수는 “어떤 주제를 다루느냐에 따라 토론의 방향이 많이 달라진다”며 “토론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끊임없는 고민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2. 11. 18. C5)

“우리나라 토론 문화의 가장 큰 문제는 경청하는 자세가 부족한 겁니다. (중략) 무엇이 문제인지 패널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 2002. 11. 18. C5)

첫 번째 예의 경우 규정에 따르면 온점을 찍어야 하고, 느낌표나 물음표가 오면 생략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때도 온점을 찍어야 일관성이 있다.

현행 문장 부호에는 겹낫표를 세로쓰기에 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겹낫표와 낫표(세로쓰기에서 작은따옴표 대신 사용)는 책 제목이나 작품 제목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대학의 교양 국어 교재, 신문 등에서 어렵지 않게 겹낫표와 낫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주로 단행본의 책 제목에는 겹낫표가 작품 제목에는 낫표가 사용되고 있다.



이영희, 「제복과 유행의 사상」, 『우상과 이성』(글쓰기와 삶, 176, 연세대학교 국어교육위원회(1992))

사진 이론서 『사진의 문법』(눈빛·2000), 『의미의 경쟁』(눈빛·2000)을 번역했고 (중앙일보)

2.3.2. 작은따옴표와 낫표

작은따옴표는 간접인용과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에 사용될 뿐 아니라 드러냄표 대신 쓰이기도 한다는 규정으로 사용의 폭이 아주 넓다.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신문의 기사 제목에서 주요어나 임시어 등에 작은따옴표가 사용되며, 책 제목이나 작품 제목에 사용하는 문장 부호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신 작은따옴표를 책 제목이나 작품 제목에 사용한다.

김대익-샤샤 ‘폭풍의 콤비’, CF·영화 ‘앙코르 파워’, ‘아헿헿’ 신드롬, ‘슈퍼 땅콩’ 김미현

신문의 따옴표 사용은 일반적인 용법과 다른 점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작은따옴표가 연속하여 올 때 그 사이에 반점을 찍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 ‘우주로부터의 귀환’ ‘21세기 지의 도전’ ‘거악 vs 언론’ 등 40권이 넘는 책을 써온 일본의 대표적인 교양인이자 작가. (조선일보 2002. 11. 16. D1)

작은따옴표에 의해 구분이 되므로 반점을 찍지 않은 듯하나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점을 찍어야 한다.

2.4. 묶음표

2.4.1. 소괄호

규정에는 소괄호의 용법이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소괄호의 사용 폭



은 대단히 넓다. 그것은 규정 (1) 때문인데 ‘원어, 연대, 주석, 설명 등을 넣을 적에 쓴다’고 되어 있으므로 인용한 글의 출전을 나타낼 때, 생략을 나타낼 때 등 괄호가 필요하면 대부분 소괄호를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따옴표로 묶이는 말에 소괄호가 이어질 때 소괄호를 따옴표 안에 두는지 밖에 두는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다. 대체적으로 소괄호의 내용이 짧을 때는 소괄호가 따옴표 안에 있으나 소괄호의 내용이 길 때는 소괄호가 따옴표 밖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독립신문(1896년)’ (고등학교 국어 하, 42)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1447) ‘춘원’(6·25 때 납북)

소괄호 안의 문장이 다른 문장에 안겨 있을 때 온점의 사용도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는다. 교과서와 달리 일반 출판물의 경우 소괄호 안의 문장이 다른 문장에 안겨 있을 때 온점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소괄호 안의 문장에 온점을 찍어야 한다.

한 문장이 끝난 다음 괄호 안의 문장이 이어질 때의 온점 사용에 대하여 이익섭(1996/1998:243~244)에서는 영어의 예(*The Chicago Manual of Style*)를 따라 ‘괄호 안의 문장이 바로 앞 문장과 내용상 긴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는 두 문장의 마침표를 묶어 괄호 밖에 하나만 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마침표를 각각 따로 쓰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물론 이를 구분하는 것이 모호함이 있지만 그의 지적대로 온점 사용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교과서에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문장이 끝나면 모두 온점을 찍기 때문에 괄호 안의 문장에 온점을 쓰고 소괄호까지의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보아 마지막에도 온점을 찍는다.

물건을 바르게 정돈하여 봅시다(혼자 하기 힘들면 부모님과 함께 하여 봅시다.). (초등학교 생활의 길잡이 2-1, 23)

현수 : 놀라고 두려웠어요(소리 내어 운다.). (초등학교 생활의 길잡이 2-2, 14)

그 설움은 아무도 몰라요(진짜, 머느리도 몰라요.). (고등학교 국어 상, 176)



2.4.2. 중괄호와 대괄호

문장 부호 규정의 중괄호는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는다.

대괄호의 규정 (2)는 묶음표 안에 묶음표가 있을 때 대괄호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대괄호가 아닌 소괄호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다음 예처럼 현행 규정을 충실히 따르다 보면 소괄호 안에 대괄호를 써야 할 때도 있다.

큰따옴표는 …… 그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한글 맞춤법’ 문장 부호 따옴표 [引用符]).

교과서에서는 현행 규정을 충실히 따른다.

소나(素那) [또는 금천(金川)이라고 한다.] 는 백성군(白城郡) 사산(蛇山) 사람이다. (고등학교 국어 하, 18)

2.5. 이음표

2.5.1. 줄표

줄표의 현행 규정에는 줄표의 띄어쓰기에 대한 내용이 없다. 교과서에서는 앞뒤를 한 칸씩 띄고 있는데 현행 규정의 예를 따른 것이고 신문은 편집상의 이유로 앞뒤를 다 붙이고 있다.

규정에는 없지만 줄표는 부제 앞에 많이 사용된다. 이때의 띄어쓰기도 띄는 것과 붙는 것이 다 나타나는데 부제에 사용되는 줄표가 붙임표로 대신 쓰이는 경우도 많으며 이때의 띄어쓰기 역시 혼란스럽다.

‘다나카 연구—그 인맥과 금맥’ (조선일보 2002. 11. 16. D1)

한국 근대문학과 도시성 문제-도시문화를 중심으로

고유명사의 표기-한자 사용 (고등학교 국어 하, 18)

종합적인 표기 체계 - 향찰(鄉札) (고등학교 국어 하, 24)



줄표는 다음 예처럼 줄임표 대신 사용되기도 하고, 말을 길게 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부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번에는 — 산수가 내 차례였어.” (고등학교 국어 상, 57,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저—번 주에도 제가 대신 했었잖아요? (고등학교 국어 하, 125)

그래서— (고등학교 국어 하, 126)

그리고 그 입은 바보처럼 ‘헤—’ 하는 표정으로 벌인 데다가 입 속에는 파리도 아니요 벌레도 아닌 무언지 알지 못할 구멍 뚫린 물건을 물렸다. (고등학교 국어 상, 92)

2.5.2. 붙임표

현행 붙임표 규정의 일반적 용법은 붙임표 규정 (2)뿐으로 외래어와 고유어 또는 한자어가 결합된 경우에 붙임표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만주-통구스 어군, IMT-2000’과 같은 표기는 이 규정의 적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붙임표는 규정에는 없는 여러 가지 용법으로 사용된다. 교과서에서 출전을 보일 때 사용하기도 하고, 신문 표제에서 대립이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한다.

- ‘삼국사기’ 권 제47 (고등학교 국어 하, 18)

- 최인훈, ‘광장’ (고등학교 국어 하, 99)

정부-시민 단체 배출 가스 허용 기준 놓고 갈등 (한겨레 11. 13.)

노-정 단일화 협상 전망 (한겨레 11. 13.)

김대의-샤샤 ‘폭풍의 콤비’ (조선일보)

문장 부호 규정에는 대비를 나타낼 때 쌍점을 쓰도록 하여 점수를 나타낼 때에도 쌍점을 쓰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신문에서는 점수를 나타낼 뿐 아니라 대전을 나타낼 때에 모두 붙임표를 사용한다.



3-4로 무릎을 꿇었다. 포항-성남 전 (조선일보)
 10-0으로 7회 콜드게임승을 거뒀다. 부산-포항 (한겨레)
 2-0으로 눌렀다. 부산-포항 (동아일보)

또 전화번호, 주민 등록 번호, 계좌번호, 우편번호, 법률 번호, 아파트 동호수, 번지 등에도 붙임표가 사용된다. 이 중 전화번호는 붙임표뿐 아니라 빗금이 사용되기도 하고 지역 번호에는 반괄호나 소괄호가 사용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기되고 있다.

02-669-9722 02)669-9722 (02)669-9722 02/669/9722

또 붙임표는 ‘내지’의 뜻을 나타내는 물결표 대신 사용되기도 한다.

장욱진(張旭鎭, 1917-1990)

신문 중에는 인터뷰 기사의 질문 앞에 붙임표를 사용한 예가 조사되었다.

-의욕이 앞선 건 아닌지. (중앙일보)

2.5.3. 물결표

물결표 규정 (1)은 ‘내지’라는 뜻에 물결표를 쓴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내지’의 뜻 외에도 물결표의 사용 예는 다양하다.

“우와~ 김치 잘 익었네.” (고등학교 국어 하, 62)

대~한민국

온수~부천~부평역 (조선일보)

물결표는 위의 예처럼 감탄사나 음절 뒤에 사용되어 소리의 지속을 나타내기도 하고 역과 역 사이 즉 구간을 뜻하기도 한다.



2.6. 안드러냄표

2.6.1. 줄임표

줄임표는 할 말을 줄였을 때,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에 쓰는데 가운데 자리에 모두 점 여섯 개를 찍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신문이나 만화, 방송 자막 등을 조사하면 모두 세 점을 사용하며, 만화나 방송 자막의 경우는 가운데가 아니라 밑에 점을 쓴 예도 많다. 여섯 점보다는 세 점이 공간을 덜 차지하고, 컴퓨터로 입력할 때 가운데보다는 밑에 점을 찍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교과서나 출판물에서는 가운데에 점 여섯 개를 꼭 찍고 있다.

2.7. 문장 부호 규정에 없는 부호

문장 부호 규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판물에 많이 사용되는 부호에는 격쇠표(〈〉), 겹격쇠표(《》), 쌍반점(:) 등이 있다.

대학의 교양 국어 교재 중 몇 교재는 단행본에 겹격쇠표, 제목에는 격쇠표를 사용하고 있고, 신문에도 격쇠표가 사용되며 교과서에서조차 격쇠표가 사용된다.

텔레비전 프로 일일연속극 <인어 아가씨> (신문의 방송프로그램)

<활동 3>에서 (중학교 국어 2-1, 51)

<보기>에 (중학교 국어 2-1, 62)

쌍반점에 대해서는 국어에 필요한 문장 부호이므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쉼표나 가운데뎛점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국어에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한데, 영어에서는 쌍반점의 기능이 분명하기 때문에 영문 번역서에 쌍반점이 많이 나타난다. 쌍반점의 도입을 위해서는 영문 번역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쌍반점의 필요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 교과서에 나타난 쌍반점은 반점으로 대치가 가능하다.



셰익스피어(Shakespeare, William; 1564~1616) (고등학교 국어 상, 15)

이 밖에도 우리글에는 ‘=, ||, |, *, ※, §’ 등 이름도 분명하지 부호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들 부호는 문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문장 부호라기보다 편집상 사용된 기호의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3. 문장 부호 규정의 보완 방향

흔히 외국의 경우는 문장 부호의 사용이 통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참고 문헌만 보더라도 저자와 책명 사이에 반점이 사용된 책이 있는가 하면 온점이 사용된 책도 있고, 따옴표 안에 반점이 사용된 책과 따옴표 밖에 반점이 사용된 책이 모두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국어와 관련한 표기를 규범으로 규정해 놓고 이에 맞게 쓰도록 교육하기 때문에 규범으로서의 문장 부호 규정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실태를 무시하고 규정을 만들다 보면 출판물들의 문장 부호를 규범에 어긋난 것으로 지적하게 되어 국민들의 국어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규범이 오히려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각계의 문장 부호 사용 실태 조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져 온 전문적인 영역의 문장 부호까지 규범으로 다 규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어의 문장 부호는 국민들의 국어 생활과 가까운 교과서, 도서, 신문, 정부 공문, 법률문 등으로 제한하여 사용법을 정해야 하며 기타 전문적인 분야는 — 예를 들어 참고 문헌의 양식 — ‘한글 맞춤법’의 문장 부호와 별도로 권장안을 정하여 보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연구원(1998), 문장 부호 개정안.
국립국어연구원(2000),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I.
국립국어연구원(2001),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II.
국립국어연구원(2002), 문장 부호 세칙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론집.
국어정보학회(1996), 간행물 양식과 문장 부호 실태 조사 및 표준화 방안 연구.
민현식(1999),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양명희(2000가), 교과서 문장 실태 연구 2, 국립국어연구원.
양명희(2000나), 교과서 문장 실태 연구 3, 국립국어연구원.
이익섭(1996/1998), “국어 문장 부호의 기능”, 관악어문연구 21,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이익섭(1998)에 재수록.
이익섭(1998), 국어 사랑은 나라사랑, 문학사상사.



[참고]

문장 부호는 문장의 뜻을 돕거나 문장을 구별하여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쓰인다. 우리말의 문장 부호에는 크게 7개 부류(마침표, 쉼표, 따옴표, 묶음표, 이음표, 드러냄표, 안드러냄표)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온점, 물음표, 느낌표 등 23종이 있다.

마침표 (終止符)	온점(.), 고리점(。)
	물음표(?)
	느낌표(!)
쉼표 (休止符)	반점(.), 모점(、)
	가운뎃점(·)
	쌍점(:)
	빗금(/)
따옴표 (引用符)	큰따옴표(“ ”), 겹낫표(『 』)
	작은따옴표(‘ ’), 낫표(「 」)
묶음표 (括弧符)	소괄호(())
	중괄호({ })
	대괄호([])
이음표 (連結符)	줄표(—)
	붙임표(-)
	물결표(~)
드러냄표 (顯在符)	드러냄표(·, °)
안드러냄표 (潛在符)	숨김표(×××, ○○○)
	빠짐표(□□□)
	줄임표(……)

아래에 한글 맞춤법(문교부 고시 제88-1호(1988. 1. 19.))의 부록으로 제시된 ‘문장 부호’ 부분의 내용을 모두 소개하겠다.



□ 부록

문장 부호

문장 부호의 이름과 그 사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I. 마침표[終止符]

1. 온점(.), 고리점(。)

가로쓰기에는 온점, 세로쓰기에는 고리점을 쓴다.

(1)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이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집으로 돌아가자.

다만, 표제어나 표어에는 쓰지 않는다.

압록강은 흐른다(표제어)

꺼진 불도 다시 보자(표어)

(2)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적에 쓴다.

1919. 3. 1. (1919년 3월 1일)

(3) 표시 문자 다음에 쓴다.

1. 마침표 ㄱ. 물음표 가. 인명



(4) 준말을 나타내는 데 쓴다.

서. 1987. 3. 5. (서기)

2. 물음표(?)

의심이나 물음을 나타낸다.

(1) 직접 질문할 때에 쓴다.

이제 가면 언제 돌아오니?

이름이 뭐지?

(2) 반어나 수사 의문(修辭疑問)을 나타낼 때 쓴다.

제가 감히 거역할 리가 있습니까?

이게 은혜에 대한 보답이냐?

남북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3) 특정한 어구 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의심이나 빈정거림, 비웃음 등을 표시할 때, 또는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 소괄호 안에 쓴다.

그것 참 훌륭한(?) 태도야.

우리 집 고양이가 가출(?)을 했어요.

[붙임 1] 한 문장에서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겹쳤을 때에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쓰지만, 각각 독립된 물음인 경우에는 물음마다 쓴다.

너는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너는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붙임 2] 의문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이라도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에는 물음표 대신 온점(또는 고리점)을 쓸 수도 있다.



이 일을 도대체 어쩔단 말이나.

아무도 그 일에 찬성하지 않을 거야. 혹 미친 사람이면 모를까.

3. 느낌표(!)

감탄이나 놀람, 부르짖음, 명령 등 강한 느낌을 나타낸다.

(1) 느낌을 힘차게 나타내기 위해 감탄사나 감탄형 종결 어미 다음에 쓴다.

앗!

아, 달이 밝구나!

(2) 강한 명령문 또는 청유문에 쓴다.

지금 즉시 대답해!

부디 몸조심하도록!

(3) 감정을 넣어 다른 사람을 부르거나 대답할 적에 쓴다.

춘향아!

예, 도련님!

(4) 물음의 말로써 놀람이나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쓴다.

이게 누구야!

내가 왜 나빠!

[붙임] 감탄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이라도 감탄의 정도가 약할 때에는 느낌표 대신 온점(또는 고리점)을 쓸 수도 있다.

개구리가 나온 것을 보니, 봄이 오긴 왔구나.



Ⅱ. 쉼표[休止符]

1. 반점(,), 모점(、)

가로쓰기에는 반점, 세로쓰기에는 모점을 쓴다.

문장 안에서 짧은 휴지를 나타낸다.

(1)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에 쓴다.

근면, 검소,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충청도의 계룡산, 전라도의 내장산, 강원도의 설악산은 모두 국립 공원이다.

다만, 조사로 연결될 적에는 쓰지 않는다.

매화와 난초와 국화와 대나무를 사군자라고 한다.

(2) 짝을 지어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쓴다.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3)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을 때에 쓴다.

슬픈 사연을 간직한, 경주 불국사의 무영탑.

성질 급한, 철수의 누이동생이 화를 내었다.

(4) 대등하거나 종속적인 절이 이어질 때에 절 사이에 쓴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흰 눈이 내리니, 경치가 더욱 아름답다.



(5) 부르는 말이나 대답하는 말 뒤에 쓴다.

애야, 이리 오너라.

예, 지금 가겠습니다.

(6) 제시어 다음에 쓴다.

빵, 빵이 인생의 전부이더냐?

용기, 이것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젊은이의 자산이다.

(7) 도치된 문장에 쓴다.

이리 오세요, 어머니.

다시 보자, 한강수야.

(8) 가벼운 감탄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쓴다.

아, 깜빡 잊었구나.

(9) 문장 첫머리의 접속어나 연결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쓴다.

첫째, 몸이 튼튼해야 된다.

아무튼, 나는 집에 돌아가겠다.

다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어(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그런데 등)
뒤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너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10) 문장 중간에 끼어든 구절 앞뒤에 쓴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하지 않소.

철수는 미소를 띠고,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지만, 그들을 맞았다.

(11) 되풀이를 피하기 위하여 한 부분을 줄일 때에 쓴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12) 문맥상 끊어 읽어야 할 곳에 쓴다.

갑돌이가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갑돌이가,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철수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이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만약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해 본다면, 남을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깨달을 것이다.

(13) 숫자를 나열할 때에 쓴다.

1, 2, 3, 4

(14) 수의 폭이나 개략의 수를 나타낼 때에 쓴다.

5, 6 세기 6, 7 개

(15) 수의 자릿점을 나타낼 때에 쓴다.

14,314



2. 가운뎃점(·)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1) 쉽표로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누어질 때에 쓴다.

철수·영이, 영수·순이가 서로 짝이 되어 윗놀이를 하였다.
공주·논산, 천안·아산·천원 등 각 지역구에서 2 명씩 국회의원을 뽑는다.
시장에 가서 사과·배·복숭아, 고추·마늘·파, 조기·명태·고등어를 샀다.

(2)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낱을 나타내는 숫자에 쓴다.

3·1 운동 8·15 광복

(3)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쓴다.

경북 방언의 조사·연구
충북·충남 두 도를 합하여 충청도라고 한다.
동사·형용사를 합하여 용언이라고 한다.

3. 쌍점(:)

(1) 내포되는 종류를 들 적에 쓴다.

문장 부호: 마침표, 쉽표, 따옴표, 묶음표 등.
문방사우: 붓, 먹, 벼루, 종이.

(2) 소표제 뒤에 간단한 설명이 붙을 때에 쓴다.

일시: 1984 년 10 월 15 일 10 시.



마침표: 문장이 끝남을 나타낸다.

(3) 저자명 다음에 저서명을 적을 때에 쓴다.

정약용: 목민심서, 경세유표.

주시경: 국어 문법, 서울 박문서관, 1910.

(4) 시(時)와 분(分), 장(章)과 절(節) 따위를 구별할 때나, 둘 이상을 대비할 때에 쓴다.

오전 10:20 (오전 10 시 20 분)

요한 3:16 (요한복음 3 장 16 절)¹⁾

대비 65:60 (65 대 60)

4. 빗금(/)

(1) 대응, 대립되거나 대등한 것을 함께 보이는 단어와 구, 절 사이에 쓴다.

남궁만/남궁 만

백이십오 원/125 원

착한 사람/악한 사람

맞닥뜨리다/맞닥트리다

(2) 분수를 나타낼 때에 쓰기도 한다.

3/4 분기

3/20

1) 이 용례는 고시본대로 띄어 쓴 상태로 제시하였지만, 띄어쓰기 허용 규정에 따라 붙여 쓸 수 있다.



Ⅲ. 따옴표[引用符]

1. 큰따옴표(“ ”), 겹낫표(『 』)

가로쓰기에는 큰따옴표, 세로쓰기에는 겹낫표를 쓴다.
대화, 인용, 특별 어구 따위를 나타낸다.

(1) 글 가운데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에 쓴다.

“전기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책을 보았을까?”
“그야 등잔불을 켜고 보았겠지.”

(2) 남의 말을 인용할 경우에 쓴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한 학자가 있다.

2. 작은따옴표(‘ ’), 낫표(「 」)

가로쓰기에는 작은따옴표, 세로쓰기에는 낫표를 쓴다.

(1) 따온 말 가운데 다시 따온 말이 들어 있을 때에 쓴다.

“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2)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에 쓴다.

‘만약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모두들 깜짝 놀라겠지.’

[붙임]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드러냄표 대신에 쓰기도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Ⅳ. 묶음표[括弧符]

1. 소괄호(())

(1) 원어, 연대, 주석, 설명 등을 넣을 적에 쓴다.

커피(coffee)는 기호 식품이다.
 3·1 운동(1919) 당시 나는 중학생이었다.
 ‘무정(無情)’은 춘원(6·25 때 납북)의 작품이다.
 니체(독일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2) 특히 기호 또는 기호적인 구실을 하는 문자, 단어, 구에 쓴다.

(1) 주어 (ㄱ) 명사 (라) 소리에 관한 것

(3) 빈 자리임을 나타낼 적에 쓴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이다.

2. 중괄호({ })

여러 단위를 동등하게 묶어서 보일 때에 쓴다.

주격 조사 $\left\{ \begin{array}{c} \text{이} \\ \\ \text{가} \end{array} \right\}$ 국가의 3 요소 $\left\{ \begin{array}{c} \text{국토} \\ \text{국민} \\ \text{주권} \end{array} \right\}$



3. 대괄호([])

(1) 묶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에 쓴다.

나이[年歲] 낱말[單語] 手足[손발]

(2) 묶음표 안에 또 묶음표가 있을 때에 쓴다.

명령에서 불확실[단호(斷乎)하지 못함]은 복종에서 불확실[모호(模糊)함]을 낳는다.

V. 이음표[連結符]

1. 줄표 (一)

이미 말한 내용을 다른 말로 부연하거나 보충함을 나타낸다.

(1) 문장 중간에 앞의 내용에 대해 부연하는 말이 끼어들 때 쓴다.

그 신동은 네 살에 — 보통 아이 같으면 천자문도 모를 나이에 — 벌써 시를 지었다.

(2) 앞의 말을 정정 또는 변명하는 말이 이어질 때 쓴다.

어머님께 말했다가 — 아니, 말씀드렸다가 — 꾸중만 들었다.
이건 내 것이니까 — 아니,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이니까 —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



2. 붙임표(-)

- (1) 사전, 논문 등에서 합성어를 나타낼 적에, 또는 접사나 어미임을 나타낼 적에 쓴다.

겨울 - 나그네 불 - 구경 손 - 발
휘 - 날리다 슬기 - 롭다 - (으)르걸

- (2) 외래어와 고유어 또는 한자어가 결합되는 경우에 쓴다.

나일론 - 실 디 - 장조 빛 - 에너지 염화 - 칼륨

3. 물결표(~)

- (1) ‘내지’라는 뜻에 쓴다.

9월 15일 ~ 9월 25일

- (2)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 쓴다.

새마을: ~ 운동 ~ 노래
- 가(家): 음악~ 미술~

Ⅵ. 드러냄표[顯在符]

1. 드러냄표(·,°)²⁾

· 이나 °을 가로쓰기에는 글자 위에, 세로쓰기에는 글자 오른쪽에 쓴다.

2) 고시본에는 (·,°)의 순으로 되어 있으나, 사용법에 대한 규정문이나 용례에서 ‘°’을 앞세웠으므로 이와 같이 제시하였다.



문장 내용 중에서 주의가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 쓴다.

한글의 본이름은 훈민정음이다.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이다.

[붙임] 가로쓰기에서는 밑줄(____, ~~~~~)을 치기도 한다.

다음 보기에서 명사가 아닌 것은?

Ⅶ. 안드러냄표[潛在符]

1. 숨김표(××, ○○)

알면서도 고의로 드러내지 않음을 나타낸다.

(1) 금기어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의 경우,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배운 사람 입에서 어찌 ○○○란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란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다.

(2) 비밀을 유지할 사항일 경우,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육군 ○○ 부대 ○○○ 명이 작전에 참가하였다.
그 모임의 참석자는 김×× 씨, 정×× 씨 등 5명이었다.

2. 빠짐표(□)

글자의 자리를 비워 뒀음을 나타낸다.



- (1) 옛 비문이나 서적 등에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 그 글자의 수
호만큼 쓴다.

大師爲法主□□賴之大□薦 (옛 비문)

- (2)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 쓴다.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서 아음(牙音)은 □□□의 석 자다.

3. 줄임표(……)

- (1) 할 말을 줄였을 때에 쓴다.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철수가 나섰다.

- (2)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에 쓴다.

“빨리 말해!”

“…….”

표준어 규정

1. 머리말

모든 언어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한 언어 안에서 특정 지역의 말이 다른 지역의 말과 달라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방언(여기서는 ‘사투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이라고 한다. 방언과 방언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방언 상호 간에 의사소통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된다.

우리나라는 영토는 좁지만 많은 방언들이 발달해 있다. 제주도 방언 같은 경우 제주도 사람이 아니면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다. 비교적 널리 알려진 ‘감수가(가고 있습니까?)’도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고, ‘바릇(해산물), 돛꿩이(회오리바람), 황고지(무지개), 아지방(서방님)’ 등도 일반인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표준어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체로 국가가 표준어를 제정하는 까닭은 대립되는 말을 하나로 정하여 국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표준어가 국가 공통어이므로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 시대 한 나라 말이라도 지역에 따라 계층에 따라 발음, 어형, 의미 등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면 우리의 언어생활은 혼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말을 방언, 위상어, 특수어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말을 내버려 둔다면 한 가지 말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방언은 방언대로 그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훌륭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위상어나 특수어도 계층과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어떤 친밀감과 유대감을 가져올 수도 있고, 동료 간에 우정을 싹트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떠나서 국민의 언어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 공통된 언어가 있어야만 한다. 즉 한 나라 한 민족의 말은 일정한 원칙 밑에서 일관성 있게 발음하고 적게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준을 ‘표준어 규정’이라 하고,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하고 있다. 이 표준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어이며, 국민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공용어(公用語)이다.

2. 표준어의 기능

표준어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표준어는 모든 국민의 언어생활을 통일하여 누구와도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서로 다른 지역 방언이나 특수어를 몇대로 쓴다면 한 나라 안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의 언어에서 분화된 방언이라 할지라도 각 지역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제각기 그 지방의 방언으로 주고받는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따를 것이다. 이럴 때에 모두 표준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표준어의 기능을 통일(統一)의 기능이라고 한다.

둘째, 표준어는 준법정신을 길러 주는 구실을 하고 있다. 표준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자연 언어를 고정시킨 것이다. 때로는 어형(語形)뿐 아니라 그 의미까지도 규범화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을 사용하면서도 거기에 일정한 규범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어문 규정도 교육(교과서), 행정(공문서) 등의 분야에서 준수되어야 할 규정(관련 내용이 ‘국어기본법’ 속에 포함되어 있음.)이므로 이를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사소한 규정이라도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써 어느 사이에 준법정신을 길러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어의 기능을 준거(準據)의 기능이라고 한다.

셋째, 표준어는 공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토대를 제공한다. 표준어를 바르게 사용하려면 국민 다수가 이해하기 쉬운 적절한 어휘를



콜라 쓸 수 있도록, 교육을 받거나 개인적 훈련을 하여야 한다. 공적인 소통 상황에서 공공(남)을 배려하여 말하는 것은 교양을 갖추는 일이 된다. 이러한 표준어의 기능을 공적 소통을 위한 교양 형성의 기능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표준어는 단순히 의사 전달을 위한 도구적 존재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표준어는 사투리를 쓰는 데서 오는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어 준다는 도구적 용도 외에 전 국민을 한 덩어리로 묶어 주는 통일의 기능을 비롯하여 준거의 기능, 공적 소통을 위한 교양 형성의 기능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3. 표준어 규정의 제정

현행 표준어 규정은 지난 1988년 1월 19일 정부가 고시한 후,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표준어를 인정한 것은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1912)에서부터이다. 여기에 “경성어(京城語)를 표준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처음 나온다. 이어서 일제 강점기 때 조선어학회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을 제정한 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을 발표한 것이 실질적인 표준어가 되었다. 사정한 표준말 단어는 모두 9,547개(표준어 6,231개, 약어(준말) 134개, 비표준어 3,082개, 한자어 100개)이다.

그런데 이 ‘표준말 모음’에는 사정한 단어만 수록되어 있을 뿐 사정의 기준이 되는 규정은 제시하지 않고, 전체적인 표준말 사정의 조건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총론 제2항에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그래도 당시 상황이 일제 암흑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간 차원에서 ‘표준말 모음’이 마련되었지만, 그 목적과 영향력은 대단하였다. 이 ‘표준말 모음’은 그 자체로도 큰 중요성을 지니지만 조선어학회의 국어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조선어학회의 사전 편찬 작업이 193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 조선어학회의 ‘큰사전’은 광복 뒤에 6권으로 간행되어 오늘날까지 표준어의 준거(準據)가 되어



왔다.

이 ‘표준말 모음’이 광복 이후 50년 동안 국민 언어생활의 표준이 되어 계속 사용되는 동안 당시 문교부는 1970년 2월에 국어심의회 의 건의에 따라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말 모음’의 개정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어 조사 연구 위원회, 학술원 산하의 어문 연구 위원회, 국어 연구소를 차례로 만들어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말 모음’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무려 18년 만에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명칭도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이 ‘표준어 규정’은 ‘한글 맞춤법’과는 달리 개정이라기보다는 제정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내용을 새로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크게 나누어 제1부의 ‘표준어 사정 원칙(제3장 제26항)’과 제2부의 ‘표준 발음법(제7장 제30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항에는 대표적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였지만, 여기에 나타난 사례가 한정되어 있다보니 나타나지 않는 말 가운데서 어느 것이 표준어인지 판단할 수 없는 말도 많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1990년 9월 14일 문화부는 ‘표준어 규정’에 나타나지 않는 단어 약 1,400여 개를 골라 사정한 후, 이를 ‘표준어 모음’이라는 이름으로 공표하였다(문화부 공고 제36호).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언어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듯이 언제나 새로운 말이 생겨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은 사멸하게 된다. 따라서 표준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정되어야 하며, 국가의 중요한 어문 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4. 표준어 규정

표준어 규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제1부의 ‘표준어 사정 원칙’과 제2부의 ‘표준 발음법’으로 구분되어 있다.



4.1. 표준어 사정 원칙

4.1.1. 제1장 총칙

제1부의 ‘표준어 사정 원칙’은 제3장 제26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은 제1항과 제2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항은 표준어를 사정(査定)하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당시 조선어학회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총론 제2항에서 정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가 이렇게 바뀐 것이다. ‘표준말’을 ‘표준어’로 바꾼 것은 비표준어와 대비하여 ‘표준말 - 비표준말’이 말결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중류 사회’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교양 있는 사람들’로 바꾼 것이다(사회적 조건). 표준어는 공용어(公用語)이므로, 공적(公的) 활동을 하는 이들이 표준어를 익혀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표준어 교육은 반드시 학교 교육에서 그 기본이 닦여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교육자는 정확한 표준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표준어는 교양의 수준을 넘어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 요건이라 하겠다. ‘현재’를 ‘현대’로 한 것은 ‘현재’가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현재 즉 영원한 현재로서 역사 속에서 한 시대의 표준말을 규정짓는 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시대적 조건). ‘서울말’에 대해서는 어떤 이는 ‘서울 지역에서 쓰이는 말’이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 말은 넓은 의미의 ‘서울말’을 가리키므로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지역적 조건).

제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외래어는 표준어 사정의 중요한 대상이다. 날마다 쏟아져 들어오는 외래어는 그때그때 사정하여 국어의 일부분으로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외래어는 단시일에 결정할 수도 없고, 꼭 유동적인 성



격을 지니기 때문에 따로 지속적으로 사정할 것을 규정하였다. 외래어 표기법은 1986년 1월 7일 정부가 고시하였는데, 외래어 표기법이 공포된 이후에 국어연구소(국립국어원 전신)에서 인명·지명 편(1986)과 일반 용어 편(1988) 외래어 표기 용례집을 발간하였고, 국립국어연구원도 동구권 인명·지명 편(1993)과 북구권 인명·지명 편(1995) 외래어 표기 용례집을 발간하였다. 그 이후에도 정부에서는 1992년부터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 있는 외래어 표기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모아서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외래어 표기 용례집을 발간하였다(1998). 또한 1999년에 발간된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도 사정된 외래어를 거의 다 싣고 있다.

4.1.2.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표준어 규정은 발음의 변화와 표기의 개정도 함께 수반되므로 언어의 변화를 모두 표준어에 반영하는 일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그 차이가 워낙 커서 도저히 옛 형태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새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다.

4.1.2.1. 제1절 자음

제3항 다음 단어는 거센소리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 비표준어 표시)
나팔꽃(× 나발꽃), 칸 (× 간), 털어먹다(× 떨어먹다)

이미 일반화된 것을 명문화하였다. ‘나발꽃’이 ‘나팔꽃’으로 바뀐 것을 인정하였다. 다만, 고유어 악기인 ‘나발’과 ‘나팔’은 각각 독립적으로 쓰인다. ‘칸’은 한자어 ‘間’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칸’이라고 발음하므로 ‘칸막이, 빈칸, 방한 칸’처럼 공간(空間)의 구획이나 넓이를 나타내는데 모두 ‘칸’으로 정하였다. ‘재물을 다 없애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털어먹다’를 표준어로 인정하였는데, ‘밑천을 털다’, ‘도둑이 빈 집을 털다’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먼지떨이, 재떨이’에는 ‘떨다’의 의미가 남아 있으므로 바꾸지 않았다.

제4항 다음 단어는 거센소리를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가을갈이(× 가을카리), 분침(× 푼침)



제5항 어원에서 떨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강남콩(× 강남콩), 사글세(× 삭월세)

어원(語源)이 뚜렷한데도 언중(言衆)들의 어원 의식이 약해져서 어원으로부터 떨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고 있다. ‘강남콩’은 ‘江南’에서 온 것이나 이미 어원을 인식하지 않고 쓰이고 있는 언어 현실을 인정하여 현실음대로 ‘강남콩’을 표준어로 정하였고, ‘삭월세’는 ‘朔月貰’의 단순한 한자 취음(漢字取音)으로 현실음인 ‘사글세’만을 표준어로 삼았다. 다만 ‘월세(月貰)’는 여전히 표준어이다.

제6항 다음 단어는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돌(× 뚫), 둘째(× 두째), 셋째(× 세째), 빌리다(× 빌다)

과거에는 ‘돌’은 생일, ‘뚫’은 주기의 의미로 구분해 썼던 것을 ‘돌’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두째, 세째’는 ‘첫째’와 함께 차례를 가리킬 때, ‘둘째, 셋째’는 ‘하나째’와 함께 ‘몇 개째’의 뜻으로 수량을 나타낼 때 쓰이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빌다’는 ‘빌어 오다(借)’로, ‘빌리다’는 ‘빌려 주다(貸)’로 구분하여 쓰이던 것을 ‘빌리다’로 통합한 것이다. 다만, ‘乞, 祝’의 뜻으로는 그대로 ‘빌다’를 인정하였다.

제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 - ’로 통일한다.

수평(× 수평, 수평), 수놈(× 수놈), 수소(× 수소)

다만 1. 다음 단어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수강아지(× 수강아지), 수평아리(× 수평아리)

다만 2.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숫 - ’으로 한다.

숫양(× 수양), 숫염소(× 수염소), 숫쥐(× 수쥐)



역사적으로 ‘암 - 수’의 ‘수’는 명사 ‘술’이었다. 오늘날 ‘수캐, 수탉’ 등에 받침 ‘ㅎ’의 자취가 남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술’의 명사로 쓰이는 일은 ‘암수’라는 복합어 정도 이외에는 거의 없어지고 접두사로만 쓰이게 되었다. ‘다만 1’은 받침 ‘ㅎ’이 다음 음절 첫소리와 거센소리를 이룬 단어들로서 역사적으로 복합어가 되어 화석화한 것이라 보고 ‘술’을 인정하되 표기에서는 받침 ‘ㅎ’을 독립시키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서 어느 단어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지만, 일단은 ‘다만 1’에서 제시된 단어만을 인정하기로 하였다.¹⁾ ‘다만 2’는 발음상 사이시옷과 비슷한 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숫-’의 형태를 인정하였다.²⁾

4.1.2.2. 제2절 모음

제8항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깡충깡충(× 깡충깡충), - 동이(× - 동이), 오뚝이(× 오뚝이)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단어에서는 양성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부조(扶助, × 부주), 사돈(查頓, × 사둔), 삼촌(三寸, × 삼춘)

국어는 모음조화(母音調和)가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언어이다. 그러나 모음조화 규칙은 후세에 오면서 많이 무너졌고, 현재에도 더 약해지고 있는 편이다. 종래의 ‘깡충깡충’이 언어 현실에 따라 ‘깡충깡충’으로 바뀌었고, 큰말은 ‘깡충깡충’이다. 그런데 형용사 ‘깡충하다’는 비표준어이고, ‘깡충하다’(1. 키가 작은 데 비하여 다리가 좀 길다. 2. 치마나 바지 따위의 옷이 좀 짧다.)가 표준어이다(표준어 모음). ‘-동이’도 음성모음화를 인정하여 ‘-동이’로 하였으므로 ‘쌍

1) ‘수컷’, ‘수캐’, ‘수강아지’, ‘수탉’, ‘수평아리’, ‘수돼지’, ‘수탕나귀’, ‘수키와’, ‘수톨찌귀’는 현대 국어에서 예외적으로 ‘수-’ 뒤에 오는 자음을 거센소리로 적는다. 그러나 ‘수고양이, 수기린, 수다람쥐, 수벌, 수범’ 등의 다른 단어들은 ‘수-’ 뒤의 자음을 거센소리로 적지 않는다(표준어 규정 제7항 다만 1. 참조).

2) ‘숫-’은 제시한 세 단어에 국한하여 적용함. 유사한 음운 환경의 다른 어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외의 단어는 ‘수-’로 표기한다. (예: 숫야크(×)/ 수야크(○), 숫여우(×)/ 수여우(○), 숫지네(×)/ 수지네(○)).



등이, 귀염둥이, 막둥이'가 표준어이다. '오뎅이'도 명사나 부사에서나 모두 '오뎅이'를 표준어로 정하였는데, 이는 '오뎅하다'라는 현실 발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조항은 현실적으로 '부주, 사둔, 삼춘'이 널리 쓰이는 형태이나 이들은 어원을 의식하는 경향이 커서 음성모음화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9항 'ㅣ'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는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내기(× -나기), 냄비(× 남비)

붙임 1. 다음 단어는 'ㅣ'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아지랑이(× 아지랭이)

붙임 2. 기술자에게는 '- 장이', 기타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미장이(× 미쟁이), 멧쟁이(× 멧장이)

'ㅣ' 역행동화는 전국적으로 매우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 동화 형태를 모두 표준어로 삼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가령 '손잡이, 먹이다'까지 '손잡이, 맥이다'로 바꾼다면 매우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ㅣ' 역행동화 현상을 인정하는 표준어의 개정은 극소화하였다. '-나기'는 서울에서 났다는 뜻의 '서울나기'를 그대로 쓰임직하지만, '신출나기, 뿔나기'는 어색하므로 일률적으로 '-내기'로 통일을 하였다. '남비'는 일본어의 '나베(鍋, なべ)'에서 온 말이라 하여 원형을 의식하여 처리했던 것이나, 제5항에서 '강남콩'을 '강낭콩'으로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원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냄비'로 한 것이다. 붙임 1 '아지랑이'는 그동안 '아지랭이'가 표준어로 행세해 왔으나, 현실 언어가 '아지랑이'이므로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를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같은 사례로 '아기, 아비, 지팡이'는 표준어이고, '애기, 애비, 지팡이'는 비표준어이다(표준어 모음). 또한 붙임 2 '-장이'는 논란이 많았던 항목으로서 각각 상황에 따라 가려 쓰게 되었는데, 곧 기술자(匠人)에게는 '-장이'로, 그 외는 '-쟁이'로 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 때문에 상당한 단어들이 '-쟁이'가 되었는데, '요술쟁이, 마술쟁이, 무식쟁이'가 그



예이다(표준어 모음). 따라서 ‘개구장이, 욕심장이’는 비표준어이다.

제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괴팍하다(× 괴팍하다), 미루나무(× 미류나무), 으레(× 으레)

이중 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하고 ‘니, 기, 나, 거’ 등의 원순모음을 평순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일부 방언의 특징이다. ‘확실히 → 학실히, 벼 → 베, 가위 → 가이’ 등이 그런 예이다. 위의 사례에서 든 ‘미루나무’는 어원적으로 ‘미류-(美柳)’인데, 이제는 ‘미류-’라는 발음은 듣지 못하게 되었다. ‘으레’ 역시 원래 ‘의례(依例)’에서 ‘으레’가 되었던 것인데, ‘례’의 발음이 ‘레’로 바뀌었고 나머지도 모음이 단순화된 예들이다. 그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새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여기에서 ‘괴팍하다’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이 단어의 발음도 분명히 ‘괴팍하다’로 바뀌었으므로 현실 발음을 인정하여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다만, ‘팍하다’는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표준어 모음).

제11항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구려(× - 구료), 걱정이(× 걱정이), 나무라다(× 나무래다)

바라다(× 바래다), 상추(× 상치), 주책(× 주착), 튀기(× 트기)

어느 한 현상으로 묶기 어려운 모음 변화를 모은 항목이다. ‘- 구려’와 ‘- 구료’는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는 듯도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므로 ‘- 구려’만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걱정이’는 ‘ㅣ’ 역행동화의 일종이나 ‘걱쟁이’가 아니라 ‘걱쟁이’를 표준어로 삼았다. 다만 도토리, 상수리 등의 받침은 여전히 ‘걱정이’이다. ‘나무래다, 바래다’는 방언으로 해석하여 ‘나무라다, 바라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근래에 ‘바라다’에서 파생된 명사 ‘바람’을 ‘바램’으로 쓰는 경향이 있는데, 동사가 ‘바라다’이므로 파생된 명사가 ‘바램’이 될 수 없다. ‘상치’는 치찰음 다음에서의 ‘ㅣ’ 모음화로 보고 ‘상추’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며, ‘튀기 → 트기’는 모음의 단순화 현상인데 아직 원형이 쓰이고 있다고 보아 ‘튀기’를 표준어로 삼았다. ‘주착(主着)’은 현실음을 인정하여 한자어 어원



을 버리고 변한 형태인 ‘주책’을 표준어로 받아들인 것이다.

제12항 ‘옷 -’ 및 ‘윗 -’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 -’으로 통일한다.

윗눈썹(× 옷눈썹), 윗니(× 옷니), 윗도리(× 옷도리), 윗목(× 옷목),
윗배(× 옷배), 윗입술(× 옷입술), 윗자리(× 옷자리)

다만 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

위썩(× 옷썩), 위쪽(× 옷쪽), 위층(× 옷층), 위턱(× 옷턱)

다만 2.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옷 -’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옷국(× 윗국), 옷돈(× 윗돈), 옷어른(× 윗어른), 옷옷(× 윗옷)

극심하게 혼란을 일으켜 온 ‘옷’과 ‘윗’을 한쪽으로 통일하고자 한 결과이다. 이들은 명사 ‘위’에 사이시옷이 결합된 것으로 해석하여 ‘윗’을 기본으로 삼았다. ‘다만 1’은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 사이시옷을 쓰지 않기로 한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 맞춘 것이다. ‘다만 2’는 발음이 위낙 ‘옷’으로 굳은 단어들은 예외로 처리한 것이다. 대체로 ‘윗목 - 아랫목’, ‘윗자리 - 아랫자리’처럼 ‘위 - 아래’의 대립이 있을 때에는 ‘윗’을 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옷 -’을 쓰도록 하였다. 그러나 ‘옷’으로 표기되는 단어를 최대한 줄이고, ‘윗’으로 통일함으로써 ‘옷 - 윗’의 혼란을 거의 줄였다.

제13항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

구절(句節, × 귀절), 대구(對句, × 대귀), 시구(詩句, × 시귀)

다만, 다음의 단어는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귀글(× 구글), 글귀(× 글구)

그동안 ‘구’와 ‘귀’로 혼동이 심했던 ‘句’의 음을 ‘구’로 통일한 것이다. 다만 ‘句’의 훈과 음은 ‘글귀 구’이다. 따라서 ‘귀글, 글귀’는 예외로 하였다.



4.1.2.3. 제3절 준말

제14항 준말이 널리 쓰이면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짜리(× 또아리), 무(× 무우), 생쥐(× 새앙쥐), 술개(× 소리개)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또는 사전에서만 밝혀져 있을 뿐 현실 언어에서는 전혀 또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된 본말을 표준어에서 제거하고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대부분 준말 형태를 인정한 이들 말 중 2음절이 1음절로 된 말은 대개 긴소리로 발음되는 공통점이 있지만, 짧은 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언어생활의 현실성을 반영한 것이다.

제15항 본말이 널리 쓰이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귀이개(× 귀개), 부스럼(× 부럼), 수두룩하다(× 수둑하다)

붙임. 다음과 같이 명사에 조사가 붙은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한다.

아래로(× 알로)

본말과 준말 중에서 본말이 널리 쓰이면 본말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준말들이 얼마간이라도 쓰인다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 쓰임이 워낙 적을 뿐만 아니라 품위 있는 형태도 아니어서 본말을 표준어로 한 것이다. 다만 ‘마음/맘, 미움/میم’은 복수 표준어이고, 정월 대보름에 쓰는 ‘부럼’은 표준어이다(표준어 모음).

제16항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

거짓부리/거짓불, 노을/놀, 머무르다/머물다, 서두르다/서둘다,

시누이/시누/시누, 외우다/외다, 찌꺼기/찌끼

본말과 준말을 함께 표준어로 삼은 단어들이다. ‘외우다/외다’의 경우 종래에는 ‘외다’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인데 ‘외우다’가 새로 표준어로 인정된 것



이다. ‘머무르다/머물다’의 경우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머무르-고, 머물-고’처럼 자음 어미(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는 본말과 준말을 모두 쓸 수 있지만, 모음 어미(‘-어’, ‘-어서’, ‘-오’ 등)가 연결될 때는 ‘머무르-어→머물러’로 써야지 ‘머물-어’로 쓸 수 없다. 이것은 ‘가지다’의 준말 ‘갖다’의 모음 어미 활용형 ‘갖어, 갖어라, 갖었다’ 따위가 성립하지 않는 현상(즉, ‘가져, 가져라, 가졌다’로 써야 하는 현상)과 일관성 있게 다룬 것이다.

4.1.2.4. 제4절 단수 표준어

제17항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귀고리³⁾(× 귀엣고리), 꼭두각시(× 꼭둑각시), 너(四, × 네) 돈,
천장(× 천정), -(으)려고(× -(으)르려고), -습니다(× -읍니다)

약간의 발음 차이로 두 형태 또는 그 이상의 형태가 쓰이는 것들에서 더 많이 쓰이는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너/넉(四), 서/석(三)’은 예로부터 많이 쓰던 말이어서 표준어로 인정하였고, ‘-던지’는 지난 일을 돌이켜 의심이나 원인 따위를 나타내는 경우에 쓰이는 말이다. 다만 선택을 나타낼 때는 ‘-든지’를 쓴다. ‘-으려고’는 요즘 ‘먹으려고’처럼 ‘-으려고’를 많이 쓰지만 옳지 않다. ‘천정’과 ‘천장(天障)⁴⁾’ 중 더 널리 쓰이는 ‘천장’을 표준어로 하였다(천정부지(天井不知)는 ‘천정’임). ‘-습니다’는 종래 ‘-습니다, -읍니다’ 두 가지로 적고 ‘-습니다’가 더 꼭뎡한 표현이라고 해 왔으나, 이 조항에서는 그러한 의미 차이가 확연하지 않고, 일반 구어(口語)에서 ‘-습니다’가 훨씬 널리 쓰인다고 판단하여 ‘-습니다’를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명사형 ‘있음, 없음’ 따위를 ‘있습, 없습’이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표준어와는 상관이 없다. 같은 예로 ‘먹다’의 명사형은 ‘먹음’이지, ‘먹습’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3) 여자들이 컷볼에 다는 장식품을 가리킬 때는 ‘귀고리’와 ‘귀걸이’ 모두 쓸 수 있지만 귀를 감싸 막거나 귀에 거는 방한용품을 가리킬 때에는 ‘귀걸이’만 쓸 수 있다.

4) 천장(天障): 1. 지붕의 안쪽. 지붕 안쪽의 구조물을 가리키기도 하고 지붕 밑과 반자 사이의 빈 공간에서 바라본 반자를 가리키기도 함.(=보쪽). 2. 반자의 겉면.<표준국어대사전(1999) 참조>



4.1.2.5. 제5절 복수 표준어

비슷한 발음을 가진 두 형태가 다 널리 쓰이는 것들은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이다. 복수 표준어를 허용한 것은 국어의 폭을 넓히려 한 것이다.

제18항 다음 단어는 앞부분을 원칙으로 하고, 뒷부분도 허용한다.

쇠-/소-, 괴다/고이다, 꺾다/꼬이다, 죄다/조이다, 찍다/쫓이다.

그동안은 ‘소+ㅣ(의)’인 ‘쇠-’와 ‘소’를 모두 인정하여 ‘쇠고기, 소고기’ 모두가 표준어이다. 다른 사례는 축약된 형태와 그 이전의 형태를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것들이다. ‘괴다/고이다’의 명사형은 ‘꺨/고임’이며, ‘괴임’은 쓰지 않는다. ‘고이다’와 ‘괴다’가 모두 복수 표준어이긴 하지만 ‘고인돌(支石墓)’의 경우에는 ‘고인돌’로만 쓰며 ‘꺨돌’로 쓰지 않는다.

제19항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고까/꼬까, 고린내/코린내, 꺼림하다/깨름하다, 나부랭이/너부렁이

어감(語感)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엄밀히 별개의 단어라고 할 수 있으나 워낙 기원을 같이하는 단어이면서 그 어감의 차이가 미미한 것이어서 복수 표준어로 처리한 것이다. ‘나부랭이/너부렁이’에서 ‘너부렁이’를 ‘나부랭이’에 견주어 ‘너부렁이’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언어 현실이 거기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4.1.3.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4.1.3.1. 제1절 고어

제20항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설거지하다(× 설것다), 애달프다(× 애닭다), 오동나무(× 머귀나무)

‘설것다’를 버린 것은 이미 고어가 되어 쓰이지 않아 ‘설것어라, 설것으니, 설것더니’와 같은 활용형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사 ‘설거지’도 ‘설것-’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지 않고 원래부터 명사로 처리하고, ‘설거지하다’는 명사 ‘설거지’에 ‘-하다’가 결합된 것으로 해석된다. ‘설것이’는 비표준어이다. ‘애닭다’는 노래 등에서 일부 ‘애닭다 어이하리’ 식으로 쓰이고 있으나 고어(古語)의 잔재일 뿐 이 용어 역시 ‘애닭으니, 애닭아서, 애닭은’ 등의 활용형이 실현되는 일이 없어 고어로 처리하고 ‘애달파서, 애달픈’ 등의 활용형을 가진 ‘애달프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머귀나무’는 ‘오동나무’의 뜻으로는 쓸 수 없고, ‘운향과에 딸린 갈잎 큰키나무’의 뜻으로는 표준어이다.

4.1.3.2. 제2절 한자어

제21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까막눈(× 맹눈), 박달나무(× 배달나무), 사례논(× 사례답)

고유어와 한자어 중에서 고유어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제22항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그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개다리소반(× 개다리밥상), 고봉밥(× 높은밥), 총각무(× 알타리무)

고유어라도 생명력을 잃은 것은 버리고 한자어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4.1.3.3. 제3절 방언

제23항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남겨 두는 원칙으로 한다.

멍게/우렁챙이, 물방개/선두리, 애순/어린순

원래 ‘우렁챙이’가 표준어였으나, 지금은 ‘멍게’가 더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이때 애초의 표준어도 학술 용어 등에 쓰이는 점을 감안하여 복수 표준어로 남겨 두었다.



제24항 방언이던 단어가 더 널리 쓰이면 그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귀밑머리(× 컷머리), 빈대떡(× 빈자떡), 코주부(× 코보)

방언을 표준어로 승격시킨 조항이나, 애초의 표준어를 아예 버린 것이다. 가령 ‘빈자떡’은 ‘빈대떡’에 완전히 밀려 쓰이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되어 방언이던 ‘빈대떡’만 표준어로 남긴 것이다. ‘코주부’는 만화 주인공의 이름에서 세력을 얻은 것이라 생각되는데, ‘코보’를 밀어내고 표준어가 되었다.

4.1.3.4. 제4절 단수 표준어

제25항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고치다(× 낫우다), 광주리(× 광우리), 길잡이(× 길압잡이)

붉으락푸르락(× 푸르락붉으락), 셋별(× 새벽별)

술고래(× 술푸대), 안절부절못하다(× 안절부절하다)

입담(× 말담), 주책없다(× 주책이다), 청대콩(× 푸른콩)

제17항은 발음상으로 기원을 같이하는 단어였음에 반해 여기에서 다루어진 단어들은 어원을 달리하는 단어들이다. ‘낫우다’는 일부 방언에서만 쓰이고 서울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아 ‘고치다’만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푸르락붉으락’은 두 개가 다 인정될 법도 하나 ‘오락가락’이나 ‘들낙날락’이 ‘가락오락’이나 ‘날락들락’이 되지 못하듯이, 이 종류의 합성어에는 일정한 어순(語順)이 있는 까닭에 널리 쓰이는 ‘붉으락푸르락’만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안절부절하다, 주책이다’는 부정사(不定辭)를 빼고 써도 부정사가 있는 ‘안절부절못하다, 주책없다’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특이한 말이다. 그렇지만 부정사를 붙인 ‘안절부절못하다, 주책없다’를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4.1.3.5. 제5절 복수 표준어

제26항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가뭇/가물, 가없다/가엎다, 개숫물/설거지물, -거리다/-대다, 고깃간/푸줏간, 관계없다/상관없다, 꼬까/때때/고까, 닝쿨/딩굴, 뒷말/뒷소리, 판전/판청, 말동무/말벗, 벌레/버러지, 뽀두라지/뽀루지, 서럽다/싫다, 신/신발, 아무튼/어떻든/어쨌든/하여튼/여하튼, 옥수수/강냉이, 우레/천둥, -이에요/-이어요, 자물쇠/자물통, 중신/중매, 책씻이/책거리, 혼자되다/홀로되다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사례는 현실 언어생활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뭇/가물’ 중에서는 ‘가뭇’이 더 큰 세력을 얻고 있으나, ‘가물’도 아직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가없다/가엎다’는 활용형에서 ‘가없어라’와 ‘가여워’가 다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가 인정된 것이다. ‘-이에요/-이어요’의 경우도 ‘책이에요/책이어요’처럼 보편화된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ㅣ’ 모음 동화를 반영한 표기 ‘책이에요, 책이어요’는 옳지 않고, 명사가 모음으로 끝날 때에는 ‘이’와 ‘에, 어’가 축약된 ‘저예요, 저여요’가 맞다. ‘우레/천둥’의 ‘우레’는 본래가 ‘울다’의 어간 ‘울-’에 접미사 ‘-에’가 붙어서 된 말이었는데, 한자의 영향으로 ‘우뢰(雨雷)’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고어에도 ‘우레’가 나타나므로 다시 ‘우레/천둥’을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5. 마무리

지금까지 표준어 규정 전반에 걸쳐 살펴보았지만 표준어 사정 작업은 계속되어야 하고, 국가에서는 중요한 어문 정책의 하나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은 국어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표준어 사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국가에서 아무리 다듬어진 말과 아름다운 말을 표준어로 정해도 국민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애를 불러오고 친근감을 불러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방언을 지나치게 남용함으로써 지역 우월주의에 빠진다가 나 다수 국민의 정서를 해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표준어 규정이 발표된 지 20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표준어와 표준 발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는 개인적인 관심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



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기존에 교육을 받았던 성인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사전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간혹 일정한 교육 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역시 개인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국가 기관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표준어 교육을 더 많이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국어연구소(1988), 표준어 규정 해설.
국어연구소(1990), 표준어 모음, 국어생활 제22호 별책.
김민수(1984), 국어정책론, 탑출판사.
이승재(1998), “표준어와 방언”, 국어문화학교 교재(국어반), 국립국어연구원.
이익섭(1987), “표준어의 기능”, 방송언어연구논총, KBS.
이익섭(1997), “방언”,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이희승 · 안병희(1994),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전동기(1988),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개정의 의의”, 문교행정(1988. 2.) 통권 74호, 문교부.
조선어학회(1936),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최용기(1996), “표준어 규정 해설”, 국어문화학교 교재(국어반), 국립국어연구원.



표준 발음법

1. 표준 발음

‘표준 발음법’은 ‘한글 맞춤법’이 공포된(1933년) 뒤 55년이 지나서야 고시되었다. 그동안 일반인이 참고할 만한 소리 표준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준 발음의 부재 속에서, 사람들은 맞춤법에 어긋난 글을 쓰면 부끄럽게 생각하였지만 발음의 표준에는 무신경하거나 소홀히 생각해 온 것이 사실이다. 표준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인데도 이러한 경향은 만연하여 우리나라 표준 발음의 정립에 큰 저해 요인 중의 하나가 되어 왔다.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 표준어를 써야 하며 그것도 ‘한글 맞춤법’에 맞아야 하는 것처럼, 말을 할 때에는 표준어를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표준 발음법’이 무엇이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이 글은 ‘표준 발음법’에 나오는 규정들을 중심으로 단어를 발음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또한 개별 자모의 음가와 발음법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일반인들이 좀 더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모음의 발음

모음은 조음 기관의 접촉이나 마찰 없이 폐로부터 나오는 공기를 자유로이 통과시키며 내는 소리로, 표준어에는 다음 21개의 모음이 있다.(‘표준 발음법’ 제3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 ㅛ ㅜ ㅛ ㅜ ㅛ ㅜ ㅛ ㅜ ㅛ ㅜ ㅛ ㅜ ㅛ

표준어의 단모음에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 ㅛ, ㅜ, ㅛ, ㅜ, ㅛ, ㅜ, ㅛ, ㅜ, ㅛ, ㅜ, ㅛ’가 있다. 이 중



‘니, 귀’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 (‘표준 발음법’ 제4항) 예를 들어 ‘죄(罪)’라는 발음을 할 때 입을 좁게 동글리면서 끝까지 같은 모양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단모음으로 발음을 한 것이고, 입술 모양을 동그랗게 오므렸다가 재빨리 퍼면서 발음한 것은 이중 모음이다.

‘니’와 ‘귀’를 단모음으로 발음하면 단모음이 10개가 되고, ‘[we]’, ‘[wi]’와 같이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면 단모음이 8개가 된다. 서울에 사는 교양 있는 사람이라도 일부 노년층의 서울 토박이들만이 단모음으로 발음할 뿐이고, 대부분의 젊은 층은 이들을 단모음으로 발음하지 못하고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이중 모음에는 ‘ㅟ, ㅠ, ㅡ, ㅢ, ㅤ, ㅥ, ㅦ, ㅧ, ㅨ, ㅩ, ㅪ’의 11개가 있다. (‘표준 발음법’ 제5항) ‘ㅟ, ㅠ, ㅡ, ㅢ, ㅤ, ㅥ’는 각각 ‘ㅏ, ㅓ, ㅕ, ㅗ, ㅛ’의 앞에 [j]가 온 상승 이중 모음이고 ‘ㅩ’는 ‘ㅡ’ 뒤에 [j]가 온 하강 이중 모음이다. ‘ㅤ, ㅥ, ㅦ, ㅧ’는 각각 ‘ㅏ, ㅓ, ㅕ, ㅗ’의 앞에 반모음 [w]가 온 것이다.

ㅢ [e] / ㅤ [ɛ]

‘ㅢ’는 ‘ㅏ’보다 입을 좀 더 열고 내는 소리로 혀의 앞부분을 반 정도 올리고 입술을 편 상태에서 발음하면 된다. ‘지게’를 발음하면서 ‘ㅏ’와 ‘ㅢ’ 모음을 발음할 때 어떻게 조음 위치가 옮겨지는지 느껴 보자.

(예) 게, 가게, 그네, 네모, 모래, 배개, 세모, 어제
제비, 제과, 셋, 넷, 무게, 세수, 지게, 제주도

‘ㅤ’는 ‘ㅢ’보다 입을 좀 더 열고 내는 소리로 입을 제법 벌린 상태에서 혀를 아래턱에 붙이고 혀의 앞부분을 조금만 높여 발음한다. 충분히 닫히지도 않고 충분히 열리지도 않은 소리여서 ‘ㅢ’를 ‘반닫힌소리’라고 하고, ‘ㅤ’를 ‘반열린소리’라고 한다.

(예) 개미, 고래, 배우다, 배추, 새우, 매미, 모래, 새해, 야채
조개, 새, 재미, 해바라기, 노래, 배, 개나리, 내 것



‘케’와 ‘헤’를 구별하지 못하는 현상은 전남 일부와 경상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요즈음은 서울 지역의 젊은 세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에 나오는 ‘케’와 ‘헤’를 구분하면서 발음하여 보자.

(예) 케범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케으른 여치와 부지런한 개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사이좋게 지냅니다.
돈은 네 사람이 나누어 내었다.
재일이가 나와 제일 친한 친구이다.

케 [je] / 헤 [je]

‘케’와 ‘헤’는 ‘ㅣ’와 같은 입 모양을 하다가 각각 ‘케’와 ‘헤’로 재빨리 옮기며 발음하는 소리이다. ‘케’, ‘헤’와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여 구별해야 하는 발음들이다. ‘케’는 ‘예’와 ‘레’에서는 글자 그대로 소리를 내야 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케’로도 발음할 수 있다.(‘표준 발음법’ 제5항)

(예) 예산, 예쁘다, 옛날, 의례, 차례
시계[시계/시계] 지혜[지혜/지혜] 혜택[혜:택/혜:택]

그런데 주위의 발음을 들어 보면 ‘레’를 [레]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케’가 자음 뒤에 오게 되면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 준다.

괴 [ø] / 귀 [y], 케 [we] / 해 [we]

단모음 ‘괴’와 ‘귀’는 각각 ‘케’, ‘ㅣ’와 같은 위치에서 발음하는데, 입술을 둥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발음한다. 단모음을 발음할 때는 처음과 끝의 입 모양이 달라지지 않도록 발음하여야 한다.

‘괴’, ‘귀’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때(괴[we], 귀[wi])에는 ‘ㅜ’와 같은 입



모양을 하다가 재빨리 ‘ㄱ’, ‘ㅣ’로 옮기며 발음하여야 한다. ‘ㄱ’을 발음할 때에는 입을 충분히 벌려 ‘ㄱ[we]’로 소리 내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ㄱ’을 처음과 끝의 입 모양을 바꾸어 발음하면 ‘ㄱ’과 같이 소리 난다.

(예) 외나무, 두뇌, 괴다, 쇠고기, 최고, 텃마루, 기회, 죄
귀, 뉘, 뒤, 쥐, 가위, 뒤주, 위인, 튀다, 들쥐, 성취, 뛰다
궤도, 궤다, 훼손, 웬만큼, 궤짝, 위궤양
꽤, 돼지, 왜, 썰기, 땀다, 팬찮다, 곡괭이

특히 ‘ㄱ’의 경우 처음에 ‘ㄴ’과 같은 입 모양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ㅣ’ 소리가 되므로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일부 경상도 방언에서는 ‘ㄱ’과 ‘ㅣ’의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 그 위치가 옳다 / 그 이치가 옳다
위장이 나쁘다 / 이장이 나쁘다
궤에 흠이 묻었다 / 기에 흠이 묻었다

ㄴ [n]

‘ㄴ’은 ‘ㄴ’을 발음할 때의 혀 위치와 같으면서 입술을 펴서 내는 소리이다. ‘ㄴ’은 ‘ㅣ’와 마찬가지로 입을 다문 상태에서 입술을 펴고 소리 내어야 한다. ‘흐르니’를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계속해서 펴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예) 금, 은, 틈, 승리, 그림자, 느리다

ㄷ [d] / ㄸ [dʰ]

‘ㄷ’은 ‘ㄱ’을 발음할 때보다 혀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낮아진다. 혀의 뒷부분이 ‘ㄱ’보다는 낮고 ‘ㅌ’보다는 높은 상태에서 입술을 펴고 발음하면 ‘ㄷ’을 제대로 발음한 것이 된다. ‘언제나 눈에 선한’에서 ‘언:’과 ‘선:’의 ‘ㄷ’ 발음은



‘머리가 무겁다’에서 ‘머’와 ‘겁’의 ‘ㄱ’ 발음과 다르게 난다. 짧게 소리 나는 ‘ㄱ’과 길게 소리 나는 ‘ㄱ’은 말소리의 길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입을 벌리는 정도도 다르다. ‘ㄱ’을 짧게 발음할 때에는 길게 발음할 때보다 입을 더 크게 벌려서 소리 내야 한다. 또한 장모음 ‘ㄱ[ə:]’는 단모음의 ‘ㄱ[ʌ]’보다 혀의 조음 위치가 높아져서 ‘ㅡ’의 장모음과 비슷하게 발음된다.

(예) 어:른, 건:강, 선:수, 열:다, 가:짓말
너, 어깨, 절, 버릇, 서리, 먹었다

ㄱ [jʌ]

‘ㄱ’은 ‘ㅣ’와 같은 입 모양을 하다가 ‘ㄱ’로 재빨리 옮기며 발음하는 소리이다.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켜, 처’는 [저, 켜, 처]로 발음한다.(‘표준 발음법’ 제5항)

(예) 가저(←가지어)[가저], 켜(←꺼어)[켄], 다쳐(←다치어)[다쳐]

이 규정이 용언의 활용형에만 한정된 것은,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용언의 활용형에만 ‘ㄱ, ㅈ, ㅊ’ 등의 구개음 다음에 ‘ㅣ’계 이중 모음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글 맞춤법’에서 ‘가저, 다쳐’ 같은 표기를 허용한 것은 이들이 각각 ‘가지어, 다치어’의 준말이라는 문법적 사실을 보이기 위한 것이지 발음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ㅊ[wʌ] / ㅊ[wʌ]

‘ㅊ’은 ‘ㅈ’과 같은 입 모양을 하다가 재빨리 ‘ㅊ’로 옮기며 발음하는 소리이다. ‘ㅊ’ 소리를 발음할 때에 입 모양이 바뀌지 않으면 정확한 소리가 나지 않는다. ‘ㅊ’은 ‘ㅈ’과 같은 입 모양을 하다가 재빨리 ‘ㅊ’로 옮기며 발음하는 소리이다. ‘두어’를 재빨리 발음하면 ‘뒤’가 된다.



(예) 과자, 왕, 도화지, 좌우, 기와, 대왕, 관광, 화요일
권리, 뒤라, 월급, 원인, 국권, 훨훨, 시원하다

‘과’의 경우 반모음을 탈락시켜 ‘ㅏ’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서 발음해야 할 것이다.

(예) 객간적인(←객관적인), 정확한(←정확한), 간강(←관광), 상항(←상황)

ㄴ [ɲ]

낱말의 처음에 오는 ‘의’는 언제나 ‘ㅡ + ㅣ’로 발음하고 ‘ㅡ’나 ‘ㅣ’로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ㅡ’ 소리에서 시작하여 재빨리 ‘ㅣ’ 소리로 옮겨 소리 내야 하지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ㅣ’로 소리 내야 한다.

(예) 의논, 의리, 의문, 의롭다, 의심하다, 의젓하다
넉넉, 무늬, 희망, 유희, 널리, 희끗희끗, 띄엄띄엄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지 않은 ‘의’는 제 음가대로 발음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라도 방언에서 ‘의사(義士)’를 ‘으사’로, 경상도 방언에서 ‘의대(醫大)’를 ‘이대’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법’에 어긋난다.

제2음절 이하에서 ‘의’를 제 음가대로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도 역시 어렵다.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서는 ‘의’가 단어의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올 때에는 [이]로도 발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사 ‘의’는 [예]로도 발음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예) 주의[주의/주이] 협의[허비/허비]
나의 고향 고향의 봄



그렇다면 ‘무늬’와 ‘문의(問議)’의 발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무늬’의 경우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는 ‘니’에 해당되므로 항상 [무니]로 발음하여야 하나, ‘문의’의 경우는 [무:니]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고 [무:니]로도 발음할 수 있다.

3. 소리의 길이

우리말에서는 모음의 길이가 중요하다. 같은 모음이라도 뜻에 따라 길게 소리 나기도 하고 짧게 소리 나기도 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말의 뜻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사과(謝過)’의 ‘사’는 모음이 길게 나고 ‘사과(과일)’의 ‘사’는 모음이 짧게 나서 두 낱말의 뜻이 구별되는 것이므로 긴 모음을 짧게 내면 두 낱말의 의미가 구별이 안 된다. 물론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모음의 장단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서 장단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직도 기성세대들은 장단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를 구별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고 국어사전에도 장단을 구별하여 표시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모음의 길이에 민감하여야 하고 구별하여 발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 말은 말:을 못한다.

밤에 밤:을 구워서 먹었다.

가:장 행렬을 가장 잘 하였다.

사:과를 하면서 사과를 한 개 주었다.

보물을 땅에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위의 문장에서 밑줄 그은 낱말을 모두 짧게 발음하거나 모두 길게 발음하면 의미가 통하지 않는 문장이 된다. 이러한 음의 길이는 단어의 제1음절에서만 변별적인 특성이 있다. 긴소리로 발음되는 음절도 그 앞에 다른 음절이 오면 짧게 발음된다.(‘표준 발음법’ 제6항)



(예) 밤:, 눈:, 일:, 말:, 병:, 회:장, 강:당

군밤, 첫눈, 집안일, 거:짓말, 피병, 부:회장, 소:강당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예) 반신반의[반:신바:늑/반:신바:니] 재삼재사[재:삼재:사]

본디 짧은 소리를 가진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는 긴소리로 발음한다.(‘표준 발음법’ 제7항)

(예) 보아→봐[봐:] 기어→겨[겨:] 되어→돼[돼:] 두어→뒤[뒤:]

[예외] 오아 → 와, 지어→저, 찌어→찌, 치어→쳐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예) 감다[감:따]-감으니[가므니] 밟다[밥:따]-밟으면[발브면]

신다[신:따]-신어[시너] 알다[알:다]-알아[아라]

[예외] 끝다[끝:다]-끝어[끄:러] 뚫다[뚫:따]-뚫은[뚫:븐]

벌다[벌:다]-벌어[버:러] 썰다[썰:다]-썰어[썰:러]

없다[엇:따]-없으니[엇:쓰니]

용언의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도 짧게 발음한다.

(예) 감다[감:따]-감기다[감기다] 꼬다[꼬:다]-꼬이다[꼬이다]

밟다[밥:따]-밟히다[발피다]

[예외] 끌리다[끌:리다] 벌리다[벌:리다] 없애다[엇:쌌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단모음화가 단음절의 용언 어간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더:럽다’는 ‘더:러운’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



되더라도 단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체언의 경우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를 만나더라도 이러한 단모음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눈:이, 밤:을)

4. 자음의 발음

한국어 표준어 자음에는 다음의 19개가 있다.('표준 발음법' 제2항)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ㅁ ㅂ ㅅ ㅆ ㅇ ㅈ ㅊ ㅌ ㅍ ㅎ

이들을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파열음	ㅂ	ㅍ	ㅃ
	ㄷ	ㅌ	ㄲ
	ㄱ	ㅋ	ㆁ
파찰음	ㅈ	ㅊ	ㅉ
마찰음	ㅅ	ㅆ	ㅎ
비음	ㄴ	ㄹ	ㅇ
유음	ㄹ		

(1) 파열음

파열음은 혀에서 흘러나오는 공기를 발음 기관의 어떤 부위에서 완전히 막았다가 일시에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한국어의 파열음은 조음 자리에 따라 양순음 'ㅂ, ㅍ, ㅃ', 치조음 'ㄷ, ㅌ, ㄲ', 연구개음 'ㄱ, ㅋ, ㆁ'으로 나누고, 긴장과 기(aspiration)의 유무에 따라 예사소리 'ㅂ, ㄷ, ㄱ', 거센소리 'ㅍ, ㅌ, ㅋ', 그리고 된소리 'ㅃ, ㄲ, ㆁ'으로 나눈다.

양순 파열음 'ㅂ, ㅍ, ㅃ'은 두 입술을 닫아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치조 파열음 'ㄷ, ㅌ, ㄲ'은 혀끝을 윗잇몸에 대고 폐에서 나오는 기류를 입 안에 가두었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연구개 파열음 'ㄱ, ㅋ, ㆁ'은 혀뿌리를 연구개 앞부분에 대고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파열음은 그 조음 방식에 따라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로 나눌 수 있다. 예사소리 ‘ㅂ, ㄷ, ㄱ’은 어두의 초성으로 날 때는 목청 떨림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무성이고 약한 기식을 지닐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여리게 발음된다. 그러나 유성음 사이에서 실현될 때는 목청 떨림을 수반하는 유성음으로 발음한다. ‘비’, ‘발바닥’ 등에서 나는 ‘ㅂ’과 ‘아버지’, ‘안방’ 등에서 나는 ‘ㅂ’은 음성적으로 차이가 나는 발음이다. 그러나 이러한 음의 차이는 국어에서는 뜻을 구별하는 데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다.

거센소리 ‘ㅍ, ㅌ, ㅋ’은 예사소리 ‘ㅂ, ㄷ, ㄱ’에 비해서 터짐이 격렬한 듯한 인상을 준다. 거센소리를 발음할 때에는 터짐 뒤에 ‘ㅎ’ 소리가 이어 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얇은 종이를 입 앞에 대고 ‘탈, 패, 가치, 콩장’ 등의 낱말들을 발음하여 보면, 예사소리를 낼 때와는 다르게 종이가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밑줄 그은 음절의 예사소리를 거센소리로 바꾸어 발음하면, 문장의 뜻이 전혀 달라진다.

(예) 그는 아이다 / 크는 아이다

장이 아주 큼니다 / 창이 아주 큼니다

발이 매우 아프다 / 팔이 매우 아프다

된소리 ‘ㅃ, ㄸ, ㄲ’은 해당 발음 기관과 후두의 근육을 긴장시켜서 발음하는 자음들이다. 그리하여 예사소리가 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면 된소리들은 딱딱하고 뻑뻑한 느낌을 준다.

아래의 예는 같은 조음 위치의 발음이면서도 조음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 의미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대립쌍이다.

(예) 달/딸/탈, 불/뿔/폴

파열음이 어말이나 같은 조음 자리의 장애음 앞에 나올 때에는 조음 시 두 입술이 닫히기만 하고 터지지는 않는다. ‘밥’을 발음할 때 어두의 ‘ㅂ’은 정상적으로 개방되나 어말의 ‘ㅂ’은 개방되지 않는다.



(2) 마찰음

마찰음은 구강의 어느 한 지점을 좁혀서 기류를 좁혀진 틈 사이로 통과시켜 내는 소리이다. 국어에는 ‘ㅅ, ㅆ, ㅎ’이 있다. ‘ㅅ, ㅆ’은 혀끝을 윗잇몸에 가까이 접근시켜 내는 소리로, ‘ㅅ’은 예사소리, ‘ㅆ’은 된소리로 발음된다. ‘ㅎ’은 성문의 두 성대 사이가 약간 벌어지면서 만들어져서 ‘성문음’ 또는 ‘목청소리’라고 한다.

예사소리 ‘ㅅ’은 다른 예사소리 ‘ㄱ, ㄷ, ㅂ, ㅈ’과 달리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ㅅ’이 구개 위치에서 발음되는 [i]나 [j] 앞에 오게 되면 구개음에 가까운 소리로 발음된다.

(3) 파찰음

파찰음은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릴 때에는 파열음처럼 일시에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터뜨려서 마찰을 일으키도록 하여 내는 소리이다. 국어의 ‘ㅈ’은 혀바닥을 경구개 위치에 갖다 붙여서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서서히 열어 주면서 내는 소리이다. 파열음과 같이 유성음 사이에 오면 유성음화된다.

(4) 비음

공기를 입 쪽으로 내보내지 않고 코 쪽으로 내보내면서 발음하는 자음들을 비음이라고 하는데, 국어의 비음에는 ‘ㅁ, ㄴ, ㅇ’이 있다. ‘ㅁ’은 ‘ㅂ’과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양순 비음이고, ‘ㄴ’은 ‘ㄷ’과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치경 비음이며, ‘ㅇ’은 ‘ㄱ’과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연구개 비음이다. ‘ㄴ’의 경우 [i], [j] 앞에 오면 구개음화되어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5) 유음

국어에는 유음이 ‘ㄹ’ 하나밖에 없는데, 환경에 따라 설측음(물), 탄설음(나라), 구개음(멀려) 등 다른 음성으로 발음된다.

(예) 물 한 동이 / 좋은 나라 / 사랑에 눈이 멀려 한다.



5. 받침의 발음

(1) 홑받침의 발음

국어에서 받침으로 실현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뿐이다. 이 7개 이외의 자음이 받침으로 쓰이게 되면 그것들은 이 7개 자음 중의 하나로 변화되어 발음된다. ‘ㄱ, ㅋ’은 ‘ㄱ’으로, ‘ㅅ, ㅆ, ㅈ, ㅊ, ㅌ’은 ‘ㄷ’으로, ‘ㅍ’은 ‘ㅂ’으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낫, 낫, 낫, 낫’은 모두 같은 발음 [낫]으로 난다.(‘표준 발음법’ 제9항)

(예) 밖[박], 부엌[부억], 옷[으], 젓[전], 꽃[꼇], 솔[솔], 앞[압]

(2) 겹받침의 발음

국어에는 11개의 겹받침-ㄱㅅ, ㄴㅅ, ㄴㅇ, ㄹㅇ, ㄹㅅ, ㄹㅁ, ㄹㅂ, ㄹㅌ, ㄹㅎ, ㅁㅅ-이 있다.

(예) 갑-값, 막다-맑다, 안다-왔다

위의 각 쌍들은 같은 발음이 나는 것들로서 겹받침을 갖는 단어들은 두 자음을 다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두 자음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발음하는 것이다.

국어에는 어두나 어말에서는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으며, 두 모음 사이에서는 두 개까지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이런 제약 때문에 겹받침을 갖는 어간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어나 어미와 결합하게 되면 겹받침 중의 하나는 반드시 탈락하고 하나의 자음만 발음된다. 겹받침 중 어떤 것이 탈락하고 어떤 것이 남느냐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어떤 경우에는 첫 번째 받침이 탈락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두 번째 받침이 탈락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겹받침 ‘ㄱㅅ’, ‘ㄴㅅ’, ‘ㄹㅅ, ㄹㅁ, ㄹㅂ’, ‘ㅁㅅ’의 경우 둘째 소리는 탈락하고 첫소리만 발음된다.(‘표준 발음법’ 제10항) 이와 달리 ‘ㄹㅇ, ㄹㅌ, ㄹㅎ’은 어말 또는 자음으



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앞에서 일정하게 첫 번째 받침이 탈락하고 두 번째 받침이 발음된다.('표준 발음법' 제11항)

(예) 낫[낙] 앓다[안따] 외곬[외골] 넓다[널따] 값[갑]
닭[닥] 젊다[점:따] 읊다[읍따] 할다[할따]

겹받침 ‘래’의 경우 ‘ㄹ’을 탈락시키고 ‘ㄷ’만 발음하는 것이 표준인데, ‘밟다’와 ‘넓둥글다, 넓죽하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ㄹ’을 탈락시키고 ‘ㄹ’만 발음한다.

(예) 여덟[여덜] 째다[잘따] 넓다[널따]
밟다[밥:따] 밟지[밥:찌] 밟고[밥:꼬]
넓죽하다[넙쭈카다] 넓둥글다[넙똥글다]

또한, 겹받침 ‘러’이 용언의 어간 말음으로 쓰일 때, ‘러’ 뒤에 ‘ㄱ’이 이어 나올 때에는 둘째 자음을 탈락시키고 첫 자음 ‘ㄹ’만 발음하는 것이 표준이다.

(예) 맑게[말께] 물고[물꼬] 얹거나[얼거나]

(3) 받침 ‘ㅎ’의 발음

받침 ‘ㅎ’은 뒤따르는 ‘ㄱ, ㄷ, ㅈ’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발음된다.('표준 발음법' 제12항)

(예) 놓고[노코] 많고[만:코] 좋다[조:타] 옳다[올타]
달지[달치] 하얗지요[하:야치요]

그러나 ‘ㅎ’ 받침 뒤에 ‘ㅅ’이 오면 그 ‘ㅅ’과 결합하여 된소리 ‘ㅆ’으로 발음한다.(좋소[조:쏘], 싫소[실쏘]) 그 밖에 ‘ㅎ’ 받침 뒤에 ‘ㄴ’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그 ‘ㄴ’에 동화되어 ‘ㄴ’으로 발음되며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나 접미사가 오면 ‘ㅎ’으로 발음되지 않는다.

(예) 놓는[논는] 낳니[난니] 놓으니[노으니] 쌓여[싸여]

이러한 받침 ‘ㅎ’의 특성은 겹받침 ‘ㄴㅎ’과 ‘ㄹㅎ’이 뒤에 오는 자음과 결합할 때도 마찬가지로의 변화를 보인다.

(예) 끊고[끈코] 끊는[끈는] 앓지[알치] 앓소[알쏘]
 많아[마:나] 싫어[시러] 뚫어[뚜러]
 많으니[마:느니] 싫으니[시르니] 뚫으니[뚜르니]

(4) 연음 법칙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혹은 접미사와 결합할 때는 제 음가대로 발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받침 위치에서 발음되는 것은 아니고 뒤 음절에 연음되어 뒤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된다.(‘표준 발음법’ 제13항)

(예) 찾아[차자] 못으로[모스로] 늦으면[느즈면] 밑에[미테]

겹받침의 경우 겹받침 다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면, 겹받침의 뒤 소리만을 바로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표준 발음법’ 제14항)

(예) 흙이[흘기] 젊어[절머] 활아[할타]
 녀이[넉씨] 굶이[골씨] 값이[갑씨]
 흙은[흘근] 젊은[절믄] 활은[할튼]
 읊은[을픈] 었은[언즌] 밝은[발븐]
 녀으로[넉쓰로] 굶으로[골쓰로] 값으로[갑쓰로]
 앓아[안자] 뚫으니[떨브니] 읊어서[을퍼서]



(5) 절음 법칙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표준 발음법’ 제15항)

(예) 늪 앞[느밭] 발 아래[바다래] 젓어미[저더미] 맛없다[마덥따]
겉옷[거돋] 헛웃음[허두슴] 꽃 위[꼬뒤]

‘맛있다, 멋있다’는 [마딤따], [머딤따]를 표준 발음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마싣따], [머싣따]도 실제 발음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으로 허용한다.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예) 뉘 없다[너겍따] 닭 앞에[다가페] 값어치[가버치] 값있는[가빈는]

(6) 한글 자모의 발음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 ‘ㄷ, ㅌ, ㅊ, ㅋ, ㅌ, ㅍ, ㅎ’의 경우에는 언중의 실제 발음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표준 발음법’ 제16항)

(예) 디글이[디그시]	디글을[디그슬]
지웃이[지으시]	지웃을[지으슬]
치웃이[치으시]	치웃을[치으슬]
키웁이[키으기]	키웁을[키으글]
티을이[티으시]	티을을[티으슬]
피웁이[피으비]	피웁을[피으블]
히웁이[히으시]	히웁을[히으슬]



6. 소리의 변화

(1) 구개음화

‘ㄷ’과 ‘ㅌ’ 받침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에 이어져 발음될 때에는 각각 ‘ㅈ’과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표준 발음법’ 제17항)

(예) 해돋이[해도지] 미닫이[미다지] 밭이[바치] 굳이[구지]
살살이[산사치] 굳히다[구치다] 닫히다[다치다] 묻히다[무치다]

그러나 ‘ㅣ’ 이외의 모음과 연결될 때는 ‘ㄷ’, ‘ㅌ’ 소리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난다.(돋을[도들], 굳어[구더], 닫아[다다], 밭을[바들])

(2) 자음 동화

① 유음화

국어에서 ‘ㄴ’과 ‘ㄹ’은 연이어 나올 수 없고 ‘ㄴ’이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바뀐다. 비음 ‘ㄴ’이 유음 ‘ㄹ’에 동화되어 소리가 ‘ㄹ’로 바뀌는 것이다. 겹받침의 앞의 ‘ㄹ’만 남는 음절이 앞에 올 경우에도 뒤의 ‘ㄴ’이 ‘ㄹ’로 바뀐다.(‘표준 발음법’ 제20항)

(예) 만리, 신라, 찰나, 칼날, 난로, 설날
알는[알른], 꿔네[끌레], 활는[할른], 훔네[홀레]

다음은 모두 ‘ㄴ’으로 끝나고 독립성이 있는 2음절 한자어에 ‘ㄹ’로 시작된 1음절 접미사가 결합되는 예로서 ‘ㄹ’이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예) 의견란[의:견난] 임진란[임: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판녁]
공권력[공편녁] 동원령[동:원녕] 상견례[상견네]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원논] 입원료[이뵤뇨] 구근류[구근뉴]



일부 노년층 서울 토박이들 중에는 ‘ㄴ’과 ‘ㄴ’이 연이어 나올 때 이를 ‘ㄹㄹ’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발음은 표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관념[괄렴], 천년 만년[철련말련], 만년필[말련필])

② 장애음의 비음화

장애음 ‘ㅂ, ㄷ, ㄱ’은 비음 앞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비음 앞에서 ‘ㅁ, ㄴ, ㅇ’으로 바뀐다.(‘표준 발음법’ 제18항)

(예) 밥물[밤물] 잡는[잠는] 앞마당[암마당] 읊는[음는]
 옷맵시[온맵씨] 젓멍울[전멍울] 꽃망울[꼇망울] 있는[인는]
 부엌만[부엌만] 국물[궁물] 깎는[깁는] 흠만[흥만]

③ 유음의 비음화

국어에서 ‘ㄹ’은 ‘ㄴ’과 ‘ㄹ’ 이외의 자음 뒤에서 ‘ㄴ’으로 바뀐다. ‘ㅁ, ㅇ’ 뒤에서는 ‘ㄹ’이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표준 발음법’ 제19항)

(예) 음료[음:뇨] 담력[담:녁] 종로[종노] 승리[승니]
 강릉[강능] 막론[망논] 십리[심니]

그러나 두 닿소리가 이어질 때 바뀌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인간[잉간], 전기[정기], 옷감[옥감], 잇몸[임몸], 있고[익꼬], 감기[강:기]’의 경우 발음의 편의에 따른 발음이지만 이는 잘못된 발음이다. 수의적인 자음 동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된소리되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ㄱ, ㄷ, ㅂ’이 받침으로 쓰이면 터지지 않는 소리로 발음되는데, 이러한 불파음 뒤에 오는 예사소리들은 단어 내부에서건 곡용 및 활용에서건 예외 없이 된소리로 발음된다.(‘표준 발음법’ 제23항)



(예) 국밥[국꺄]	먹다[먹따]
믿고[믿꼬]	속부터[속:뿌터]
깎다[깎다→깎따]	샅돈[샅돈→샅똥]
웃고[웃:고→웃:꼬]	꽃과[꽃과→꽃파]
있지[있지→있찌]	읍다[읍다→읍따]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도 된소리로 발음한다.(‘표준 발음법’ 제24항)

(예) 안다[안:따]	안고[안:꼬]	안지[안:찌]
감다[감:따]	감고[감:꼬]	감지[감:찌]
[참고] 감도[*감또], 방법[*방꺄], 창고[*창꼬], 간단하다[*간똥하다]		

다만, 피동, 사동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예) 안기다, 감기다, 굶기다, 옮기다

또한 관형사형 ‘-(으)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는데,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으)ㄴ’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표준 발음법’ 제27항)

(예)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할 바를[할빠를]
할 수는[할쑤는]	할 적에[할쩍에]	갈 곳[갈꼇]
할걸[할겅]	할밖에[할빠께]	할세라[할쑤라]
할수록[할쑤록]	할진대[할쑤대]	할지라도[할쑤라도]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표준 발음법’ 제28항)



(예) 문-고리[문꼬리]	눈-동자[눈똥자]	신-바람[신빠람]
산-새[산새]	손-재주[손썰주]	길-가[길까]
물-동이[물똥이]	발-바닥[발빠닥]	굴-속[굴:쑥]
바람-결[바람결]	그믐-달[그믐딸]	잠-자리[잠짜리]
강-가[강까]	초승-달[초승딸]	강-줄기[강쫄기]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 또한 된소리로 발음한다.('표준 발음법' 제26항)

(예) 갈등[갈똥]	발동[발똥]	절도[절또]	물상식[물쌍식]
일시[일씨]	갈증[갈쑥]	물질[물쥔]	불세출[불썰출]
말살[말쌀]	발전[발썬]		

(4) ㄴ 댕소리/ㄹ 댕소리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한다.('표준 발음법' 제29항)

(예) 담-요[담:뇨]	숨-이불[숨:니불]	콩-엿[콩녘]	색-연필[생년필]
논-일[논닐]	한-여름[한녀름]	꽃-잎[꼇닙]	앞-이마[암니마]
맨-입[맨닙]	생-이별[생니별]	눈-약[눈낙]	식용-유[시공뉴]
눈-요기[눈뇨기]	내복-약[내:봉낙]	막-일[망닐]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소리는 [ㄹ]로 발음한다.

(예) 들-일[들:릴]	설-익다[설릭따]	술-있[술립]
물-약[물략]	불-여우[불려우]	서울-역[서울력]
물-엿[물련]	휘발-유[휘발류]	유들-유들[유들류들]



다음과 같은 의성 의태어들은 ‘ㄴ’ 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지만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예)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마금]
올랑-올랑[올랑놀랑/올랑올랑]

‘검열’이나 ‘금융’과 같은 단어는 ‘ㄴ’을 첨가하여 발음하지만 ‘ㄴ’ 첨가 없이도 발음할 수 있는 것이 표준 발음이다. “기차를 타 본 일[닐]이 있습니까?”에서와 같이 ‘ㄴ’ 소리는 낱말과 낱말 사이에서 덧나기도 한다. 만일, 이러한 소리의 첨가가 없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앞의 자음을 연음하여 발음한다.

(예) 6·25[유기오] 3·1절[사밀절] 송별연[송:벼련] 등용문[등용문]
월요일[위료일] 목요일[모교일] 금요일[그묘일] 절약[저략]

(5) 사이시옷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에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표준 발음법’ 제30항)

(예) 냇가[내:까/냇:까] 셋길[새:길/셋:길] 빨랫돌[빨래돌/빨랜돌]
콧등[코똥/꼴똥] 깃발[기빨/깃빨] 대팻밥[대:괘뺨/대:괘뺨]
햇살[해쌀/헛쌀] 뱃속[배쑥/뺨쑥] 고갯짓[고개찔/고갯찔]

‘ㄴ, ㄹ’ 같은 비음 앞에 사이시옷이 들어간 경우에는 ‘ㅅ→ㄷ→ㄴ’의 과정에 따라 사이시옷을 [ㄴ]으로 발음한다.

(예) 콧날[콘날→콘날] 아랫니[아랜니→아랜니]
뿔마루[뿔:마루→뿔:마루] 뱃머리[뺨머리→뺨머리]



사이시옷 뒤에 ‘이’ 또는 ‘야, 여, 요, 유’ 등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이 첨가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은 자연히 [ㄴ]으로 발음된다.

(예) 깻잎[깻넙] 나뭇잎[나문넙] 배깻잎[배깻넙]
뒷웃[뒤:넙] 도리깻잎[도리깻넙]



외래어 표기법

1. 외래어 표기법의 대상

우리는 ‘외국어는 어릴 때 배우는 게 좋다’거나 ‘지나친 외래어 사용을 삼가자’는 말을 하면서 ‘외국어’나 ‘외래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한다. 그러나 외래어와 외국어의 개념을 구분해서 설명해 내기란 쉽지가 않다. 또 특정한 낱말이 외국어인지 외래어인지를 판정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주스’나 ‘커피’, ‘바나나’, ‘텔레비전’처럼 국어 생활 속에 널리 사용되고, 또 바꾸어 쓸 수 있는 적당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외래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치킨’이나 ‘스커트’, ‘키’, ‘루머’ 따위 낱말들은 딱히 외래어인지 외국어인지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 국어 단어로 인정하기엔 아직 어색한 면이 있으나 ‘닭고기’나 ‘치마’, ‘열쇠’, ‘소문’ 등으로 바꾸어 쓰기에는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을 보면 ‘외국어’는 ‘모국어’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가리키는 말이고,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말’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이 같은 정의를 따르면 ‘외국어’는 남의 나라 말이지만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비롯되긴 하였으나 국어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특정 단어가 외래어인지 외국어인지를 판정하기는 어렵다. ‘국어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말’이라는 판단을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어 어휘가 우리말의 외래어로 정착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외래어는 원래 언어에서 지니고 있던 특징을 잃어버리고 우리말에 동화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 동화의 정도가 흔히 외국어와 외래어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발음의 변화이다. 즉 외래어가 우리말에 들어와 쓰이게 되면 본래 발음이 유지되지 못하고 국어의 소리로 대체된다. 예를 들어 file이라는 영어 단어가 우리말 속에 들어오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f]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살짝 물었다가 놓으면서 내는 소리인



데, 우리말에는 이런 소리가 없으므로 그에 가장 가까운 소리인 ‘표’ 소리로 바뀌어 ‘파일’로 발음된다. 영어에서는 다른 소리인 [r]과 [l]도 모두 ‘ㄹ’로 바뀌어, 영어의 race와 lace는 모두 ‘레이스’가 된다. <마지막 잎새>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O Henry는 영어 발음이 [o henri]이고 한글 표기도 ‘오헨리’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리’를 [철리]로 읽는 발음 습관에 따라 흔히 [오헬리]로 발음한다.

외래어는 형태적으로도 우리말에 동화된다. 외래어 형용사나 동사가 우리말 속에서는 항상 접미사 ‘-하다’와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말 동사나 형용사의 특징은 문장 속에서 어미변화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먹다’는 항상 ‘먹은, 먹으니, 먹어서’ 등 어간과 어미가 결합된 형태로 사용된다. 외국어에서 온 동사나 형용사들도 우리말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려면 어미변화를 해야 하므로 항상 접미사 ‘-하다’와 결합한 형태로 쓰인다. 예를 들어 영어 형용사 smart는 우리말 속에서 항상 ‘스마트한’, ‘스마트하여’, ‘스마트하게’ 따위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좀 더 흥미로운 변화는 의미의 측면에서 나타난다. 대부분의 외래어들은 본래 의미와는 다른 뜻으로 사용된다. ‘미팅’이나 ‘부츠’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meeting은 영어에서 ‘모임’이나 ‘회의’를 뜻하지만 국어에서는 ‘남녀가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미팅’의 ‘팅’만을 따로 떼어내 ‘소개팅’, ‘맞선팅’, ‘폰팅’ 같은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boots는 영어에서 온갖 종류의 ‘장화’를 두루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비 오는 날 신거나 작업용으로 신는 고무장화는 ‘부츠’라고 하지 않는다. 주로 여성들이 신는 목이 긴 구두를 가리키는 말로만 사용된다.

외래어는 그에 대응하는 적당한 우리말 용어가 없어서 다른 나라 말을 빌려다 쓰는 것으로 대개 위에 제시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실리거나 교과서에 사용되는 외래어들은 대체할 우리말 용어가 없는지, 얼마나 널리 사용되고 있는지, 동화의 정도는 어떠한지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법’의 표기 대상은 완전히 우리말로 정착한 소수의 ‘외래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최근에 우리말에 들어와서 어떻게 표기해야 좋을지 모르는 낯선 외국어들과 외국의 인명·지명이 주요 표기 대상이다. 오



히려 오래 전에 들어와 국어의 일부가 된 전형적인 외래어들은 표기 혼동의 염려가 별로 없어서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바나나’나 ‘라디오’, ‘피아노’ 같은 예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표기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올바른 표기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의안’이나 ‘의제’라는 뜻의 agenda는 외래어로 정착될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어젠다’, ‘아젠다’, ‘어젠더’ 등 표기형이 혼란한 상태이므로 표기형 통일을 위해 심의를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외래어 용례 심의는 대개 진정한 ‘외래어’가 아닌, 단지 외국어에서 들어온 낱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 정착되지 않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한글 표기는 통일해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외래어 표기법의 목적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한글로 적는 방식을 정해 놓은 규칙이다. 우리 말을 적을 때에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기하듯이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항상 일정하게 적어야 한다. 외래어는 다른 나라 말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말소리가 우리말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런 말들을 일정한 규칙 없이 제각각 적도록 놓아둔다면 언어생활이 혼란해질 것이다. internet이란 낱말을 예로 들어 보자. 사람에 따라 ‘인터넷, 인터네트, 인터넬’ 등으로 달리 표기하게 될 것이고, 같은 개념을 지시하는 말이 표기가 이렇게 각각이라면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외래어 표기법’은 이렇게 다양한 어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외래어에 대해 표준어를 정해 주기 위한 규칙이다.

그런데 간혹 외래어 표기법을 외국어 교육과 연관 지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외래어 표기법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국어 발음이 형편없다는 것이다. [p]와 [f] 소리를 똑같이 ‘ㅍ’으로 적거나, [l]과 [r] 소리를 똑같이 ‘ㄹ’로 적도록 하는 외래어 표기법 탓에 한국 사람들이 이 소리들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대개 한글 자모를 변형시켜 사용자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f] 소리는 ‘ㅍㅎ’이나 ‘퐁’, [l] 소리는 ‘ㄹㄹ’ 같이 표기하자는 것이다.



외래어 표기와 관련하여 이러한 제안은 아주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930년대에 발간된 책자에 보면 ‘ㅇㅂㅣ터민’이나 ‘ㅇ표케이스’같은 표기가 종종 눈에 띈다. 여기서 ‘ㅇㅂ, ㅇ표’ 등은 고유어를 적을 때에는 사용되지 않던 자모들로 [v]나 [f]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부호들이다. 그러나 외래어를 적기 위해 새로운 문자나 부호를 사용하는 것은 이미 1933년에 공포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부터 엄격히 금지되어 왔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서도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는 것을 표기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외래어를 원음에 가깝게 적기 위해 새로운 부호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외래어 표기법의 목적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다. 외래어 표기의 목적은 국어 생활 속에 사용되는 외래어들을 통일된 방식으로 적기 위한 것이지, 외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영어에서 [kɔːfi]로 발음되는 단어를 ‘커피’, ‘코피’, ‘코오휘’ 등 제각각으로 적지 말고 ‘커피’라는 한 가지 형태로 고정시켜 적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로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가운데 표준 표기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외국어를 말할 때에도 그대로 발음하라는 것은 아니다. 만약 우리가 외국인과 영어로 말을 할 경우에는 [kɔːfi]의 정확한 영어 발음과 강세 위치 등을 따로 익혀서 제대로 발음해야 할 것이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외국어의 발음 표기를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쓴다는 것은 실제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렇게 만들어진 기호의 용도도 분명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우리말과는 다른 음운 체계를 가진 외국어의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새로운 문자나 부호를 만들어야 한다면, 세계 여러 언어들에서 사용되는 소리들을 적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호가 필요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영어만 두고 생각하더라도 [θ, ð, ɒ, ʃ, f, v] 등을 나타내는 문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문자로 국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3. 외래어 표기법 익히기

1) 자음 표기

- (1) ㄱ. 카페/*까페, 파리/*빠리, 가스/*까스, 버스/*빠스
 ㄴ. 서비스/*써비스, 세븐/*쎌븐, 재즈/*쎌즈, 모차르트/*모짜르트
 ㄷ. 빵, 껌, 마오쩌둥, 쑨원
 ㄹ. 빠파니(타이 지명), 푸켓(타이 지명), 호찌민(베트남 인명, 지명)

※ 외래어 표기를 할 때에는 된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말의 파열음은 소리 특징에 따라 예사소리(ㄱ, ㄷ, ㅂ), 거센소리(ㅋ, ㅌ, ㅍ), 된소리(ㄲ, ㄸ, ㅃ)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영어나 일본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어에는 유성음(b, d, g)과 무성음(p, t, k) 두 가지 구분만 있다.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유성 파열음은 예사소리에 무성 파열음은 거센소리에 대응시키고, 된소리는 쓰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어의 [k, t, p] 소리는 ‘ㅋ, ㅌ, ㅍ’으로, [g, d, b] 소리는 ‘ㄱ, ㄷ, ㅂ’으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프랑스어나 일본어, 러시아어 등 무성 파열음이 우리말 된소리에 가깝게 들리는 몇몇 언어 표기에는 거센소리 대신 된소리를 쓰자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무성 파열음 표기에는 거센소리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파열음뿐만 아니라 마찰음(ㅅ, ㅆ)과 파찰음(ㅈ, ㅊ, ㅊ) 표기를 할 때에도 된소리 글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씨스템, *쎌터, *쥘리히’ 같은 표기는 모두 잘못된 것이고, ‘시스템, 쎌터, 쥘리히’ 등으로 적어야 한다(1ㄴ). 다만 중국어 표기에는 ‘ㅆ’과 ‘ㅈ’을 사용한다. 또 ‘빵, 껌, 히로뽕, 빠라’ 같이 된소리로 굳어진 몇몇 낱말들에는 된소리 표기를 허용한다(1ㄷ). 그리고 자음에 3분 대립이 존재하는 타이어와 베트남어에는 파열음과 파찰음에 된소리 표기를 도입한다(1ㄹ).

- (2) 커피숍/*커피쑈, 디스켓/*디스켈, 코너킥/*코너킵



※ 외래어를 적을 때에는 받침 표기에 제약이 있다. 받침 글자로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의 일곱 가지만 쓸 수 있다. 여기 제시되지 않은 다른 글자들—예를 들면 ‘ㄷ, ㅋ, ㅌ, ㅍ, ㅊ, ㅍ, ㅍ, ㅍ’ 등—은 받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외래어와 달리 고유어 표기에는 이런 제약이 없다. ‘잎, 꽃, 밭, 값’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고유어에 대해서는 겹자음을 포함한 모든 자음들이 받침으로 사용된다. 고유어를 표기할 때 ‘ㄷ, ㅅ, ㄷ, ㅋ, ㅌ, ㅍ, ㅎ’ 등을 받침으로 쓰는 이유는, 그것이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대표음으로 소리 나더라도 모음 앞에 올 때에는 그 음가(音價)대로 발음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즉 ‘잎’을 ‘입’으로 쓰지 않는 이유는 ‘잎이[이피]’, ‘잎을[이플]’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ㅍ’ 소리가 발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래어의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도 [커피쇼피], [커피쇼페서]와 같이 발음하지 않고 항상 [커피쇼비], [커피쇼베서]로 발음하므로 ‘커피쇼’으로 표기할 근거가 없다. ‘커피쇼’이라고 써야 한다.

(3) ㄱ. 로봇/*로보트, 카펫/*카페트, 인터넷/*인터넷

ㄴ. 테이프/*테입/*테잎, 케이크/*케익/*케익, 플루트/*플룻/*플룻

ㄷ. 매트리스/*맷리스, 투르크메니스탄/*투룩메니스탄

ㄹ. 넷/*넷, 셋/*셋/*셀, 매트/*맷

ㅁ. 블라디보스토크/*블라디보스톡, 티베트/*티벳, 아베크/*아벡

※ 무성 파열음 [p, t, k]가 자음 앞이나 어말에 올 때에는 다음 규칙을 따른다. ①어말이나 자음 앞 무성 파열음 바로 앞의 모음이 짧은 모음일 때에는 받침으로 적는다(3ㄱ). 긴 모음이나 이중 모음일 경우에는 ‘ㅡ’를 받쳐 적는다(3ㄴ). ②바로 앞 모음이 짧은 모음이더라도, 무성 파열음 뒤에 비음(m, n)이나 유음(r, l)이 있는 경우에는 ‘ㅡ’를 받쳐 적는다(3ㄷ). 예외적으로 1음절어이면서 어말 무성 파열음 [t]로 끝나는 말은 그 앞 모음이 짧은 모음이라도 ‘ㅡ’를 받쳐 한 음절을 늘려 적는 경우가 많다(3ㄹ). 영어 이외 다른 언어에서 온 말의 경우는 어말 파열음을 무조건 파열시켜 ‘ㅡ’를 받쳐 적는 것이 원칙이다(3ㅁ).



(4) ㄱ. 헤드/*헛, 허브/*협, 개그/*객

ㄴ. 핸드백/*핸드배그, 웹/*웨브

※ 유성 파열음 [b, d, g]가 자음 앞이나 어말에 올 때에는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지 않고 항상 ‘으’를 붙여 적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백’, ‘웹’ 등 이미 굳어진 말들은 예외를 인정하여 유성 파열음을 받침으로 적는다.

(5) 파이팅/*화이팅, 패밀리/*웨미리,

프라이/*후라이, 피트니스/*휘트니스

※ [f] 소리는 항상 ‘표’으로 적는다. 일본식 표기의 영향을 받아 [f]를 ‘후’나 ‘호’로 적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잘못된 것이다. [f]와 [p] 소리는 우리말에서 모두 ‘표’으로 적으므로 fan과 pan은 국어에서 똑같이 ‘팬’이 되어 구분이 되지 않는다.

(6) ㄱ. 대시/*대쉬, 플래시(flash)/*플래쉬/*후래쉬

ㄴ. 슈미트/*시미트/*쉬미트

ㄷ. 아인슈타인/*아인시타인/*아인쉬타인, 슈바이처/*시바이처,

타슈켄트/*타시켄트/*타쉬켄트

※ [ʃ]는 영어의 경우 자음 앞에서는 ‘슈’로(6ㄴ), 어말에서는 ‘시’로(6ㄱ) 적는다.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새, 셔, 세, 쇼, 슈, 시’로 적는다. 어말의 [ʃ]는 ‘대쉬, 잉글리쉬, 플래쉬, 리더쉽’에서처럼 ‘쉬’로 적는 일이 많으나 ‘대시, 잉글리시, 플래시, 리더십’으로 적어야 한다. ‘fashion[fæʃən], ‘shopping[ʃɒpɪŋ], ‘Shakespeare[ʃeɪkspiə]’ 등의 [ʃ]는 뒤의 모음과 합쳐져 ‘패션’, ‘쇼핑’, ‘셰익스피어’로 적는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서 온 말은 [ʃ]를 언제나 ‘슈’로 적는다(6ㄷ). 따라서 독일 사람 이름인 ‘Einstein’은 ‘아인슈타인’으로 적고,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Tashkent’는 ‘타슈켄트’로 적는다.



(7) 브리지/*브릿지, 스위치/*스윗치, 스케치/*스켓치, 케첩/*켓첩/*케첩

※ [tʃ, dʒ]은 모음 앞에서는 ‘즈, 츠’으로 적고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지, 치’로 적는다. 앞의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고 이 소리들이 올 때에 흔히 앞에 ‘스’ 받침을 넣어 적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8) 플라자/*프라자, 클리닉/*크리닉, 클립/*크립, 살롱/*싸롱

※ [r]과 [l] 소리는 구분 없이 ‘르’로 적는다. 다만 낱말中间的의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뒤따르지 않는 비음(m, n, ŋ) 앞에 올 때에는 ‘르’를 겹쳐 ‘르르’로 적는다. 따라서 cream은 ‘크림’으로 적지만 clean은 ‘*크린’이 아니라 ‘클린’으로 적어야 한다.

2) 모음 표기

(1) 센터/*센타/*쎄타, 디지털/*디지탈/*디지틀, 터미널/*터미날

※ 영어는 철자와 소리와의 관계가 항상 일정하지 않으므로 발음기호를 확인해서 그것에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ə]는 영어에서 강세가 없는 음절에 오는 모음으로, 우리말의 ‘어’와 ‘으’의 중간 소리처럼 들리는데,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이를 ‘어’로 적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center[séntə]는 ‘쎄터’로, digital[dídzítəl], terminal[té:minəl]은 각각 ‘디지털’과 ‘터미널’로 적어야 한다. 특히 digital, terminal 표기에서 철자 a에 이끌려 ‘*디지탈, *터미날’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이다.

(2) ㄱ. 콘서트/*컨서트, 콘택트/*컨택트, 콘텐츠/*컨텐츠/*칸텐츠

ㄴ. 컨디션/*콘디션, 에어컨/*에어콘, 컨트롤/*콘트롤

ㄷ. 톱/*탑, 솟/*샵, 보디/*바디

※ [ɔ]는 [o]와 구분하지 않고 ‘오’로 적는다. [ɔ] 소리는 우리말의 ‘오’보



다는 입을 더 크게 벌려 ‘어’에 가깝게 소리 내는 것이라서 사람에 따라 ‘오’로 적기도 하고 ‘어’로 적기도 하나 ‘오’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2ㄱ). 반대로(2ㄴ)에 있는 예들은 ‘어’로 적어야 하는데 흔히 ‘오’로 적는 것들이다. 이와 같이 표기를 혼동하는 이유는 외국어의 발음보다는 철자를 엄두에 두고 외래어 표기를 하기 때문이다. concert, contact, contents의 con을 ‘콘’으로 적으니까, condition, control 따위의 con도 역시 ‘콘’으로 적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2ㄱ)의 예들은 [kɒn]으로 소리 나니까 ‘콘’으로 적은 것이지, 철자가 con이라서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다. (2ㄴ)의 예들은 발음이 [kə n]이므로 ‘컨’으로 적는 것이 맞다. 영어에서 이 구분은 강세의 위치와 관계가 있다. 모음 o가 강세 음절인 경우에는 [ɔ]로 소리 나는 경우가 많으나, 강세가 없는 음절에 위치할 때에는 약화되어 [ə]로 소리 나게 되고, 한글로는 ‘어’로 적게 된다. 강세 위치에 따라 모음의 음가가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종종 같은 단어에서 파생한 말들의 표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irony는 ‘아이러니’로 ironical은 ‘아이로니컬’로 적어야 한다. irony[áirəni]는 강세가 1음절에 있으므로 2음절의 모음 o는 약화되어 [ə]로 발음되므로 ‘아이러니’로 적는다. ironical[airɔ́nikəl]에서는 강세가 2음절로 이동하면서 모음 o가 [ɔ]로 발음되므로 ‘아이로니컬’로 적는 것이 맞다.

(2ㄷ) 예에서처럼 [ɔ] 소리를 ‘아’로 적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는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전통적으로 [ɔ]로 발음하던 많은 단어들이 현대 미국 영어에서는 [ɑ](우리말의 ‘아’ 소리와 비슷)로 발음되는데, 이것의 영향을 받은 표기들이다. 이런 경우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오’로 적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top, shop은 *탑, *샵이 아니라 톱, 숑으로 적는 것이 맞다.

(3) 컬러/*칼라, 커버/*카바, 허니/*하니

※ 위의 예들은 [ʌ] 소리를 가지는 단어들이다. [ʌ]는 듣기에 따라 ‘아’로 들리기도 하고 ‘어’로 들리기도 하는데, 표기 원칙에 따르면 ‘어’로 적어야 한다. 일본식 표기의 영향을 받아 *칼라, *카바 등의 표기가 더러 눈에 띄는데, ‘컬러, 커버’로 적어야 옳다.



- (4) ㄱ. 보너스/*보우너스, 옐로/*옐로우, 볼링/*보울링, 윈도/*윈도우
 ㄴ. 타워/*타우어, 파워/*파우어, 아이젠하워/*아이젠하우어

※ 소릿값이 다른 모음이 둘 이상 결합한 중모음은 각각의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는다. 따라서 [ai], [ei], [au] 등은 각각 ‘아이, 에이, 아우’ 따위로 적는다. 다만 [ou]는 ‘오’로(4ㄱ), [auə]는 ‘아워’로(4ㄴ) 적는다. 이들은 ‘오우’나 ‘아우어’로 적을 경우에 원음에서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오’, ‘아워’로 적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boat[bout], coat[cout], bonus[bóunəs]는 *보우트, *코우트, *보우너스’로 적지 않고, ‘보트, 코트, 보너스’로 적는다. Eisenhower도 *아이젠하우어가 아니라 ‘아이젠하워’로 적는 것이 맞다. 특히 yellow[jélou]나 window[wíndou] 같은 경우는 철자에 있는 w에 끌려 *옐로우, *윈도우’로 적는 경우가 많으나 옳지 않다. ‘옐로, 윈도’로 적어야 한다.

- (5) ㄱ. 오사카/*오오사카/*오오사까, 뉴욕/*뉴우요오크, 요크셔/*요오크셔
 ㄴ. 알코올/*알콜, 아밀라아제/*아밀라제, 알마아타/*알마타

※ 외래어를 표기할 때 장모음을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오사카’, *뉴우욕’ 등 모음을 겹쳐 쓴 표기는 틀린 형태이며 각각 ‘오사카’, ‘뉴욕’으로 적어야 옳다. 고유어나 한자어 중에도 ‘밤[栗] 對 밤:[夜]’, ‘눈[眼] 對 눈:[雪]’ 등 모음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구분되는 단어 쌍들이 있으나 이들을 *바암, *누운’으로 표기하지 않는 것처럼 외래어에서도 장음을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다만 (5ㄴ)에 있는 예들은 예외적으로 모음을 겹쳐 적는 것을 허용하는 예들이다. ‘알코올’은 ‘메탄올, 에탄올’ 따위 용어들과 관련성을 밝혀 주기 위해 예외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아밀라아제’라는 효소의 명칭도 ‘락타아제, 말타아제’ 등 다른 효소들과의 관련성을 보이기 위해 모음의 겹침을 허용한 것이다. ‘알마아타’의 경우는 원어가 Alma Ata이므로 *알마타’가 아니라, ‘알마아타’로 적게 된다.



(6) 주니어/*쥬니어, 레저/*레저, 찬스/*찬스, 벤처/*벤처

※ 외래어를 적을 때에는 ‘자, 저, 조, 주, 차, 처, 초, 추’ 등 ‘ㅈ’이나 ‘ㅊ’ 뒤에 이중 모음이 결합한 형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저, 조, 주, 차, 처, 초, 추’로 적어야 한다. 우리말에서 ‘ㅈ, ㅊ’ 같은 경구개음은 그 뒤에서 이중 모음과 단모음이 구분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다른 자음이나 모음 뒤에서는 ‘모기/묘기’, ‘우리/유리’처럼 단모음 표기를 이중 모음으로 바꾸면 전혀 다른 말이 된다. 그러나 경구개음 뒤에서는 ‘자’와 ‘자’, ‘저’와 ‘저’ 등이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잠자다’를 [잠자다]로 발음하거나 ‘전화’를 [전화]로 말해도 뜻을 혼동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외래어를 적을 때 발음상 구분되지 않는 ‘자, 차’ 등의 표기를 쓰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고유어의 표기에서는 경구개음이 이중 모음과 결합한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가저’, ‘다쳐’와 같은 경우가 그것인데, 이는 ‘가지어’, ‘다치어’가 줄어서 된 형태라는 문법적 사실을 보이기 위함이지 이들이 ‘가저’나 ‘다쳐’와 발음상 구분되기 때문이 아니다.

3) 기타 표기 세칙

(1) 아웃렛/*아울렛/*아우틀렛, 로그인/*로긴, 메이크업/*메이컵

※ 원어가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복합어를 한 단어로 보아 표기하면 이들이 각각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와 아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를 살려서 적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log in’이란 말은 ‘로그’와 ‘인’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말이므로 ‘로그인’으로 적는다. 원어의 발음이 ‘*로긴’, ‘*로가웃’에 가깝게 들리더라도 그렇게 적지 않는다.

(2) ㄱ. Charles: 찰스(영), 샤를(불)

Michael: 마이클(영), 미하엘(독, 러), 미카엘(덴)



ㄴ. San Jose: 산호세(코스타리카), 새너제이(미국)

※ 외래어 표기는 현지 발음에 가깝게 적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원어 철자가 같은 말들이라도 한글로는 달리 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Charles는 그것이 영어 이름인지, 프랑스 어 이름인지에 따라 한글 표기가 달라진다. 영어권 사람의 이름이라면 ‘찰스’라고 해야 하지만 프랑스 어 사용 지역의 사람 이름이라면 ‘샤를’이라고 적는다. 지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세계 지도에 보면 San Jose라고 적혀 있는 도시가 두 곳 있다. 하나는 코스타리카의 수도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도시이다. 이들은 비록 같은 철자를 쓰지만 두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한글로는 전혀 다르게 적힌다. 코스타리카는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 지역이므로 그 수도는 에스파냐어 표기법에 따라 ‘산호세’라고 적어야 하며, 미국 도시는 영어 발음 [sænəjei]에 따라 ‘새너제이’로 적는다.

(3) ㄱ. 라디오/*레이디오, 게놈/*지놈, 시보레/*세브럴레이

ㄴ. 컷/커트, 타입/타이프

※ 우리말에 들어온 지 오래되어 표기와 발음이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대로 적도록 한다. radio는 발음이 [rédiðu]이므로, 외래어 표기법 원칙에 따르면 ‘레이디오’가 되어야 하지만 이미 ‘라디오’로 굳어진 말이므로 ‘라디오’를 옳은 표기로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이름인 Chevrolet는 프랑스 어에서 온 말로 [ʃevrəléi]라는 발음에 따르면 ‘*세브럴레이’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일본어를 통해서 ‘시보레’로 들여와 오랫동안 쓰여 왔던 관용을 인정해 ‘시보레’로 적도록 한다. (3ㄴ)의 예들은 관용을 고려해서 두 가지 표기형을 다 맞는 것으로 인정하고 각각의 표기형에 다른 뜻을 부여한 것들이다. 같은 영어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지만 표기와 쓰임이 우리말에 달리 정착한 상황을 반영한 예들이다. ‘커트’는 머리를 자르거나 탁구 등의 운동에서 공을 깎아 치는 것을 가리킬 때 쓴다. ‘컷’은 영화 따위의 장면이나 작은 삽화를 뜻할 때 쓴다. ‘타입’은 어떤 형태나 유형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타이프’는 ‘타이프라이터’의 줄임말로 타자기를 가리킨다.



- (4) ㄱ. 鹿兒島: 가고시마/*녹아도, 東京: 도쿄/동경
 伊藤博文: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
 ㄴ. 杭州: 항저우/*항주, 北京: 베이징/북경
 孔子: 공자/*콩쯔, 孟子: 맹자/*멍쯔
 朱鎔基: 주룽지/*주용기, 張國榮: 장귀룽/*장국영

※ 한자로 적힌 중국이나 일본의 인명, 지명에 대해서는 우리 한자음으로 읽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으나, 현행 외래어 표기법 원칙에 따라 원어의 발음을 따라 적는다. 예를 들어 일본의 지명 ‘鹿兒島(かごしま)’의 우리 한자음은 ‘녹아도’이지만 일본어의 발음을 따라 ‘가고시마’로 적는다. 일본 인명도 마찬가지로 ‘풍신수길’, ‘이등박문’ 대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토 히로부미’로 적는다.

중국 인명 중에서 고대인의 경우는 현대 중국어 발음대로 표기하지 않고 ‘공자, 맹자, 왕안석’ 등 우리 한자음대로 표기한다. 현대인의 경우는 중국어 발음에 맞추어 ‘주음부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서 표기한다. 따라서 ‘張國榮(Zhāng Guó róng)’은 ‘장국영’이 아니라 ‘장귀룽’으로, ‘張藝謀(Zhāng Yì móu)’는 ‘장예모’가 아니라 ‘장이머우’로 표기해야 한다. 중국 인명을 표기할 때 고대인과 현대인의 구분은 신해혁명(1911년)을 기준으로 한다. 중국의 지명은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長安: 장안/*창안),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국과 일본 지명 중에서 우리 한자음대로 읽는 것이 친숙한 몇몇 예들에 대해서는 현지 발음에 따른 표기와 우리 한자음 표기를 둘 다 인정한다. ‘북경’과 ‘베이징’, ‘동경’과 ‘도쿄’, ‘상해’와 ‘상하이’, ‘요동반도’와 ‘랴오둥 반도’, ‘발해만’과 ‘보하이 만’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참고> 틀리기 쉬운 외래어 표기

원어	맞는 표기	틀린 표기
accessory	액세서리	악세사리
ad lib	애드리브	애드립
barbecue	바비큐	바베큐
battery	배터리	빠떼리, 뻗데리, 밧데리
biscuit	비스킷	비스켓
blind	블라인드	브라인드
body	보디	바디
buffet(프)	뷔페	부페
business	비즈니스	비지니스
cake	케이크	케익, 케익
cardigan	카디건	가디건
catalog	카탈로그	카다로그, 가다록
centimeter	센티미터	센치미터
chocolate	초콜릿	초코렛, 초콜렛, 초컬릿, 초코렛
collection	컬렉션	콜렉션
color	컬러	칼라
cover	커버	카바
cunning	커닝	컨닝
contents	콘텐츠	컨텐츠
curtain	커튼	커텐
data	데이터	데이타
digital	디지털	디지탈, 디지틀
encore(프)	앙코르	앵콜
enquête(프)	앙케트	앙케이트
fighting	파이팅	화이팅
flash	플래시	후레시, 후레쉬
flute	플루트	플룻, 플룻



원어	맞는 표기	틀린 표기
fresh	프레시	프레쉬, 후레쉬, 후레시
frypan	프라이팬	후라이판, 후라이팬
gas range	가스레인지	가스렌지
giant	자이언트	자이안트, 자이언트
Hollywood	할리우드	할리웃, 헐리우트, 헐리웃
juice	주스	쥬스
Las Vegas	라스베이저스	라스베가스
makeup	메이크업	메이컵
mania	마니아	매니아
massage	마사지	맛사지
motor	모터	모타
network	네트워크	네트웍, 네트웬
nonsense	난센스	넌센스
nylon	나일론	나이론
pamphlet	팸플릿	팜플렛
panda	판다	팬더
panel	패널	판넬
placard	플래카드	프레카드, 플랭카드
plaza	플라자	프라자
radar	레이더	레이다
royal	로열	로알
sash	새시	샤시, 샷슈, 샷시
sausage	소시지	소세지
set	세트	셋, 셋트, 셀
shutter	셔터	샷다, 샷따, 샷타
sofa	소파	쇼파
soup	수프	스프, 슝
special	스페셜	스페샬
staff	스태프	스텝, 스탕



원어

sunglass

supermarket

symbol

talent

tape

ton[豚] kasu

total

workshop

맞는 표기

선글라스

슈퍼마켓

심벌

탤런트

테이프

돈가스

토틸

워크숍

틀린 표기

썸그라스

수퍼마켓, 수퍼마켓, 슈퍼마켓

심볼

탈렌트

테프, 테입, 테잎

돈까스

토탈

워크샵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2000년 7월에 바뀌었다. 이 글에서는 로마자 표기법 개정의 의의를 짚어 보고 새 로마자 표기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종전의 로마자 표기법(1984)

현행 표기법 이전의 로마자 표기법은 1939년에 만들어진 매쿰라이샤워 표기법과 사실상 같다.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은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기 위한 체계적 방법으로 1939년에 미국인 매쿰과 라이샤워가 공동으로 만든 것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방식이다.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은 영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표기법이었으나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였다.

종전의 로마자 표기법은 한국어의 음운 대립을 로마자에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어의 파열음은 예사소리(평음)-거센소리(격음)-된소리(경음)의 대립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로마자 표기법은 이 세 가지 대립을 로마자 표기에도 반영했어야 했다. 그러나 종전의 로마자 표기법은 그러지 못하였다.

종전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예컨대 ‘다달’은 *tadal*로 표기하면서 ‘달, 탈’은 *tal, t'al*로 표기하였다. 즉, ‘ㄷ’은 어두에서는 *t*로, 어중에서 유성음으로 소리 날 때는 *d*로 구분하면서 ‘ㄷ’과 ‘ㅌ’은 똑같은 *t*로 하되 ‘ㅌ’에 어갯점을 넣었을 뿐이었다. 반드시 구별해야 할 ‘ㄷ’과 ‘ㅌ’의 구별은 확실히 하지 않으면서 구별할 필요가 없는 ‘다달’의 두 ‘ㄷ’에는 완전히 다른 기호를 부여한 표기법이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이다.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은 한국어의 발음을 영어 사용자의 귀에 들리는 대로 적은 표기법으로서 영어 사용자들끼리 쓰고 말 거라면 모르지만 한국인들이 따르기에 매우 불편한 표기법이 아닐 수 없다. ‘도동’을 *Todong*로 적어야 한다고 한국인들에게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왜 그렇게 적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도동’은



Dodong이라야 따라 쓰기 쉽다. 혹 Totong이라면 몰라도 Todong은 도무지 따라 쓸 수 없다. 이러한 기형적인 표기법을 단지 서양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쓰기로 1984년 초에 정책 결정을 하였고 한국의 도로 표지판의 지명은 지난 16년간 이대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반달표와 어갯점 등 특수 부호에 대한 불만은 높아만 갔고 결국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아직도 국내에는 매कु라이샤워 표기법에 미련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한국어를 그토록 왜곡한 로마자 표기법이 어떻게 60년간이나 쓰여 신기할 정도인데 아직까지도 그 표기법에 집착하는 이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유감스럽다. 로마자 표기법은 애초에 외국인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는 만큼 외국인들에 의해 그들의 취향에 맞는 표기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후에 해당 언어의 특성이 잘 반영된 로마자 표기법이 나왔어야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못하였다. 1959년에 문교부가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은 매कु라이샤워 표기법의 문제점을 극복한 한국적인 표기법이었으나 지나치게 한국인의 편의만을 중시한 나머지 외국인들의 호응을 얻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2000년에 고시된 새 로마자 표기법은 매कु라이샤워 표기법을 대체할 목적으로 태어났다. 한국어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된 로마자 표기법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표기법이 전 세계에 두루 널리 쓰여 로마자 표기가 통일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 주어진 과제이다.

2. 새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특징

새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종전의 로마자 표기법과 같이 표음법이다. 즉, 국어의 표준 발음을 로마자로 옮기는 방식이다. ‘신라, 북문’과 같은 말을 글자대로 Sinla, Bugmun으로 적지 않고 발음인 [실라], [붕문]에 따라 Silla, Bungmun으로 적는 방식이다. 글자대로 적는 것은 국어의 발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국어의 철자 정보를 보여 주는 것이어서 국어 발음을 알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의 기대에 어긋난다. 발음은 어차피 따로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현실적으로 로마자 표기를 보고 발음을 시도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발음을 보여 주는 것이 더 절실하다.



발음에 따르되 일부 발음 현상은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우선 된소리 되기이다. ‘압구정’은 [압꾸정]으로 발음되지만 Apkkujeong으로 적지 않고 Apgujeong로 적는다. ‘팔당’, ‘일산’도 마찬가지로 발음은 [팔땅], [일싼]이지만 Palttang, Ilssan으로 하지 않고 Paldang, Ilsan으로 한다. 된소리되기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된소리되기 현상이 예측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고개’의 발음이 [당고개]인지 [당꼬개]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Danggogae, Dangkkogae와 같이 동일 지명의 표기가 두 가지가 될 우려가 있는데 이는 막아야 한다.

거센소리되기도 발음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묵호’의 경우 발음은 [무코]이기 때문에 Muko로 적어야 옳다. 그러나 ‘호’의 ‘ㅎ’ 부분의 표기가 없어지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ㅎ’을 살려서 적기로 하였다.

종전 로마자 표기법과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진 것은 ‘ㄱ, ㄷ, ㅂ, ㅈ’이 어두에 왔을 때에 k, t, p, ch가 아니라 g, d, b, j가 된 것이다. ‘ㄱ, ㄷ, ㅂ, ㅈ’은 k, t, p, ch가 되어 어젯점이 없어졌다. 모음의 경우 다른 모음은 변동이 없고 ‘어’, ‘으’가 ǝ, ǘ에서 eo, eu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더불어 ‘의’도 ȳ에서 ui로 바뀌었다. 그 밖에 ‘ㅅ’이 종전에는 뒤에 ‘ㅣ’ 모음이 왔을 때만은 sh로 표기되던 것을 어떤 경우에도 s로 통일한 점, ‘ㅈ’이 tch에서 jj로 바뀐 것도 변한 점이다.

외형적인 면에서는 반달표와 어젯점이 없어진 것을 새 로마자 표기법의 특징으로 볼 수 있지만, 개정의 기저에는 영어 사용자들 청각 인상 중심의 왜곡된 로마자 표기법을 한국어의 특징이 제대로 반영된 로마자 표기법으로 바꾸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로마자 표기법에 관해 방황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오로지 한국인의 편의만 고려한 표기법도 시행해 보았고 그 반대로 극단적으로 서양인 중심인 표기법도 써 보았지만 모두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제 합리적인 표기법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다시는 개정되는 일이 없도록 새 로마자 표기법을 보급하여 확고히 정착시켜야 하겠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 (2000. 7. 7.)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ㅞ	ㅟ	ㅠ	ㅡ
a	eo	o	u	eu	i	ae	e	oe	wi

2.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	ㅝ	ㅟ	ㅓ	ㅗ	ㅜ	ㅠ	ㅡ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붙임 1] ‘ㅡ’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보기) 광희문 Gwanghuimun

[붙임 2]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ㅍ	ㅂ	ㅃ	ㅍ
g, k	kk	k	d, t	tt	t	b, p	pp	p	p



2. 파찰음

ㅈ	ㅉ	ㅊ
j	jj	ch

3. 마찰음

ㅅ	ㅆ	ㅎ
s	ss	h

4. 비음

ㄴ	ㅁ	ㅇ
n	m	ng

5. 유음

ㄹ
r, l

[붙임 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보기)

구미	Gumi	영동	Yeongdong
백암	Baegam	옥천	Okcheon
합덕	Hapdeok	호범	Hobeop
월곶[월곶]	Wolgot	벚꽃[벚꽃]	beotkkot
한밭[한밭]	Hanbat		

[붙임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보기)

구리	Guri	설악	Seorak
칠곡	Chilgok	임실	Imsil
울릉	Ulleung	대관령[대관령]	Daegwallyeong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보기)

백마[백마]	Baengma	신문로[신문노]	Sinmunno
종로[종노]	Jongno	왕십리[왕심니]	Wangsimni
별내[별래]	Byeollae	신라[실라]	Silla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보기)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알약[알락] allyak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보기)

해돋이[해도지]	haedoji	같이[가치]	gachi
맞히다[마치다]	machida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보기)

종고[조코]	joko	놓다[노타]	nota
잡혀[자펴]	japyeo	낱지[나치]	nachi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보기)

목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
----------	------------------

[불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압구정 Apgujeong	낙동강 Nakdonggang
---------------	-----------------



죽변 Jukbyeon

낙성대 Nakseongdae

합정 Hapjeong

팔당 Paldang

샛별 saetbyeol

울산 Ulsan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보기)

중앙 Jung-ang

반구대 Ban-gudae

세운 Se-un

해운대 Hae-undae

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보기)

부산 Busan

세종 Sejong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안의 표기를 허용함.)

(보기)

민용하 Min Yongha (Min Yong-ha)

송나리 Song Nari (Song Na-ri)

(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한복남 Han Boknam (Han Bok-nam)

홍빛나 Hong Bitna (Hong Bit-na)

(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제주도	Jeju-do
의정부시	Uijeongbu-si	양주군	Yangju-gun
도봉구	Dobong-gu	신창읍	Sinchang-eup
삼죽면	Samjuk-myeon	인왕리	Inwang-ri
당산동	Dangsan-dong	종로 2가	Jongno 2(i)-ga
봉천1동	Bongcheon 1(il)-dong		
퇴계로 3가	Toegyro 3(sam)-ga		

[붙임]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보기)

청주시	Cheongju	함평군	Hampyeong
순창읍	Sunchang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보기)

남산	Namsan	속리산	Songnisan
금강	Geumgang	독도	Dokdo
경복궁	Gyeongbokgung	무량수전	Muryangsujeon
연화교	Yeonhwagyo	극락전	Geungnakjeon
안압지	Anapji	남한산성	Namhansanseong
화랑대	Hwarangdae	불국사	Bulguksa
현충사	Hyeonchungsa	독립문	Dongnimmun
오죽헌	Ojukheon	축석루	Chokseongnu
종묘	Jongmyo	다보탑	Dabotap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보기)

집	jib	짚	jip
밖	bakk	값	gabs
붓꽃	buskkoch	먹는	meogneun
독립	doglib	문리	munli
물엿	mul-yeos	굳이	gud-i
종다	johda	가곡	gagog
조랑말	jolangmal	없었습니다	eobs-eoss-seubnida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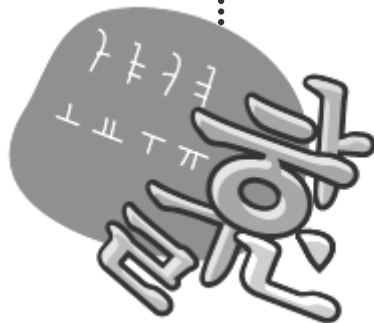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2000. 7. 7.)부터 시행한다.
- ②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 ③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제 2 부

윤택한 국어 생활

1. 우리말 다듬기 | 155
2. 문장 바로 쓰기 | 183
3. 공문서 바로 쓰기 | 193
4.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 | 207
5. 협력적 의사소통 | 219
6.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이해와 훈련 | 233



우리말 다듬기

우리나라의 국어 순화 정책에서 ‘순화’란 우리말 속에 있는 잡스러운 말을 없애서 우리말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나, 복잡하고 난해한 말을 단순하고 쉽게 하는 것이었다. 국어 순화라 하면 ‘순수 우리말 쓰기’나 ‘쉬운 우리말 쓰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 온 것이다. 서양식 외래어·외국어, 일본어 투 용어를 순수 우리말로 바꾸는 일이 ‘순수 우리말 쓰기’에 해당하고, 난해한 한자어와 외국어·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일이 ‘쉬운 우리말 쓰기’에 해당한다.

우리말에서 ‘순화’는 상황에 따라 ‘純化’를 가리키기도 하고 ‘醇化’를 가리키기도 한다. 다른 한자어이지만 둘 다 ‘잡스러운 것을 걸러서 순수하게 함’을 뜻한다. 그러나 국어나 언어와 호응하여 쓰일 때에는 ‘純化’보다는 ‘醇化’가 더 자연스럽다. ‘국어 순화(國語醇化)’, ‘언어 순화(言語醇化)’란 말이 처음 쓰이기 시작한 것은 광복 직후이다. 광복 직후 ‘국어 순화’의 주된 관심사는 ‘일제 잔재 언어(일본어 투 용어)’의 순화였다. 당시에는 ‘순화(醇化)’보다 ‘정화(淨化)’가 더 널리 쓰였다. ‘정화’가 ‘순화’에 비해 윤리적인 면이 더 강조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엄격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순화’와 ‘정화’는 각각 영어의 ‘refinement’와 ‘purification’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순화’란 말이 일반화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이다.

그런데 ‘순화’를 쓰든 ‘정화’를 쓰든 이들은 모두 ‘순수 우리말 쓰기’와 더 관련되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국어 순화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쉬운 우리말 쓰기’는 크게 고려하지 않은 말이다. 즉, ‘순화’와 ‘정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국어 순화’라 하여 가리켜 왔던 ‘순수 우리말 쓰기’나 ‘쉬운 우리말 쓰기’ 가운데 전자에 더 주안점을 둔 말이다. 이는 불가피하게 ‘국어 순화’가 서양식 외래어·외국어와 일본어 투 용어를 순수 우리말로 바꾸는 일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해를 낳았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일반화된 ‘순화’는 일반 국민 대부분에겐 여전히 생소하기만 한 말이다.

반면 최근 들어 ‘순화’와 ‘정화’를 달리 이르는 ‘우리말 다듬기’는 ‘순수 우



리말 쓰기'나 '쉬운 우리말 쓰기'를 두루 아우를 수 있는 말이다. 즉, '우리말 다듬기'는 서양식 외래어·외국어, 일본어 투 용어를 순수 우리말로 바꾸고, 난해한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일을 모두 가리킬 수 있는 말이다. 게다가 '우리말 다듬기'는 삼척동자라도 그 의미를 대강 짐작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이다. 따라서 '순화'와 '정화'의 기본 정신에 걸맞은 말이라 할 수 있다.

1. 외래어·외국어 다듬기

1.1.

우리나라의 우리말 다듬기 정책은 지나칠 정도로 우리말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 즉 '순수 우리말 쓰기'에 치우쳐 있다. 광복 직후 '국어 정화(國語淨化)'라 하여 대대적으로 일제 잔재 용어(일본어 투 용어)를 대대적으로 순수 우리말로 바꾼 일은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일제 잔재 용어는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정상적인 언어 접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입된 것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일방적, 강제적으로 유입된 말이기 때문이다.

사실 광복 직후 일본어 투 용어에 대한 '정화(淨化)' 차원의 우리말 다듬기가 '순수 우리말 쓰기'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실효를 거둘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우리말 다듬기는 프랑스의 순화 정책과 약간 유사한 점이 있다. 프랑스에서도 자국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순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는 '순수 자국어 쓰기'로서 우리의 '순수 우리말 쓰기'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본에서 벌이는 순화 정책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일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양식 외래어·외국어의 차용에 관한 한 거의 방치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던 일본이 2003년부터 일본 국립국어연구소를 통하여 간헐적이지만 서양식 외래어·외국어를 순수 일본어나 한자어로 바꾸는 일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순수 자국어 쓰기'와 거리가 멀



다. 일본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외래어를 선별해 순수 일본어나 쉬운 한자어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언어의 공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쉬운 말 쓰기’에 해당한다.

앞으로 우리의 우리말 다듬기도 우선적으로 ‘순수 우리말 쓰기’를 지향할 것인지 아니면 ‘쉬운 우리말 쓰기’를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처럼 ‘순수 우리말 쓰기’에 치우쳐선 곤란하다. 일본어 투 용어를 중심으로 한 ‘우리말 다듬기(국어 순화)’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요즘의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쉬운 우리말 쓰기’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오늘날 우리말 다듬기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의 남용이다. 다량으로 무분별하게 차용하여 쓰는 서양식 외래어와 외국어는 우리말의 본래 자리마저 빼앗아 가고 있다. 게다가 서양식 외래어와 외국어의 남용으로 친구 세대 간에 의사소통의 단절을 초래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에서처럼 ‘쉬운 우리말 쓰기’ 차원에서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쓰는 일이 더욱 필요해졌다.

1.2.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부터 줄기차게 우리말 다듬기(국어 순화) 운동을 펼쳐 왔다. 국립국어원이 1991년 1월 23일 개원한 이래 공식적으로 다듬어서 내놓은 말만 해도 22,000여 개를 훌쩍 넘어선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것이 일반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도 극히 낮았다. 이는 무엇보다 주로 전문어를 우리말로 다듬었을 뿐만 아니라 몇몇 관련 학자 중심으로 ‘다듬어 쓸 말(순화 대상어)’을 선정하고 ‘다듬은 말(순화어)’을 마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몇몇 관련 학자 중심으로 우리말 다듬기가 이루어지다 보니 전방위적인 ‘다듬어 쓸 말’ 선정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일반 국민의 언어 의식과 합치되는 ‘다듬은 말’도 마련하지 못했다. 전방위적인 다듬어 쓸 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다듬어 쓸 적절한 시기를 놓치기 일쑤였고, 그것은 결과적



으로 일반 국민에게 우리말 다듬기는 항시 뒷북치는 일쯤으로 보이도록 했다. 그리고 피드백(feedback, 수용자 반응에 대한 성찰과 이에 수반된 조정 작용) 없이 다량으로 마련하여 일방적으로 보급되는 다듬은 말은 일반 국민의 언어 의식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경직된 것일 수밖에 없었다. 즉, 몇몇 관련 학자 중심으로 우리말 어법, 의미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코너킥(corner kick)’의 다듬은 말로 ‘구석차기’, ‘모서리차기’ 말고 다른 말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까지 몇몇 관련 학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폐쇄적인 우리말 다듬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은 2004년 7월부터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우리말 다듬기에 일반 국민을 직접 참여시키기로 하였다. 이는 우리말 다듬기의 방식을 ‘정부나 전문가 집단 주도(위에서 아래로)’의 하향적, 일방적, 타율적인 방식에서 ‘일반 국민 참여(아래에서 위로)’의 상향적, 쌍방향적, 자율적인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일반 국민을 직접 참여시켜서 마련한 다듬은 말은 자연스럽게 일반 국민 사이에 보급할 수 있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거둘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지나치게 대중주의에 치우친 것 아니냐 하며 우려의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언어에 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 국민에게 우리말 다듬기를 전적으로 내맡기는 것은 앞으로 커다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의 언어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말을 다듬어 쓰는 일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국민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득(得)’보다 ‘실(失)’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우리말 다듬기에서 일반 국민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언어생활의 주역이 일반 국민이라면 우리말을 다듬어 쓰는 데서 제 입맛에 맞는 ‘다듬은 말’(순화어)을 결정할 권리도 일반 국민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시각일 것이다. 제 입맛에 맞지도 않는 ‘다듬은 말’을 억지로 쓰도록 하는 건 지나친 강권(強勸)일 수 있다.

우리말 다듬기란 궁극적으로 언어 의식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즉, 우리말 다듬기는 우리말을 경시하고 외래어·외국어를 중시하는 일반 국민의 언어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지금까지의 타율적인 방식보다는 일반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방식이 훨씬 바람직하다. 그런데 언어 의식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단기간의 조그만 성과보다는 장기간의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다 함께 참여하여 꾸준히 노력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1.3.

지금까지의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어떤 원리로 다듬어 쓸 말을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다듬은 말을 마련할지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다듬은 말 대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채 보급되지 못하고 국어사전 속에 사장되어 있다시피 되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다듬어 쓸 말을 적정하게 선정하고 다듬은 말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그리고 우리말 다듬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다듬어 쓸 말을 적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우리말 다듬기는 ‘순수 우리말’이 아니거나(일본어 투 용어나 서양식 외래어·외국어) ‘쉬운 우리말’이 아닌 말(난해한 한자어)을 순수하고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순수 우리말 쓰기’와 ‘쉬운 우리말 쓰기’를 가리킨다. 그러나 우리말 다듬기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순수 우리말 쓰기’, ‘쉬운 말 쓰기’뿐만 아니라 ‘바른 우리말 쓰기’, ‘고운 우리말 쓰기’까지도 우리말 다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바른 우리말 쓰기’는 규범(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따위와 관련된 것)이나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이나 표현을 바르게 고치는 일을 가리키고, ‘고운 우리말 쓰기’는 비속한 말이나 표현을 우아하고 아름다운 말로 고치는 일을 가리킨다.

일본식 발음의 서양식 외래어인 ‘쓰레빠(slipper)’, ‘사라다(salad)’ 따위를 ‘슬리퍼’, ‘샐러드’ 따위로 고쳐서 쓰는 일이나, 영어·일본어·한문 번역 투 문장을 자연스러운 우리말 문장으로 고쳐 쓰는 일은 ‘바른 우리말 쓰기’에 해당한다. 반면 비어, 속어, 은어, 욕설, 유행어 따위와 같은 비속한 말이나 표현을 우아하고 아름다운 말로 고치는 일은 ‘고운 우리말 쓰기’에 해당한다.



‘가정부’, ‘운전사’, ‘장애자’ 따위를 ‘가사 도우미’, ‘기사(님)’, ‘장애우’ 따위로 바꾸어 쓰는 일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말을 좀 더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의미를 갖는 말로 다듬어 쓰는 일로서 이 또한 ‘고운 우리말 쓰기’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말 다듬기는 일본어 투 용어, 서양식 외래어·외국어, 난해한 한자어 따위와 같은 어휘를 주로 다듬어 쓸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표기, 발음, 문장 따위와 같은 비어휘적인 것도 다듬어 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즉, 규범(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따위와 관련된 것)에 어긋난 표기 및 발음, 어법에 맞지 않거나 비속한 표현의 문장 따위와 같은 비어휘적 것도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이 된다.

최근 들어서서는 서양식 외래어·외국어(특히, 영어) 남용이 커다란 사회 문제 및 언어 문제로 대두하였다. ‘순수 우리말 쓰기’와 ‘쉬운 우리말 쓰기’ 차원에서 서양식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쓰는 일이 시급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립국어원(‘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인터넷 사이트)은 일상 언어생활에서 함부로 쓰이고 있는 서양식 외래어·외국어와 같은 어휘를 시급히 우리말로 다듬어 써야 할 대상으로 봐서, 주로 서양식 외래어·외국어 어휘를 적절한 우리말로 다듬어 쓰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서양식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쓰겠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 특히, 이미 우리말의 일부로 완전히 정착된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쓰라고 하는 건 오히려 언어생활의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서양식 외래어·외국어 가운데 다듬어 쓸 말을 선정할 때에는 ‘정착도(定着度)’를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완전히 우리말의 일부로 굳어져 버린 외래어(정착도가 아주 크거나 높은 외래어)는 다듬어 쓸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국립국어원이 2004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엄밀한 기준이라곤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 여부를 정착도의 기준으로 삼아 다듬어 쓸 말을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네티즌(netizen)’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착도가 낮은 외국어 수준의 말로 봐서 다



들을 쓸 말로 선정하였다. 지금까지 이 사이트를 통하여 다듬어 쓰기로 한 말은 대부분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외래어로 보기 어려운 외국어 수준의 말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정착도가 아주 낮은 외국어 차원의 말이라 하여 이런 말들을 모두 다듬어 쓸 대상으로 삼는 건 곤란하다. 왜냐하면 정착도가 낮은 외국어 차원의 말 가운데 상당수는 임시 차용어(잠시 쓰이다 말 말)나 유행어(비교적 짧은 시기에 걸쳐서 쓰이는 말)인데 이들을 다듬어 쓸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면 오히려 일반 국민에게 불필요한 서양식 외국어를 학습시켜 주는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우리말 다듬기의 적시성(適時性)과도 관련된다. 임시 차용어나 유행어로 쓰이는 외국어 차원의 단계를 지나 정착도가 어느 정도 크거나 높아진 말을 다듬어 쓸 말로 선정해야 우리말 다듬기가 크게 성공할 수 있다.

1.4.

우리말 다듬기의 성패는 다듬은 말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듬은 말을 마련할 때에는 한자어, 신조어, 옛말의 활용 등 여러 문제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얼마간 ‘순수 우리말 쓰기’에 치우쳐 다듬은 말로 되도록 한자어를 활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는 친구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상 언어 생활에서 함부로 쓰이는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것이어서 굳이 한자어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순수 우리말 쓰기’보다는 ‘쉬운 우리말 쓰기’를 더 고려하여 ‘우리말 다듬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이트에서는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쉬운 한자어는 다듬은 말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스크린 도어(screen door)’, ‘슬로 푸드(slow food)’, ‘미션(mission)’ 따위의 다듬은 말로 ‘안전문(安全門)’, ‘여유식(餘裕食)’, ‘중요임무(重要任務)’ 따위와 같은 한자어가 최종 결정되었다. ‘쓰레기편지(---便紙)’, ‘꾸림정보(--情報)’, ‘자동길(自動-)’ 따위



[각각 ‘스팸 메일(spam mail)’, ‘콘텐츠(contents)’, ‘무빙 워크(moving walk) 따위의 다듬은 말]’도 다듬은 말의 일부로 한자어가 활용된 예이다.

다듬은 말을 마련하는 데에 문제가 되는 또 다른 것은 신조어이다. 다듬어 쓸 말에 대응하는, 바꾸어 쓸 만한 우리말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다듬은 말로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바꾸어 쓸 만한 말이 없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새로 말을 만들어 쓸 수밖에 없다. ‘웰빙(well-being)’, ‘이모티콘(emoticon)’, ‘컬러링(color ring)’의 다듬은 말로 결정된 ‘참살이’, ‘그림말’, ‘멋울림’ 따위가 이 사이트를 통하여 새로 만들어 쓰게 된 대표적인 신조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조어를 마구잡이로 만들어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 국민이 크게 저항을 느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어를 만들어 써야 한다. 예를 들어 ‘먹거리’처럼 용언 어간에 직접 체언을 결합하여 만들어 낸 말은 아직까지 일반 국민에게 크게 저항을 느끼게 하는 축에 속하므로 ‘먹을거리’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반면 ‘두루누리’, ‘몰래정보꾼’[각각 ‘유비쿼터스(ubiquitous)’, ‘파파라치(paparazzi)’의 다듬은 말]처럼 부사에 직접 체언을 결합하여 만들어 낸 신어는 이전에는 그리 자연스럽지 않았으나 이제는 일반 국민에게 별 저항을 느끼게 하지 않는 축에 속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봄 직하다.

옛말 활용 여부도 다듬은 말을 마련하는 데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옛말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주 잊혀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된 말이다. 따라서 ‘쉬운 우리말 쓰기’ 차원에서 볼 때엔 옛말 활용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다듬은 말로 바꾸어 쓸 만한 우리말도 따로 없고 신조어를 새로 만들어 쓰기도 쉽지 않은 경우에는 옛말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어울통신’처럼 ‘어우르다’의 옛말인 ‘어울다’를 활용한 신조어가 ‘로밍(roaming)’의 다듬은 말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아주 낮은 옛말을 활용하는 일은 사람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옛말을 활용하여 다듬은 말을 마련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듬은 말로 순수 우리말만을 고집하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 ‘누리꾼’, ‘늘찬배달’[각각 ‘네티즌(netizen)’, ‘퀵서비스(quick service)’의 다듬은 말] 따위는 각각 ‘누리’, ‘늘차다(능란하고 재빠르다)’라는 순수 우리말을 활용하여 다



듬은 말을 마련한 예이다. 이렇게 다듬은 말을 마련할 때 순수 우리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게 낯선, 이제는 옛말처럼 받아들여지는 순수 우리말을 다듬은 말로 활용할 땐 아주 낯선 옛말처럼 사람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다듬은 말은 되도록 최선의 것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최선이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최선이 아닌 차선의 것일지라도 적절한 시기에 대신하여 쓸 수 있는 다듬은 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말 다듬기란 정답을 맞히는 문제 풀이가 아닌 것이다. 최선의 것만을 찾느라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시간만 늦추다간 우리 언어생활이 온통 수많은 외래어·외국어로 도배(?)될지도 모른다.

2. 일본어 투 용어 다듬기

앞 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광복 직후부터 ‘국어 정화(淨化)’ 차원에서 일본어 잔재를 대대적으로 우리말로 다듬어 왔다. 그런데 당시의 일본어 다듬기는 우리말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순수 우리말 쓰기)에 치우쳐 있었다. 이는 일본어 잔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일본어 잔재는 한일 간의 자연스러운 언어 접촉 과정에서 우리말에 유입된 것이 아니다. 일본에 의해 일방적, 강제적으로 유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순수 우리말 상당수가 일본어에 밀려 났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의 일본어 다듬기는 상당한 실효를 거둘 수 있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일본어를 접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자리, 즉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아직도 많은 일본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다. ‘소바’(→메밀국수), ‘찌라시’(→광고지), ‘삐끼’(→호객(꾼)), ‘와꾸’(→틀), ‘앗사리’(→시원스럽게, 간단히, 깨끗이), ‘나시’(→민소매 옷), ‘뽕록 나다’(→들통 나다) 등의 순 일본어와 ‘노견(路肩)’(→갓길), ‘대금(代金)’(→값, 대가), ‘망년회(忘年會)’(→송년회), ‘사양(仕樣)’(→설명(서), 품목), ‘선불(先拂)’(→선지급), ‘수순(手順)’(→순서, 절차), ‘수입(手入)’(→



손질), ‘지입(持込)’(→(몹) 갖고 들기), ‘지참(持參)’(→지니고 옴, 지니고 참여함) 등의 일본 한자어가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

전문 기술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자동차 정비 현장에서는 ‘기스’(→흠(집)), ‘마후라’(→소음기(消音器)), ‘쇼바’(→완충기), ‘미손’(→변속기), ‘부란자’(→플랜지(flange)), ‘다시방’(→앞서랍), ‘백미러’(→뒷거울) 등의 순 일본어, 일본식 발음의 영어, 일본식 영어 등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건축, 봉제, 인쇄 현장에서도 일본어 잔재가 득세하고 있다.

학술 분야는 온통 일본 한자어 천지이다. 고전 음악 분야만 보더라도 ‘광시곡(狂詩曲)’, ‘기상곡(綺想曲, 奇想曲)’, ‘야상곡(夜想曲)’, ‘소야곡(小夜曲)’, ‘조곡(組曲)’ 등의 일본 한자어가 다량으로 쓰이고 있다. 법률, 화학, 식물 분야도 그렇고 심지어 국어학, 국사학, 국악 분야도 그렇다.

그런데 이런 일본어 잔재를 지금까지처럼 계속하여 우리말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에 치우쳐서 다듬는 건 곤란하다. 이는 지나치게 국수(國粹)적인 것으로 비쳐서 역효과만 날 뿐 앞으론 실제적인 차원에서 일본어 잔재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건 바로 쉬운 우리말 쓰기 차원에서의 일본어 다듬기이다.

일상 언어생활에서 쓰이는 순 일본어는 ‘후카시, 후카시’(→부풀리기, 과장, 품재기), ‘뽀록나다’(→들통나다, 드러나다), ‘빼까빼까하다’(→번쩍번쩍하다) 등처럼 점점 속어화해서 일반인은 거의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자동차 정비, 건축, 봉제, 인쇄, 방송 현장의 용어도 해당 기술자가 아닌 한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학술 분야의 일본 한자어는 학자가 아닌 한 껌껌하기만 하다.

이렇듯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일본어 잔재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일본어 잔재를 다듬어야 한다. 즉,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어 잔재를 찾아내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일을 해야 한다. 원활한 의사소통은 사회 통합의 밑바탕이 되므로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다.

2.1.

‘마적(魔笛)’이란 제목의 오페라가 있다. 젊은 왕자가 요술 피리를 가지고 밤의 여왕의 딸을 구하러 간다는 내용의, 모차르트가 작곡한 오페라이다. 고



등학교 음악 교과서에도 소개된 바 있지만 클래식(서양의 고전 음악)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필자는 한참 동안 제목만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모차르트 오페라로 ‘요술 피리’를 접하게 되었다. 그때 필자는 ‘요술 피리’가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도 나온 ‘마적’을 달리 이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마적’은 ‘말을 타고 때를 지어 다니는 도둑’을 뜻하는 한자어 ‘馬賊’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게 비단 나만 한 자(어) 지식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었을까?

그런 경험이 있어서였는지 몰라도 그 이후로 필자는 클래식을 거의 듣지 않았다. 클래식 하면 왠지 너무 난해하고 어려운,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우연히 클래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이후로는 틈나는 대로 클래식을 듣고 있다. 그렇게 클래식을 듣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클래식은 여전히 어렵다.

용어부터가 너무 어렵다. 클래식의 갈래를 가리키는 말만 보더라도 ‘오페라(opera)’, ‘랩소디(rhapsody)’, ‘카프리치오(◎capriccio)’, ‘녹턴(nocturne)’, ‘세레나데(serenade)’, ‘레퀴엠(㉠requiem)’, ‘스위트(suite)’, ‘심포니(symphony)’, ‘콘체르토(◎concerto)’, ‘소나타(◎sonata)’, ‘베리에이션(variation)’, ‘디베르티멘토(◎divertimento)’, ‘푸가(◎fuga)’, ‘프렐류드(prelude)’, ‘마치(march)’, ‘판타지(fantasy)’, ‘에튀드(㉠étude)’, ‘오버추어(overture)’, ‘단차(㉠danza)’, ‘엥프롱프튀(㉠impromptu)’, ‘엘레지(㉠élégie)’ 등 온통 외래어이다. 서너 개 외국어는 알아야 겨우 그 뜻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들 용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보조적으로 쓰이긴 한다. ‘가극(歌劇)’, ‘광시곡(狂詩曲)’, ‘기상곡(綺想曲/奇想曲)’, ‘야상곡(夜想曲)’, ‘소야곡(小夜曲)’, ‘진혼곡(鎮魂曲)’, ‘조곡(組曲)’, ‘교향곡(交響曲)’, ‘협주곡(協奏曲)’, ‘주명곡(奏鳴曲)’, ‘변주곡(變奏曲)’, ‘희유곡(嬉遊曲)’, ‘둔주곡(遁走曲)’, ‘전주곡(前奏曲)’, ‘행진곡(行進曲)’, ‘환상곡(幻想曲)’, ‘연습곡(練習曲)’, ‘서곡(序曲)’, ‘무곡(舞曲)’, ‘즉흥곡(卽興曲)’, ‘비가(悲歌)’ 등. 그런데 이들 용어 가운데 상당수는 이게 정말 우리말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낯설다. 그래서 더 어렵다.

그런데 이들 용어가 낯설고 어려워 보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일본 한자어이기 때문이다. 같은 한자(어)라도 우리말과 일본어 사이에 쓰임새가 크게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광시곡(狂詩曲)’, ‘기



상곡(奇想曲)’, ‘야상곡(夜想曲)’의 ‘광시’, ‘기상’, ‘야상’은 우리말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거나 쓰이더라도 우리말과 일본어에서의 쓰임새가 서로 다르다. 특히, ‘기상’ 하면 언뜻 ‘起牀[잠자리에서 일어남]’이 생각날 뿐이다. 이런 일본 한자어가 일반 사람들에게 낯설고 어려워 보이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다른 전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클래식 분야의 전문 지식도 일제 강점기를 전후하여 일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졌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본 한자어로 번역된 클래식 용어가 다량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널리 쓰였다. 그런 사정은 광복 이후로도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클래식 용어 가운데 우리말의 쓰임새와 크게 다른 일본 한자어는 일반 사람들에게 큰 거부감을 준다. 클래식 자체에 대한 거부감까지 유발한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클래식을 지향한다면 우선 이런 용어부터 자연스러우면서 쉬운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일부에서이긴 하나 ‘조곡’, ‘무곡’ 대신 ‘모음곡’, ‘춤곡’으로 바꾸어 쓰는 노력은 여간 반가운 게 아니다.

그런 면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모차르트의 ‘마적’은 ‘요술 피리’로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이전에 ‘파우스트의 겁벌(劫罰)’로 써 왔던 베를리오즈의 오페라는 ‘파우스트의 저주(詛呪)’로 하는 것이 더 낫다. ‘마적’, ‘파우스트의 겁벌’에 비해 얼마나 이해하기 쉬운가? 실제 최근의 클래식 관련 서적에서도 ‘요술 피리’와 ‘파우스트의 저주’를 더 선호하고 있다. 앞으로 클래식에서 이런 쉬운 제목이 훨씬 많아져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14번의 부제인 ‘월광(月光) 소나타’마저 ‘달빛 소나타’로 바뀌어 불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클래식의 갈래 용어〉

외래어	일본 한자어	기타
오페라(opera)/오페라(㉠Oper)	가극(歌劇)	
랩소디(rhapsody)	광시곡(狂詩曲)	
카프리치오(㉡capriccio)/ 카프리스(㉢caprice)	기상곡(綺想曲/ 奇想曲)	



외래어	일본 한자어	기타
녹턴(nocturne)/노투르노(㉠notturmo)	야상곡(夜想曲)	
세레나데(serenade)	소야곡(小夜曲)	
레퀴엠(㉡requiem)	진혼곡(鎮魂曲)	
스위트(suite)	조곡(組曲)	모음곡
심포니(symphony)	교향곡(交響曲)	
콘체르토(㉢concerto)	협주곡(協奏曲)	
소나타(㉣sonata)	주명곡(奏鳴曲)	
베리에이션(variation)	변주곡(變奏曲)	
디베르티멘토(㉤divertimento)	희유곡(嬉遊曲)	
푸가(㉥fuga)/튀그(㉦fugue)	둔주곡(遁走曲)	
프렐류드(prelude)	전주곡(前奏曲)	
마치(march)	행진곡(行進曲)	
판타지(fantasy)/판타지아(㉧fantasia)	환상곡(幻想曲)	
에튀드(㉨étude)	연습곡(練習曲)	
오버추어(overture)	서곡(序曲)	
단차(㉩danza)	무곡(舞曲)	춤곡
엠프롱프튀(㉪impromptu)	즉흥곡(即興曲)	
엘레지(㉫élégie)	비가(悲歌)	

2.2.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란 오페라가 있다. 프랑스 작가 뒤마(Dumas)의 소설 “La dame aux camélias”를 소재로 하여 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디(Verdi)가 작곡한 오페라로, 병든 창녀인 비올레타와 알프레도의 비극적 사랑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우리에게 “춘희(椿姬)”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춘희(椿姬)”는 ‘춘(椿)’은 동백 춘 자이고 ‘희(姬)’가 아가씨 희 자이니 풀어 보면 ‘동백 아가씨’ 또는 ‘동백꽃 여인’란 뜻이다. 이 오페라가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됐을 때 “동백 아가씨” 또는 “동백꽃 여인”이란 제목이 즐겨 사용



된 것도 다 이 때문이다. 오페라에서 여주인공 비올레타가 가슴에 항상 동백꽃을 달고 나오기도 하거니와 이 오페라의 원작인 “La dame aux camélias”도 그런 뜻을 갖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오페라의 제목으로 “동백 아가씨” 또는 “동백꽃 여인”이라 하는 것은 별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동백 아가씨’, ‘동백꽃 여인’ 등과 달리 ‘춘희(椿姬)’라 하는 데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춘희’가 이 말을 처음 접하는 사람 대부분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낯선 한자어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어떤 이는 사람 이름이겠거니 하고 막연히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춘희’의 ‘춘(椿)’을 나무목(木)이 없는 ‘춘(春)’, 즉 봄 춘 자로 잘못 봐서 ‘봄 여자’로 알기도 한다. 특히, 후자는 우리말에서 ‘춘정(春情)’이나 ‘매춘(賣春)’처럼 봄 춘(春) 자가 다소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하거니와 여주인공인 비올레타의 직업이 ‘창녀’라서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기까지 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우리에게 낯선 한자로 그리고 다소 생소한 방식으로 조어진 일본 한자어인 ‘춘희(椿姬)’에서 비롯됐던 것이다. ‘춘(椿)’ 자체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한자가 아니기도 하거니와 ‘춘희’란 말은 사실 일본에서 ‘라 트라비아타’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쓴 일본 한자어이다. 그런데 일본어에서와 달리 적어도 현대 우리말에서는 ‘희(姬)’가 일부 한자(어) 뒤에 쓰여 ‘아가씨’, ‘여성’의 뜻을 더하는 말로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를 굳이 번역해 쓰고자 한다면 일본 한자어를 쓴 “춘희(椿姬)”보다는 “동백 아가씨” 또는 “동백꽃 여인”라 하는 편이 좀 낫다. 그러나 이 또한 “춘희”를 직역한 느낌이 들어서 왠지 꺼림칙하다. 차라리 이탈리아어 제목의 원뜻을 고려하여 “길 잃은 여인”, “타락한 여인” 정도로 하는 것이 훨씬 나아 보인다. 물론 ‘여인’은 ‘아가씨’로 대신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한 예로 “소공녀(小公女)”를 하나 더 들 수 있다. “소공녀”는 미국 작가 버넷(Burnett)이 지은 소설이다. 그런데 이 소설의 제목으로 쓰고 있는 ‘소공녀’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이전에 같은 작가가 지은 소설 “소공자(小公子)”의 자매편 성격을 띠는 것이라 ‘소공자’의 상대되는 말로 대충 짐작될 뿐이다.



이 작품의 원제목은 “Sara Crewe or What Happened at Miss Minchin’s”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A Little Princess”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1903년 연극으로 각색할 때 새로 바꾸어 단 제목이다. ‘소공녀’는 바로 일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대일 직역하여 새로 만들어 쓰기 시작한 말이다. “A Little Princess”를 “소공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이 소설이 이전에 번역한 “소공자(小公子)”(원제목은 Little Lord Fauntleroy)의 자매편 성격을 띠는 것이란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

‘소공녀’의 ‘소(小)’는 ‘little’에 대응하여 번역한 것이므로 별문제가 없다. 그러나 ‘공녀(公女)’는 다소 문제가 있다. ‘지체가 높은 집안의 나이 어린 아들’을 뜻하는 ‘공자(公子)’는 우리말에 있지만 ‘지체가 높은 집안의 나이 어린 딸’을 뜻하는 ‘공녀(公女)’는 우리말에 없는 일본 한자어이기 때문이다. “소공녀”가 쉽게 이해되지 않은 것도 다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 소설의 제목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본 한자어 ‘공녀’가 포함된 “소공녀”로 하기보단 영어 제목 “A Little Princess”를 고려하여 “어린 공주”라 했어야 했다. “어린 공주”, 얼마나 이해하기 쉬운 제목인가?

이렇듯 지금까지는 “춘희”, “소공녀” 등처럼 음악, 문학 등의 작품 제목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일본에서 한자어로 번역하여 쓴 작품명을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대개 일본어로 번역된 작품을 다시 우리말로 중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그런 잘못된 관행에 따라 작품의 제목으로 우리말에 없는 일본 한자어를 가져다 쓰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외국 작품을 소개할 때 적어도 제목만이라도 어려운 일본 한자어를 함부로 가져다 쓰지 말고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을 살려 썼으면 좋겠다.

〈다듬어 쓸 말과 다듬은 말 목록〉

(1) 정치 용어

- 게이트(-gate): 의혹사건
- 미션(mission): 중요임무
- 올인(all-in): 다걸기



- 드라이브(drive): 몰아가기
- 코드(code): 성향
- 언론 플레이(言論play): 여론몰이
-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가운데머리

(2) 행정 용어 및 제도명

- 파파라치(paparazzi): 몰래제보꾼
- 클린 센터(clean center): 청백리마당
- 클러스터(cluster): 산학협력지구
- 그룹 홈(group home): 자활꿈터
- 바우처 제도(voucher制度): 복지상품권제도
- 옴부즈맨(ombudsman): 민원도우미
- 퍼블리시티권(publicity權): 초상사용권
- 플리 바기닝(plea bargaining): 자백감형제(도)

(3) 패션 용어

- 캐포츠(caports): 활동복
- 핫팬츠(hot pants): 한뼘바지
- 드레스 코드(dress code): 표준옷차림
- 프리 사이즈(free size): 열린치수
- 매스티지(masstige): 대중명품
- 스타일리스트(stylist): 맵시가꿈이
- 패셔니스타(fashionista): 맵시꾼

(4) 누리망(인터넷) 용어

- 네티즌(netizen): 누리꾼
- 스팸 메일(spam mail): 쓰레기편지
- 콘텐츠(contents): 꾸림정보
- 오프라인(off-line): 현실공간
- 메신저(messenger): 쪽지창



- 블로그(blog): 누리사랑방
- 웹서핑(web surfing): 누리검색
- 브이오디(VOD) 서비스: 다시보기
- 스파이웨어(spyware): 정보빼내기프로그램
- 피싱(phishing): 정보도둑
- 펌킨족(-KIN族): 펌누리꾼

(5) 통신 용어

- 컬러링(color ring): 멋올림
- 이모티콘(emoticon): 그림말
- 셀프카메라(self-camera): 자가촬영
- 로밍(roaming): 어울통신
- 와이브로(WiBro): 휴대누리망
- 블루투스(blue tooth): 찜지무선망
- 유비쿼터스(ubiquitous): 두루누리

(6) 운동 용어

- 퀄리티 스타트(quality start): 선발패투
- 홀드(hold): 중간구원
- 치어리더(cheerleader): 흥돋움이
- 빅 리그(big league): 최상위연맹
- 슈터링(shooting): 골문어림차기
- 세트 피스(set piece): 맞춤전술
- 매치업(match-up): 맞대결
- 디펜딩 챔피언(defending champion): 우승지킴이
- 파이팅(fighting): 아자
- 키맨(key man): 중추인물
- 헝그리 정신(hungry精神): 맨주먹정신



(7) 영화 용어

- 원톱(one top): 홀로주연
- 박스 오피스(box office): 흥행수익
- 로드 무비(road movie): 여정영화
- 하드보일드(hard-boiled): 냉혹기법
- 팩션(faction): 각색실화
- 컬트(cult): 소수취향
- 오마주(hommage): 감동되살이
- 노미네이트(nominate): 후보지명
- 스포일러(spoiler): 영화해살꾼
- 코드프리(codefree): 빗장풀기

(8) 음악 용어

- 스탠더드 넘버(standard number): 대중명곡
- 피처링(featuring): 돈옴연주
- 비트박스(beat box): 입소리손장단
- 로고송(logo song): 상징노래
- 백댄서(back dancer): 보조춤꾼
- 레퍼런스(reference): 고품질
- 마스터클래스(master class): 명인강좌

(9) 방송 용어

-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 맛보기프로그램
- 시즌(season): ~번째 이야기
- 러브 라인(love line): 사랑구도
- 캡처(capture): 장면갈무리
- 유시시(UCC): 손수제작물
- 스폿 광고(spot廣告): 반짝광고
- 엑스파일(X file): 안개문서
- 터프가이(tough guy): 쾌남아



(10) 식생활 용어

- 드레싱(dressing): 맛갈장
- 퓨레(purée): 과립즙
- 휘핑(whipping): 거품크림
- 슬로푸드(slow food): 여유식
- 브런치(brunch): 어울참
- 케이터링(catering): 맞춤밥상
- 홈베이킹(home baking): 손수굽기
- 샘플러(sampler): 맛보기묶음

(11) 경제 및 금융 용어

- 브랜드 파워(brand power): 상표경쟁력
- 블루오션(blue ocean): 대안시장
- 디엠(DM, ←Direct Mail): 우편광고(물)
- 타임 서비스(time service): 반짝할인
- 투잡(two job): 겹벌이
- 소호(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무점포사업
- 플래그십 스토어(flagship store): 체험판매장
- 프로슈머(prosumer): 참여형소비자
- 파트너십(partnership): 동반관계
- 블라인드(blind) (정보)가림
- 방카쉬랑스(bancassurance): 은행연계보험
- 체리 피커(cherry picker): 금융얹체족

(12) 교통 용어

- 내비게이션(navigation): 길도우미
- 선팅(sunting): 빛가림
- 핸즈프리(handsfree): 맨손통화기
- 로드킬(roadkill): 차길동물사고
- 스크린 도어(screen door): 안전문



- 무빙 워크(moving walk): 자동길
- 하이브리드(hybrid): 어우름

(13) 건설 및 건축 용어

- 뉴타운(new town): 새누리촌
- 스카이라운지(sky lounge): 하늘쉼터
- 오픈 하우스(open house): 열린집(집열기)
- 그린 프리미엄(green premium): 환경덧두리
- 펜트하우스(penthouse): 하늘채(※)

(14) 문예 용어

- 스테디셀러(steady seller): 늘사랑상품
- 칙릿(chick-lit): 꽃띠문학
- 캐릭터(character): 특징물
- 그라피티(graffiti): 길거리그림
- 메세나(Mécénat): 문예후원
- 아카이브(archive): 자료전산화

(15) 사회 용어

- 웰빙(well-being): 참살이
- 원샷(one shot): 한입털이
- 슬롯머신(slot machine): 성인오락기
- 커플 매니저(couple manager): 새들이
- 알파걸(alpha girl): 으뜸녀
- 호스피스(hospice): 임종봉사자
- 타임캡슐(time capsule): 기억상자

(16) 생활 용어

- 퀵서비스(quick service): 늘찬배달
- 다이(DIY): 손수짜기



- 에스오에스(SOS): 구원요청
- 빙고(bingo): 맞았어!
- 트레이드마크(trademark): 으뜸상징
- 팁(tip): 도움말
- 다크서클(dark circle): 눈그늘
- 솔 메이트(soul mate): 교감지기
- 마리나(marina): 해안유원지

(17) 생활용품 용어

- 포스트잇(Post-it): 붙임쪽지
- 캐리어(carrier): 아이업개
- 머스트 해브(must have): 필수품
- 트리트먼트(treatment): 머릿결영양제
- 풀 세트(full set): 다모음

(18) 일본어 투 용어

- 후카시(ふかし[吹かし]): 품재기
(※ '품'(행동이나 말씨에서 드러나는 태도나 됨됨이)과 '재기'['재다'(잘난 척하며 으스스대거나 뽐내다)의 명사형]의 합성어)
- 조리(ぞうり[草履]): 가락신
- 후룩쿠(フロック[←fluke]): 어중치기
- 스킨십(skinship): 피부교감
- 실버시터(silver sitter): 경로도우미
- 교례회(交禮會): 어울모임



[참고] 우리말 다듬기(말터 사이트 다듬은 말 목록)

(기간: 2004. 7. 12.~2009. 8. 18.)

다듬기 전의 말	다듬은 말
IPTV	맞춤형누리방송
NG(No Graduation)족	늑장졸업족
S라인(S-line)	호리병 몸매
가십(gossip) 거리	입방아 거리
게이트	의혹사건
골드미스(Gold Miss)	황금독신여성
교례회	어울모임
그라피티	길거리그림
그룹 홈	자활꿈터
그린 프리미엄	환경덧두리
글램핑(glamping)	귀족야영
내비게이션	길도우미
네이미스트(Namist)	이름설계사
네티즌	누리꾼
넷북(Net-book)	손누리틀
노미네이트	후보지명
뉴타운	새누리촌
다이(DIY)	손수짜기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역사교훈여행
다크서클	눈그늘
테크아트 마케팅(techart marketing)	예술감각상품
드라이브	몰아가기
드레스 코드	표준옷차림
드레싱	맛깔장
드로어즈(drawers)	맵시속바지
디그(dig)	받아막기
디엠(DM)	우편광고(물)
디오라마	실사모형
디펜딩 챔피언	우승지킴이
딩펫족(Dinkpet族)	맞벌이에완족
랜드마크(landmark)	마루지
러브 라인	사랑구도
러브콜(love call)	부름공세



다듬기 전의 말	다듬은 말
레시피(recipe)	조리법
레이싱 걸(racing girl)	행사빛남이
레퍼런스(reference)	고품질
로고송	상징노래
로드 무비	여정영화
로드킬	찾길동물사고
로밍	어울통신
루미나라아	불빛축제
루비(RUBY)족	새봄여성
리메이크(remake)	원작재구성
리퍼브(←refurbished)	손질상품
리플	댓글
립싱크(lip sync)	입술연기
마리나	해안유원지
마블링	결지방
마스터클래스	명인강좌
마우스 포테이토(mouse potato)	골방누리꾼
마이크로 블로그(트위터)	댓글나눔터
마일리지(mileage)	이용실적점수
매스티지	대중명품
매치업	맞대결
머스트 해브	필수품
메세나	문예후원
메신저	쪽지창
모티켓(motiquette)	통신예절
무빙 워크	자동길
미션	중요임무
미팅	다솜모임
마우처 제도	복지상품권제도
박스 오피스	홍행수익
방카쉬랑스	은행연계보험
백댄서	보조춤꾼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음성사기전화
보케베케(vocation-vacation)	꿈나래휴가
뷰파인더	보기창



다듬기 전의 말	다듬은 말
브랜드 파워	상표경쟁력
브런치	어울침
브로마이드(bromide)	벽불이사진
브이오디(VOD) 서비스	다시보기
블라인드	(정보)가림
블로그	누리사랑방
블루오션	대안시장
블루투스	쌈지무선망
블록(block)	누리글보따리
비트박스	입소리손장단
빅 리그	최상위연맹
빙고	맞았어
사이버 대학(cyber大學)	두루누리대학
샐러던트(saladent)	계발형직장인
샘플러	맛보기묶음
생식건강(生殖健康)	생명샘건강
샹그릴라	꿈의낙원
선틱	빛가림
성큰가든(sunken garden)	뜨락정원
세트 피스(set piece)	맞춤전술
셀슈머(sellsumer)	누리장터꾼
셀프카메라	자가촬영
소호(SOHO)	무점포사업
솔 메이트	교감지기
쇠파라치(쇠parazzi)	쇠고기신고바치
쇼케이스(showcase)	선보임공연
쇼플러(Shoppler)	원정구매족
슈터링	골문어림차기
스도쿠(すどく, 數獨)	숫자넣기
스카이라운지	하늘쉼터
스크린 도어	안전문
스킨십	피부교감
스타일리스트	맵시가꿈이
스탠더드 넘버	대중명곡
스테디셀러	늘사랑상품



다듬기 전의 말	다듬은 말
스토리보드	그림줄거리
스파이웨어	정보빼내기프로그램
스팸 메일	쓰레기편지
스펙업(spec-up)	깜냥쌓기
스포일러	영화해살꾼
스포테인먼트(spotainment)	흥끌이운동
스팟 광고	반짝광고
슬로푸드(slow food)	여유식
슬롯머신	성인오락기
시시티브이(CCTV)	상황관찰기
시즌	~번째 이야기
실버시터	경로도우미
싱글맘(single mom)	홀보듬엄마
아우라(Aura)	기품
아우터	겉차림옷
아이쇼핑(eye shopping)	눈길장보기
아카이브(archive)	자료전산화
아티젠(Artygen)	감각세대
알파걸	으뜸녀
언더패스(underpass)	아래차로
언론 플레이	여론몰이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놀이학습
에스오에스	구원요청
에코맘(EcoMom)	환경친화주부
엑스파일	안개문서
엔딩크레딧(ending credit)	끝맺음자막
엠니스(M-ness)족	주부남
영건	기대주
예티(Yettie)족	자기가치개발족
오마주(hommage)	감동되살이
오일볼	기름몽치
오프라인	현실공간
오픈 하우스	열린집/집열기
올인	다걸기
옴부즈맨(ombudsman)	민원도우미



다듬기 전의 말	다듬은 말
와이브로 (WiBro)	휴대누리망
위터파크	물놀이공원
원샷	한입털이
원톱	홀로주연
월풀	공깃방울목욕
웨딩플래너(wedding planner)	결혼도우미
웰본(well-born)	배넛바라지
웰빙	참살이
웹버(Webver)족	은빛누리꾼
웹서핑	누리검색
웹툰(Webtoon)	누리터쭈그림
유비쿼터스	두루누리
유시시(UCC)	손수제작물
이모티콘	그림말
제로베이스(zero base)	백지상태
조리(草履, ぞうり)	가락신
쭈마테이너	재치부인
체리 피커	금융암채족
치어리더	흥돈움이
치킷(chick-lit)	꽃띠문학
캐리어	아이업개
캐릭터	특징물
캐포츠	활동복
캡처	장면갈무리
커튼콜(curtain call)	부름갈채
커플 매니저	새들이
컨트롤 타워	가온머리
컬러링(color ring)	멋올림
컬트	소수취향
케이터링(catering)	맞춤밥상
코드	성향
코드프리	빳장풀기
콘텐츠	꾸림정보
퀄리티 스타트	선발패투
퀵서비스	늘찬배달



다듬기 전의 말	다듬은 말
크레이들 (cradle)	다목적꽃이
크로스백	엇걸이가방
크리에이터	광고창작자
클러스터	산학협력지구
클린 센터	청백리마당
키덜트 (kidult)	어른왕자
키맨	중추인물
키치 (kitsch)	눈길끌기
킬힐 (kill heel)	까치발구두
타임 서비스	반짝할인
타임캡슐	기억상자
터프가이	꽤남아
테스트 베드 (test bed)	가늌터
투잡	겹벌이
트랜스 지방	변이지방
트레이드마크	으뜸상징
트리트먼트	머릿결영양제
티처보이 (teacher boy)	교사의존학생
팁	도움말
파이팅!	아자!
파일럿 프로그램	맛보기프로그램
파트너십	동반관계
파파라치 (paparazzi)	몰래제보꾼
패딩 (padding)	누비옷
패셔니스타	맵시꾼
패키지 (package) 상품	꾸러미상품
팩 (pack)	피부가꿈제
팩션 (faction)	각색실화
퍼블리시티권	초상사용권
퍼스나콘 (personacon)	개성표현꼴
핼킨족 (← 퍼옴 KIN 族)	핼누리꾼
펜트하우스	하늘채
포스트잇	붙임쪽지
폴리페서 (polifessor)	정치철새교수
풀 세트	다모음



다듬기 전의 말	다듬은 말
튀레(purée, ※프랑스어)	과립즙
프라브(PRAV)족	알뜰개성족
프레젠테이션	시청각설명(회)
프로슈머	참여형소비자
프리 사이즈	열린치수
프리터(freeter)족	자유별이족
프티 성형(petit 成形)	여우비성형
플라모델(plamodel)	조립모형
플래그십 스토어(flagship store)	체험판매장
플리 바기닝(plea bargaining)	자백감형제(도)
피싱(phishing)	정보도둑
피처링	돈옴연주
하드보일드	냉혹기법
하이브리드	어우름
핫이슈(hot issue)	주요쟁점
핫팬츠	한뼘바지
해피 엔딩	행복결말
핸드프린팅	기념손찍기
헨즈프리	맨손통화기
허브족(hub-族)	마당발족
헝그리 정신	맨주먹정신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	누리물난전꾼
헬리콥터 부모	치마폭부모
호스피스	임종봉사자
홀드	중간구원
홈베이킹	손수굽기
후룩쿠(フロック)	어중치기
후카시(吹き, ふかし)	품재기
후크송(Hook Song)	멤돌이곡
휘핑	거품크림
휴테크(休tech)	여가활용기술
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	폐쇄은둔족



문장 바로 쓰기

1. 머리말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글은 일반적으로 하나나 그 이상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장을 바르게 쓸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바른 문장이란 어떠한 문장을 말하는지 살펴보자.

- (1) 스프링은 재료와 쓰이는 용도에 따라 분류가 가능합니다.
- (2) 사람이 많은 도시를 다니다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위의 문장들은 바른 문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에서 ‘용도(用途)’는 ‘쓰이는 곳’이라는 뜻인데 앞에 ‘쓰이는’이 덧붙여 있어서 동어 반복이 되었다. 그리고 (2)는 도시에 사람이 많은 것인지, 사람이 여러 도시를 다닌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들 모두 바른 문장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읽는 사람이 문장의 의미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바른 문장이란 읽는 사람이 문장의 의미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문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좋은 문장의 요건으로 ‘간결성’, ‘명료성’, ‘정확성’ 등이 논의되는데, 이러한 요건에 맞게 문장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2. 좋은 문장의 조건

2.1. 간결성

간결한 문장이란 군더더기가 없고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장을 말한다. 같은 의미의 말이 거듭 나오거나 군더더기 표현 있으면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문장이 지나치게 긴 경우도 그



의미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2.1.1. 의미가 같거나 유사한 말을 중복하지 않는다.

의미가 같거나 유사한 말을 중복하면 간결성을 해친다. 특히 한자어를 사용할 때는 한자어에 이미 그 의미가 포함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1)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근처에 새로 학원이 생긴답니다.

[설명] '들리는 소문'은 널리 자주 쓰이고 있지만, '소문(所聞)'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전하여 들리는 말'이라는 뜻이므로 '들리는'이 중복된다. 그러므로 '소문'으로만 쓰거나 '들리는 말'이라고 쓰는 것이 좋다.

- 2) 다음은 고객님의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입니다.

[설명] 이런 문장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문의'와 '질문'의 의미가 겹친다. 그러므로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입니다'는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정도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다.

- 3) 자유 게시판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설명] 이 문장에서는 '교환'과 '나누다'의 의미가 중복된다. 그러므로 '의견을 교환하다'나 '의견을 나누다' 정도로 바꿀 수 있다. 이 문장에서 주의할 것은 '자유로운'인데 '의견 교환'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말은 '자유로운'으로 쓸 수 있지만, '의견을 교환하다, 의견을 나누다'라는 표현을 수식할 때는 '자유롭게'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정도로 바꿀 수 있다.

- 4)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설명] '재발(再發)'은 다시 발생한다는 뜻을 가지므로 '다시'의 의미가 중복된다. 그러므로 '다시'를 빼고 '재발하지 않도록'이라고 쓰거나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도로 쓰는 것이 좋다.

- 5)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범위(範圍)'는 '일정한 테두리가 정해진 구역'을 의미하므로 '범위에서'라고 하면 당연히 그 구역 안을 나타낸다. 따라서 굳이 '내(內)'를 쓸 필요는 없다.

2.1.2. 불필요한 말은 쓰지 않는다.

문장에는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관없는 말이 포함되어 있을 때가 있다. 그리고 문맥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불필요한 말이 들어갈 때도 있다. 의미 전달에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쓰지 않는 것이 좋다.



- 1) 경기장에 있던 응원단은 그라운드의 모든 선수들에게 승리의 박수를 보냅니다.

[설명] '그라운드'는 경기장을 이르는 말이므로 앞에 나온 '경기장'과 중복된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장에 응원단이 있는데 선수들은 어디에 있는가도 문제가 된다. 당연히 선수들은 경기장에 있을 것이므로 '그라운드의'를 빼는 것이 좋다.

- 2) 그는 미국 측에 언론에의 노출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설명] '언론에 노출되다'라는 표현 때문에 '언론에의 노출'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그러나 '노출되다'가 아니라 '노출'이라는 명사가 쓰였으므로 조사 '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언론 노출'이라고만 해도 그 의미가 전달되므로 '언론에의 노출'이라고 쓸 필요가 없다.

- 3) 이들 지도자들은 '카지노 과문'과 3연패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

[설명]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 '-들'의 사용이 문제가 된다. 지도자가 한 명이 아니므로 '-들'을 붙일 수 있는데 '이들 지도자들'에서는 '들'이 중복되어 있어 자연스럽지 않다. '이 지도자들'이라고만 해도 그것이 복수임을 나타낼 수 있다.

2.1.3. 문장을 지나치게 길게 쓰지 않는다.

문장이 지나치게 길면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여러 문장이 연결되면, 문장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기도 하고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적절한 어미(-고, -(으)나, -아/어서, -(으)며 등)와 접속 부사(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등)를 이용해서 문장의 길이를 적당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예) 언제나 저녁에 떠나기 때문에 시골에는 거의 반나절을 차 속에서 보낸 다음에야 도착하게 될 때가 많아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만은 모두가 들떠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웃음을 터트리며 밤을 지새우지만 어느새 모르게 잠든 사이에 차는 시골 마을 어귀에 이른다.

→ 언제나 저녁에 떠나기 때문에 거의 반나절을 차 속에서 보낸 다음에야 시골에 도착하게 될 때가 많다. 고향에 내려가는 길,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만은 모두가 들떠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웃음을 터트리며 밤을 지새우기도 한다. 그러다가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잠든 사이에 차는 시골 마을 어귀에 이른다.



2.2. 명료성

한 문장은 한 가지 뜻으로만 해석되어야 좋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면, 글쓴이가 원래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로 이해되지 않고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적확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해도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2.2.1.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구조를 피한다.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구조’란 하나의 단어나 표현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구조를 말한다. 글쓴이의 의도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으니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되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1) ○○당 대표가 이 총재와 골프 회동을 해명하기로 했다.

[설명] 일반적으로 ○○당 대표가 해명하고 ○○당 대표와 이 총재가 골프를 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당 대표와 이 총재가 함께 해명한 것으로 해석되며 골프를 친 사람은 이 두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해명을 한 사람이 ○○당 대표이고 골프를 친 사람이 ○○당 대표와 이 총재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이 총재와 한 골프 회동’(또는 ‘이 총재와 가진 골프 회동’, ‘이 총재와의 골프 회동’)이라고 써야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2) 북한의 남침 억제를 위한 노력

[설명] 이 문장은 북한이 남침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북한이 남침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의미를 나타내려면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바꾸어야 한다.

3)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끊임없는 에너지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설명] ‘끊임없는’이 수식하는 것이 ‘에너지’인지 ‘에너지 전쟁’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쟁을 끊임없이 한다는 의미이므로 ‘끊임없는’을 부사로 바꾸어 ‘끊임없이 에너지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다’로 쓰는 것이 좋다.

4) 왕인 파라오도 불행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설명] 이 문장은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불행하다는 것인지, 불행하게 죽는다는 것인지 그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 ‘불행하게’를 문장 앞으로 옮겨 “불행하게 왕인 파라오도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바꾸거나 “왕인 파라오도 불행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라고 쓰는 것이 좋다.



2.2.2.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때 주의한다.

‘와/과’, ‘또는’, ‘내지’, ‘거나’, ‘든지’ 등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때 쓰이는데, 이들로 연결되는 단어는 대등한 자격을 가진다. 연결되는 단어가 분명히 드러나는지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1) 지역 특산품 및 브랜드 현황 분석

[설명] ‘및’으로 ‘지역 특산품’과 ‘브랜드’가 연결되어 있어 무엇을 현황을 분석하는지가 모호하다. 앞의 단어가 ‘지역 특산품’이므로 뒤의 단어도 물건일 것이므로 ‘브랜드’는 ‘브랜드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이 표현은 ‘지역 특산품 및 브랜드 제품의 현황 분석’으로 고쳐 쓸 수 있다.

2)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설명] ‘또는’으로 연결된 단어가 ‘폐업’과 ‘허가’인지 ‘폐업되다’와 ‘허가 취소되다’인지 문제가 된다. ‘또는’은 앞에 오는 단어가 서로 대등한 자격을 가지므로 ‘폐업’과 ‘허가 취소되다’가 연결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가 된 경우’나 ‘업소가 폐업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 고쳐야 한다.

2.2.3. 문맥에 맞는 단어를 사용한다.

의미를 분명히 나타내는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단어를 잘못 사용하면 당연히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없다.

1) 이러한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 ‘완성되다’의 주어가 ‘문제’인데 ‘문제가 완성되다’라는 표현은 자연스럽지 않다. 문제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문장에서 ‘완성’은 ‘해결’로 바뀌어야 한다.

2) 돈을 많이 쓰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설명] 정치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의 바탕이 되는 제도나 조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정치 풍토’라고 해야 한다.

3) 집집마다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한다.

[설명] ‘수거’는 ‘쓰레기를 수거한다.’와 같이 쓰이는데 거두어 가는 주체는 관공서나 그 관련 기관일 것이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주어는 관공서가 아니라 재활용품을 내놓는 사람들이어서 자연스럽지 않다. 그리고 ‘분리하다’라는 단어는 붙어 있는 것을 떼어내는 것을 나타내므로 ‘재활용품을 분



리한다.'라는 표현 역시 자연스럽지 않다. 종이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나누는 것이므로 '분류'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 이 문장은 '집집마다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배출한다.'로 바꿀 수 있다.

2.2.4. 지나치게 생략하지 않는다.

간결성을 위해서 의미가 중복되는 성분은 생략한다. 그러나 의미상 꼭 필요한 성분을 생략하거나 단어를 지나치게 축약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필요한 문장 성분을 생략하거나 단어를 지나치게 축약하면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1)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수반은 이례적으로 테러를 강력 비난했습니다.

[설명] '강력(強力)'은 어근이므로 홀로 쓰일 수 없다. '강력'은 '강력히'로 써야 한다.

- 2) 개정 방송법상 방영 불가된

[설명] '불가되다'라는 단어는 없다. 방송법상 방영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이므로 "개정 방송법상 방영 불가 판정을 받은"이라고 써야 한다.

- 3)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기 이 상장을 드립니다.

[설명]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은 '-기'가 아니라 '-기에'이다. '-기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어미이므로 이를 줄여 쓸 수 없다.

2.3. 정확성

문장을 쓸 때 문법에 맞게 문장을 써야 한다. 문장 성분 간에 호응이 맞지 않을 경우, 조사와 어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피동이나 사동 표현을 잘못 사용한 경우에 이상한 문장이 되어 그 뜻을 알 수 없게 된다.

2.3.1.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맞춘다.

서술어는 일정한 주어나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서술어와 주어, 서술어와 목적어, 서술어와 부사어 등 문장 성분 간에 호응이 맞아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 1) 제주·경남 지역에 30~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며

[설명] '30~80mm의 많은 비가'와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다. 예상되는 것은 '비'가 아니라 '비가 내리는 것'이므로 "제주·경남 지역에 30~8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라고 고쳐야 한다.

- 2) 경찰은 불쌍하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써도 작은 실수 하나를 그저 넘어가는 법이 없다.

[설명] 문맥을 보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경찰이나 실수를 넘어가는 법이 없는 것은 경찰이 아니다.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다른데 뒤 문장의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뒤 문장의 주어인 '사람들은'을 넣어야 한다.(~. 경찰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써도 사람들은 경찰의 작은 실수 하나를 그저 넘어가는 법이 없다.)

- 3) 각 가정이나 공장에서는 많은 불편과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설명] 서술어 '입다'와 호응하는 말은 '불편'과 '손실'이다. 그런데 '손실'은 '입다'와 호응할 수 있지만 '불편'은 '입다'와 호응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많은 불편을 겪고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로 고쳐야 한다.

- 4) 작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명] '작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라는 기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있으므로 그 부사어와 호응하는 서술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조사'를 '조사한'으로 바꾸어야 한다.

- 5) 김미현은 올 들어 24차례 도전한 끝에 우승했다.

[설명] '올'은 접두사로 '올겨울, 올여름'과 같이 뒤에 명사가 와야 하는데 이 문장에서는 '들다'가 와서 문장이 어색하다. 그러므로 '올'을 '올해'로 고쳐야 한다.

- 6) 프랑스는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7년간의 전쟁으로 북위 17° 선을 경계로 하여 분단되었다.

[설명] 이 문장의 주어는 '프랑스'이므로 분단된 것도 프랑스여야 한다. 그러나 역사상 분단된 나라는 '베트남'이므로 두 번째 문장의 주어를 밝혀 주어야 한다. 두 문장을 연결할 때 두 문장의 주어가 다르다면 두 문장의 주어를 모두 밝혀야 한다. 그리고 프랑스가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이유가 되어 베트남이 분단된 것이므로 연결 어미도 '-고'가 아닌 '-어서'를 써야 한다. 따라서 이 문장은 "프랑스가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아서 베트남은 7년간의 전쟁으로 북위 17° 선을 경계로 하여 분단되었다."로 고칠 수 있다.



2.3.2. 조사나 어미를 바르게 사용한다.

- 1) 영식이 어머니는 “오늘 고향에 간다.”고 말씀하셨다.

[설명]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는 ‘고’가 아니라 ‘라고’이다. 간접 인용으로 나타낼 때는 “영식이 어머니는 오늘 고향에 간다고 말씀하셨다.”처럼 써야 한다.

- 2) 건강한 신체를 주신 부모님에 감사한다.

[설명] 유정 명사에는 ‘에게’가 붙고 무정 명사에는 ‘에’가 붙는다. ‘부모님’은 존칭 명사이므로 ‘께’가 붙는다.

- 3) 이승만 대통령은 이곳을 ‘경무대’로 명명하여서 집무실 겸 관사로 사용하였다.

[설명] 경무대로 명명한 것이 집무실 겸 관사로 사용한 것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미는 ‘-여서’가 아니라 ‘-고’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 4) 의약 분업 문제를 빨리 해결한 방책이 없을까요?

[설명]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에 대한 ‘방책’을 구하는 것이므로 ‘해결할 방책’으로 쓰는 것이 맞다.

- 5) 달걀지 않는 별명을 얻은 것이다.

[설명] ‘-지 않다’의 ‘않다’는 앞에 오는 용언의 품사에 영향을 받는다. ‘달걀지’가 형용사이므로 ‘않다’에는 ‘-는’이 붙을 수 없다.

2.3.3. 피동이나 사동 표현을 남용하지 않는다.

‘사동’은 주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고, ‘피동’은 주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사동’과 ‘주동’, ‘피동’과 ‘능동’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사동 표현이 아닌데 ‘-시키다’를 쓰는 경우도 있고, 피동 표현이 아닌데 ‘-되다’를 쓰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피동 표현을 중복해서 쓰는 경우도 많다.

[사동 표현]

- 1)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설명] ‘강화하다’가 세력이나 힘을 더 강하고 튼튼하게 한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로 '강화시키기'를 '강화하기'로 고쳐야 한다.

- 2)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을 마련했다.

[설명] '경감하다'가 부담이나 고통 따위를 덜어서 가볍게 한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경감시킬'을 '경감할'로 고쳐야 한다.

- 3) 1백만 원을 입금시키고 휴대 전화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설명]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직접 돈을 입금하는 것이므로 '입금시키고'는 '입금하고'로 쓴다.

[피동 표현]

- 1) 심사단이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선발되고 있다.

[설명] 이 문장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심사단이지만 선발되는 것은 심사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선발되고 있다'를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로 써야 한다.

- 2) 이 난의 회신은 질의 당시의 법규, 지침 등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설명] 회신을 작성하는 행위는 피동보다는 능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좋다. 이것을 밝히는 것도 회신을 쓰는 것도 '우리'나 '우리 기관'이므로 '작성된'을 '작성한'으로 쓴다. 서술어가 '작성한'일 때, '이 난의 회신은'은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이며, 화제화된 성분이 된다.

- 3) 자금이 어디 쓰여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설명] '자금이'가 주어이므로 '쓰다'의 피동사 '쓰이다'를 쓴다. '쓰여지다'는 '쓰이다'에 '-어지다'가 붙은 것으로 피동이 중복된 표현이다. 그러므로 '쓰여졌는지'는 '쓰였는지'로 바꾼다.



공문서 바로 쓰기

1. 공문서의 개념

‘공문서(公文書)’란 공공 기관이나 공공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가리킨다. 좁은 의미의 공문서는 공무원이나 행정 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의 공문서는 행정 기관 내부에서 작성되고 시행되는 문서와 행정 기관 상호 간에 주고받는 문서, 대외적으로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 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함.)는 물론이고 행정 기관이 접수한 모든 공식적인 문서를 가리킨다.¹⁾

2. 공문서 문장의 요건

- (1)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뜻이 분명하고 쉽게 써야 한다.(명확성, 평이성)
- (2) 문법과 어문 규정을 지켜야 한다.(규범 준수성)
- (3) 우리말답게 자연스럽게 써야 한다.(자연스러움, 적절성)

공문서의 문장은 쉬워야 한다. 공문서의 문장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든지 용어나 표현이 지나치게 어려우면, 공공 기관 내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차질이 생기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공문서의 문장을 쉽고 명확하게 작성한다면 공공 기관의 업무 효율성·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도 높일 수 있다.

그렇다고 의미가 명확하고 쉬운 것만으로 공문서 문장이 충분히 바른 문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민 생활에 직접·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공문서가 기본적인 국어 문법이나 어문 규정조차 따르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국가의 위신이 서지 않는다. 공문서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그 밖의

1) 「사무관리규정」(2008. 9. 2. 대통령령 제20982호 행정안전부) 제3조 제1호 참조.



공공 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문서임에도 우리말 사용의 질서와 규칙에 어긋난다면 결코 바른 문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문서의 문장이 문법과 어문 규정(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에 맞게 모범적인 문장으로 작성된다면 일반인들이 문장을 바르게 쓰도록 이끌어 주는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문서의 문장은 외국어(특히 영어, 일본어) 번역 투의 문체나 문장을 피하고 우리말답게 자연스럽게 써야 우리말의 발전, 우리 언어문화의 선진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3. 공문서의 오류 유형

3.1. 잘못된 호응 관계

- ① 제안서,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 교부는 참가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
- ②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건설처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열람한다.
-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④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 물질 중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⑤ 사업의 목적: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에서 급증하는 생활용수를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 ⑥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① 주어부와 서술어만 바로 연결해 보면 ‘제안서, 안내서 및 과업지시서 교부는 ~ 교부한다.’가 된다. 앞의 ‘교부’를 삭제하면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도 맞고 의미상의 중복도 해결된다.

[수정] 제안서,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

- ② 이 문장의 ‘열람한다’는 타동사이므로 ‘누가 무엇을 열람하다’로 표현하거나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열람하도록 하다’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수정]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건설처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또는 관계자가} 이를 열람하도록 한다.

- ③ 주어인 ‘상대방이’와 호응하려면 서술어는 ‘확정한’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확정된’이 되어야 한다. ‘확정한’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지만 이 문장에는 목적어가 불필요하다.

[수정]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하여야 한다.

- ④ 목적어가 놓여야 할 자리에 부사어가 놓임으로써 비문이 된 경우이다. 다른 곳에서 목적어를 찾을 필요 없이 부사인 ‘화학 물질 중’을 ‘화학 물질을’이라고 바꾸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수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 물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⑤ 이 문장은 주어가 부당하게 생략되어 비논리적,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었다. ‘급증하는’ 것이 ‘생활용수’가 아니므로 ‘수요가’ 또는 ‘사용량’과 같은 주어를 넣어야 한다.

[수정] 사업의 목적: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에서 사용량(수요)가 급증하는 생활용수를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 ⑥ 이 문장은 목적어가 부당하게 생략되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었다. 서술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므로 ‘다음 사항을’이라는 목적어를 넣어야 한다.

[수정]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다음 사항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3.2. 바르지 않은 접속 구조

- ①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 ② 입찰자는 사전에 제한 사항 확인 및 입찰 등록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 유의 사항, 계약서 등을 열람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③ 항공법 제7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천공항 계기 착륙시설(LLZ/DME, GP)을 신설하여 사용 개시를 고시합니다.
- ④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 ① 이 문장 ‘과’의 앞부분은 명사구이고 ‘과’의 뒷부분은 절인데 이들이 ‘과’로 접속되어 있다. ‘구와 구’로 바꾸기에는 뒷부분의 서술 내용이 많아 구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절과 절’을 접속어미 ‘-고’로 연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수정]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

- ② 이 문장에서 ‘제한 사항 확인 및’이라는 부분은 절로 표현할 것을 무리하게 구로 표현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제한 사항 확인’이라는 명사구가 ‘계약서 등을 열람하다’와 대등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로 바꾸어야 한다. ‘구와 절’이 ‘및’으로 접속되어 있는데, ‘절과 절’을 접속어미 ‘-고’로 연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수정] 입찰자는 사전에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입찰 등록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 유의 사항, 계약서 등을 열람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③ 이 문장에서는 ‘~ 다음과 같이 □를 고시합니다’라는 문장 구조 속의 □ 부분에 ‘착륙시설을 신설하여 사용 개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형태이다. 그런데 여기서 접속 어미 ‘-어’를 경계로 앞부분은 목적어와 서술어를 가진 ‘절’의 형태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사용 개시’라는 명사구로 되어 있어서 접속의 형평성이 깨어졌다. 두 구문을 ‘절+절’의 형태로 ‘-을 고시합니다’라는 서술어에 잇는다면 ‘시설을 신설하여 사용을 개시하게 된 것을 고시합니다.’로 되어야 하고, 간결성을 추구하여 ‘구+구’의 형태로 ‘-을 고시합니다’라는 서술어에 잇는다면 ‘시설의 신설과 사용 개시를 고시합니다’로 되어야 한다.

[수정] 항공법 제7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천 공항 계기 착륙 시설(LLZ/DME, GP)을 신설하여 사용을 개시하게 된 것을 고시합니다.

- ④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는 ‘또는’으로 연결하는 대상이 ‘능력’과 ‘권한’이 되어야 하는데, ‘권한없는’을 붙여 씌으로써 대등 접속에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처분의’는 ‘능력’만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도 수식하므로 ‘권한없는’을 붙여 쓰면 곤란하고 ‘권한이 없는’이라고 띄어 써야 한다.

[수정] 처분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3.3. 잘못된 피동과 사동

- ① 단, 취도, 항대도, 서근도, 오란도 및 삼도의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을 제외됨.
 ②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 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할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 ① 이 문장은 ‘~수역을’을 목적어로 지니고 있으므로 서술어는 타동사로 ‘제외함’이 되어야 하는데 불필요하게 피동구문을 구성한 예이다.

[수정] 단, 취도, 항대도, 서근도, 오란도 및 삼도의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을 제외함.

- ② 이 문장은 조건절에서 ‘각종 증빙 서류 등이’가 주어이므로 서술어는 ‘작성될’이 되어야 하는데 서술어가 타동사로 표현됨으로써 비문법적인 문장이 만들어지고 말았다.

[수정]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 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될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3.4. 조사 또는 어미의 잘못된 사용

- ① 시간적 범위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평가 목표 연도까지로 한다.
 ②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 ① ‘에’라는 조사와 ‘에도’라는 조사는 그 의미가 거의 동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서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악 조건에 불구하고 그들은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 / *양가 부모님의 강한 반대에 불구하고 그들은 결혼했다.”라는 표현에서 ‘도’가 빠진 ‘에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듯이 위 문장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위 문맥에서는 ‘에도 불구하고’도 좋으나 ‘~에 얹매이지 않고’,



‘~와/과 상관없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수정] 시간적 범위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규정이 있더라도, 규정과 상관없이’) 다음 각 목의 평가 목표 연도까지로 한다.

- ② ‘-에 속하다’라는 표현이 감정이 없는 사물의 경우에는 적합하지만, 감정이 있는 사람이나 짐승에게는 부적합하다. 유정물(有情物)에는 ‘에게’를 써서 ‘-에게 속하다’라고 해야 문법에 맞다. ‘청구에 의하여’는 ‘청구로(써)’로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수정] 저당물의 경매로 (말미암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를 상대로} 지상권(地上權)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정한다.

- ③ ‘경우’는 그 어휘적 특성이 과거나 현재 혹은 미래의 일을 표현하는데 자유롭기 때문에, 그 앞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를 선택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 그러나 ‘때’는 의존 명사 ‘수’나 ‘줄’처럼 관형사형 어미의 시제와 관련하여 제약이 따른다.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상황을 예측하여 서술하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는 때’가 부자연스럽고 ‘인정할 때’가 자연스럽다.

[수정]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또는 ‘-할 때’)에는 제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평가하게 할 수 있다.

- ④ ‘-은 때’는 과거에 완료된 특정한 사건이나 행위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었을 때’는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완료된 상황을 추정하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1회성의 완료된 사건이 아니라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여 서술하는 위와 같은 문맥에서 ‘접수된 때’는 부적절하며 ‘접수되었을 때’가 적절하다.(유사 예: 자기 몫의 밥을 {먹은 때(×)/먹었을 때(○)}에는 더 먹지 마시오.)

[수정]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또는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3.5. 중의적 표현

- ① 항소 또는 항고사건<수형자 분류 처우 규칙 중 개정령안>
 ② 제39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하거나 또는 그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수형자 분류 처우 규칙 중 개정령안 제42조 제2항 제2호>
 ③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燒毀)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170조 제1항>

뜻이 둘 이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을 중의적인 문장이라 한다. 이런 중의적인 문장은 의미 해석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위 예문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문맥상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파악하여 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 ① 뜻1: ‘항소’ 또는 ‘항고 사건’(=‘항고 사건’ 또는 ‘항소’)
 뜻2: 항소 사건 또는 항고 사건(←항소 또는 항고 사건)
- ② 뜻1: ~ 형 집행 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하였을 때 또는 형 집행 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하였을 때(=형 집행 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형기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에 도달하였을 때)
 뜻2: ~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하였을 때 또는 형 집행 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하였을 때
 ※ 문맥상 뜻2의 형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제39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제39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이라고 고쳐야 일반인들이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뜻1: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
 뜻2: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
 ※ 문맥상 뜻2의 의미가 옳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한다.
 ⇒ 과실로 (말미암아),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없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6. 수식어의 바르지 않은 위치

- ① 사업 목적: 충남 서·북부의 안정적인 생·용수 공급
- ② 본 사적지 내의 고분은 고고학적으로는 이 지방의 중요한 6세기의 횡혈식 고분임.
- ③ 또한 강압 수사 재발 방지를 위해 1947년부터 유지돼 온 무술경찰관 검찰청 파견제도 폐지된다.
- ④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및 지원 방안

- ① ‘안정적인’이라는 관형어가 위치를 잘못 잡아 ‘안정적인’이 마치 ‘생·용수’를 수식하는 것처럼 구성되었다. 일단 ‘충남 서·북부의 생·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같이 고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 ‘의’가 중복되어 약간 부자연스러우므로 앞의 ‘의’를 ‘에서 사용할’로 고치는 것이 더 좋다.

[수정] 사업 목적: 충남 서·북부에서 사용할 생·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 ② ‘횡혈식 고분’에 대한 수식어가 네 개나 되는데, 이들을 짜임새 있게 잘 배치하지 않으면 명료한 문장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된다. ‘고고학적으로는’과 ‘중요한’은 긴밀한 구성을 이루도록 관형절로 변형할 필요가 있고, ‘이 지방의’는 ‘6세기의’ 뒤로 옮기든지 삭제하는 것이 낫겠다. 한편 ‘본(本) 사적지’는 ‘이 사적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수정] 이 사적지 내의 옛무덤{고분}은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6세기(○○ 지방의) 굴식 무덤{횡혈식 고분}임.

- ③ ‘강압 수사 재발 방지를 위해’라는 부사어가 수식할 말은 상식적으로 볼 때, ‘폐지된다’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문장 구조로는 ‘강압 수사 재발 방지를 위해’가 오히려 ‘유지돼 온’을 수식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이로 말미암아 ‘무술경찰관 검찰청 파견제’가 마치 ‘강압 수사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제도인 줄 착각하게 할 우려가 있다. ‘강압 수사 재발 방지를 위해’라는 부사어를 ‘폐지된다’ 바로 앞에 두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수정] 또한 1947년부터 유지돼 온 ‘무술경찰관 검찰청 파견제’도 강압 수사 재발 방지를 위해 폐지된다.

- ④ ‘효과적인’이 바로 뒤에 오는 ‘한국어’를 수식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및’으로 연결된 위 문장을 분석하여 도출되는 두 개의 표현 중에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방안’은 자연스럽지만 ‘효과적인 한국어 지원 방안’은 부자연스러우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수정] 한국어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과 이(→한국어 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3.7. 부자연스러운 표현

- ① 영남고고학회 회원 일동은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영구 보존을 위해 사적에서 해제하는 것을 극력 반대하는 입장임.
- ② 전과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 무선국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 ③ 다만, 새로운 제안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하되 총 사업비의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 ① 이 문장은 관형어와 목적어가 무리하게 생략되어 부자연스럽다. 이 문장에서는 ‘무엇의’ 영구 보존을 꾀하고자 하는 것인지가 표현되어 있지 않고, 동시에 ‘무엇을’ 사적에서 해제하는 것인지 그 대상 또한 나타나 있지 않다. 모두 보충되어야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수정] 영남고고학회 회원 일동은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적의 영구 보존을 위해 유적을{‘가’ 고분을} 사적에서 해제하는 것을 극력 반대하는 입장임.

- ② 이 문장은 부사어가 부당하게 생략되어 부자연스럽다. 부사어는 문장 성분 가운데 필수 성분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에서는 서술어로 ‘고시합니다’가 쓰이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라고 하는 부사어를 넣어 주면 문장이 훨씬 자연스러워진다. 또한 ‘의거’는 어근인데 용언처럼 사용되고 있다. ‘의거하여’ 또는 ‘따라, 의하여’ 등으로 바꾸어 써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수정] 전과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 무선국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③ 이 문장은 명사구가 남용되어 부자연스럽다. 길이가 긴 표현을 간결하게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서술식 표현을 명사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길이를 줄여줄 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내용을



는 거., 거), (거), <거>, 너., 너), (너), <너>……로 이어 표시한다. (√표시는 1타를 뺀다는 표시임.)

4.2. 숫자의 표시

- (1)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글을 혼용할 수 있다.
- (2)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예) 50,000,000원(○) / 5,000만√원(○) / 5천만√원(○)
 시가√123,450,000원(○) / 시가√1억√2345만√원(○)
 12억√3456만√7898원(○) / 12억3456만7898원(×)

4.3. 일자의 표시

- (1)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한다.
 대개 ‘연’, ‘월’이 쓰일 자리에는 온점을 표시하지만, ‘일’이 쓰일 자리에는 온점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이다.
- (2) 연도만 기재하는 경우에는 글자 ‘년’을 생략하지 아니한다.
- (3) 온점 뒤는 한 칸씩 띄운다.
- (4) ‘부터’와 ‘까지’는 온점 뒤에 바로 붙여 쓴다.

(예) 2009.√10.√9. (○) / 2009.√10.√9 (×) / 2009.10.9. (×)
 2009.√10. (○) / 2009.√10 (×)
 2009년√1/4분기 (○) / 2009. 1/4분기 (×)
 '09.√10.√09. (×)
 2009.√10.√9.√~√2009.√12.√5.√기간 (○)
 2009.√10.√9.부터√2009.√12.√5.까지 (○)
 2009.√10.√9.√~√2009.√12.√5.까지 (×)



4.4. 성명의 표시

- (1)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 다만, 성과 이름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 (2) 성명의 각 글자를 한 칸씩 띄지 않는다.

(예) 홍길동 (○) / 홍√길동(×) / 홍√길√동(×)
 선우덕 (○) / 선우√덕(○)

4.5.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명칭의 표시

- (1) 정식 명칭을 쓴다.
- (2) 글 가운데에서 명칭을 그대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이하 ‘……’라 한다.)로 축약 표시하고 이후 줄여서 사용한다.

(예)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서울 종로구청장(×)
 경상북도지사(○) / 경북도지사(×)
 전라남도 남원시장(○) / 전남 남원시 시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종로구청장’이라 한다.) (○)

4.6. 인용 부호의 표시

- (1) ‘큰따옴표’(“ ”)는 다음의 경우에 사용한다.
 - ① 대화를 표시할 때
 - ② 남의 말을 인용할 때
 - ③ 판례나 법령을 그대로 인용할 때
 - ④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제3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할 때
- (2) ‘작은따옴표’(‘ ’)는 다음의 경우에 사용한다.
 - ① 인용한 내부에 다시 인용할 것이 있을 때
 - ② 문장에서 중요 부분을 강조할 때



4.7. 법령 등의 인용

- (1) 법령을 인용하는 때에는 법령명은 띄어 쓰되, 법령명 앞뒤에 ‘**「**’ (낫표)를 붙이고, 조·항·호는 “띄어쓰기”를 통일한다.
- (2) 법령 중 아직 띄어쓰기가 시행되지 않은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띄어쓰기를 한다.
- (3)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과 같이 축약한 경우에는 이후 ‘토지보상법’에 ‘**」**’를 붙일 필요가 없다.
- (4) 법령을 인용할 때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 우선 순위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구 법령을 인용할 때는 어느 법인지 특정해야 한다.
- (6) 조례, 예규, 훈령, 규칙, 고시 등을 인용할 경우, 제목을 쓰고 괄호 안에 일자 및 예규번호 순으로 적는다. 이들의 경우도 제목은 ‘**」**’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3조의 2 제1항 가목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2002. 11. 1. 등기예규 제106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2009. 1. 6. 조례 제787호)
- 「간척지 가경작 운영에 관한 지침」 (2008. 12. 29.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71호)

5.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공문서 문장의 실태를 크게 몇 갈래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공문서의 문장이 바른 문장이 되려면, 뜻이 명확하고 쉽게 써야 하며, 문법과 어문 규정을 지켜야 하며, 우리말다운 어휘와 문체를 구사하여야 한다. 요컨대 공문서 문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명확성, 평이성, 규범 준수성, 자



연스러움, 적절성 등이라 할 수 있다.

문법에 맞는 글을 쓰는 것은 국어를 정확히 구사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자아내지 않게 하여 원래의 뜻을 훨씬 쉽게 전달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공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어려운 표현, 권위적인 표현을 삼가고,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쉽게 글을 쓰는 일에 가장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 국어 생활에서도 국민에게 모범이 되면 국민과 더 잘 소통하고, 국민에게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문서뿐만 아니라 모든 글을 바르게 쓰는 데에는 깊이 생각하고 이를 언어로 바르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을 다 쓴 후에는 다시 읽어 보면서 혹시 어려운 용어는 없는지, 문장 구조는 반듯한지, 어휘나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부적절한 곳은 없는지 항상 점검하는 것이 바른 글쓰기의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

한글의 창제 원리	우수성
“정음 28글자는 각각 그 꼴을 본떠서 만들었다.” (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바람 소리, 학의 울음, 닭의 소리, 개 짖는 소리일지라도 모두 적을 수 있다.” (雖風聲鶴唳, 鷄鳴狗吠, 皆可得而書矣)
발음 기관 상형(象形)과 가획(加劃, 加畫)	소리 글자, 무엇이든 적을 수 있는 글자

1. 말과 글, 언어와 문자

많은 사람들, 특히 한국인들이 ‘말과 글’ 즉 ‘언어와 문자’를 혼동하고 있다. 혼동하는 사람에게 이 둘이 혼동된다는 사실을 알려 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절대 혼동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이 혼동은 무의식 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한국인에게는 글자 즉 한글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었으며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들어온 ‘국어 사랑 나라 사랑’, ‘한글의 우수성’ 등이 미처 정리되지 않은 채로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최근 인도네시아에 한글을 수출한다는 뉴스가 화제다. 인도네시아 부톤섬은 술라웨시섬 남동쪽에 있는 인구 50만의 작은 섬인데, 토착어인 짜아짜아어를 표기할 문자로 한글을 공식 도입키로 한 것이다. 말은 있되 이를 적을 문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한글이 너무 어렵다고 한다. 외국어 배우기가 왜 어렵지 않겠는가. 우리가 십수 년 영어를 배우지만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만 보아도 외국어로써 한글 학습의 어려움은 충분히 짐작된다.

그러므로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그 예외성을 줄이고 규칙성을



높이는 게 좋겠다. 굳이 ‘주무시고 계시다’, ‘진지 잡수시다’로 하지 말고 ‘자고 있으시다’, ‘밥 먹으시다’로 했으면 한다. 언어도 하나의 도구 일진대 무릇 모든 도구는 사용하기 편한 쪽으로 발전하는 것 아닌가. 발전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한글의 세계화가 눈에 보이는 지금 보다 많은 사용자, 보다 수월한 사용을 위해서는 배우고 사용하기 쉽도록 한글도 좀 가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2009년 8월 10일, 모 경제신문 칼럼)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세계의 6000여 개의 언어 중에 대부분이 그 언어를 적는 글자가 없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어떤 언어를 적는 문자가 있는 사실이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말은 필수적이지만 글을 부수적인 것이다. 즉 글이 없어도 말이 사용되고 세대로 전승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언어학자 소쉬르는 “말을 연구할 때 글자의 환영(幻影)에 빠지지 말라.”라고 경고를 한 적이 있다. 연구자들도 글자에 사로 잡혀서 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글은 말을 불완전하게 표현하는 장치일 뿐이라는 점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글은 어디까지나 보조 장치일 뿐이다.

그러나 글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글을 통해서 말이 기록되는데, 인류는 발달 과정의 최후의 시기에 말을 하게 되었고, 한참이 지난 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을 눈에 보이는 글자로 잡아 두는 기술을 획득하였다. 지금부터 5,500년 전의 일이다. 인류의 문화가 글을 통해서 축적 전승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라진 민족은 말도 함께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글을 남겼다면 그것만이 유일한 흔적이므로, 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한 독창적 문자로서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찬탄해 마지않은 인류의 귀중한 유산이며, 이제 한국인의 상징처럼 된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글에 각별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발전적으로 가꾸어 나갈 의무가 있다.



2. 훈민정음의 의미

훈민정음은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글 훈민정음과 책 훈민정음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글과 훈민정음은 동일시된다. 맞는 말이다. 지금 우리가 한글로 부르는 글자의 원래 이름이 훈민정음이었기 때문이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이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에 역사상의 부침에 따라서 다음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다: 훈민정음, 정음, 언문, 반절, 암글(<암클), 한글.

한편 훈민정음하면 책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이 책은 국보 70호로서 1997년에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다.

- 유네스코가 1997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했을 만큼 우수한 한글이다. 우리 스스로 소중하고 아름답게 갖고 다듬어야 해외에도 당당하게 전파할 수 있다.(2009년 8월 7일, 신문 칼럼)
- 유네스코는 1997년 한글을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그런 한글을 우리 스스로는 푸대접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2009년 8월 7일, 신문 칼럼)

이렇게 보면 훈민정음-한글과 관련하여 글-말-책을 혼동하지 않는 지성을 지녀야겠다.

3. 책 훈민정음

3.1. 책 훈민정음은 두 종류

훈민정음 해례본(책,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언해본(월인석보 권두본, 서강대학교 소장)



3.2. 출현

1940년 여름에 경북 안동군 주하리 이한걸 씨 댁에 소장되어 있던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상에 알려졌다. 책의 정확한 명칭 즉 제목은 알 수 없지만 『어제훈민정음』일 가능성도 있다. 이 책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제목이 적혀 있을 첫 장을 포함한 첫 두 장이 떨어져 나갔고 그 두 장을 기워 넣을 때 『訓民正音』이라고 썼으나 그 뒤의 연구 결과 책의 제목이 『어제훈민정음』일 가능성이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는, 표지와 앞 두 장이 떨어져 나가서 모두 31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책이 지닌 인류문화사적인 의의 때문이다. 그 의의를 요약해서 말하자면 “‘한글’이라는 우수한 글자를 만든 원리 등 인류 문화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다.

3.3. 책의 특징

우선 이 책을 꼼꼼히 관찰하면 우리의 인쇄 문화가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은 한문본으로서 크게 보아 세종 임금의 글[서문과 예의(例義)] 4장과 집현전 학자들의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 즉 해례(解例) 29장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목판본이다. 임금의 글은 크게 썼고, 신하의 글은 그보다 작게 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목판본 반장[반곽(半廓)이라고 한다]에 전자는 7행에 매 행 11자가 들어가 있으며, 후자 즉 신하의 글은 8행에 매 행 13자가 들어가 있다. 책의 판심도 각각 정음(正音)과 정음 해례(正音解例)로 되어 있다. 글씨를 쓴 이는 당대의 명필이자 세종 임금의 셋째 아들인 안평 대군 용(瑢)인데 임금의 글은 방정한 해서체(楷書體)로, 신하의 글은 단아한 해행서체(楷行書體)로 썼다. 신하들이란 집현전 학사들을 말하는데 그들의 이름을 들어 보면,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강희안, 이개, 이선로의 8명이다(이 중에서 세 명이 사육신이다). 이들 학자를 대표하여 해례의 서문을 쓴 이가 당시 예조 판서(禮曹判書)이자 집현전 대제학(集賢殿 大提學)이었던 정인지이다. 그의 서문은 일반적인 서문과 달리 책의 끝에 있는데 임금의 글과 같은 책에 들어 있는 신하



의 글이므로 뒤로 간 것이다. 한편 신하의 글에서 임금이나 임금에 관련된 것을 지칭할 때에는 자신의 글을 내려쓰거나 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다음 행에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책의 경우에도 매 행을 한 글자씩 내려서 썼으며, 殿下(우리의 전하), 命(임금의 명령), 大智(임금의 큰 지혜)는 쓰던 행을 비워 놓고 다음 행의 첫머리에 씌으로써 군신 간의 예의를 지키고 있다. 또한 世子라는 글자는 같은 행에서 한 글자를 비우고 쓰고 있다[정인지는 세자 우빈객(右賓客)이었다]. 그리고 집현전 학사들의 이름을 열거할 때에도 행의 반만 차지할 정도의 작은 글씨로 적어 놓았다. 정인지 서문 외에 합자해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칠언으로 된 결(訣)에 “하루아침 지으셨으나(一朝 制作), 신의 조화와도 같으셔서”에서 제작(制作)은 임금이란 일이므로 행을 바꾸어 시작하고 있다.



<사진 1> 제자해(正音解例 1a)
(문화재청 홈페이지)

3.4. 세월을 겪은 책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훈민정음은 원래의 책과는 모양이 상당히 달라졌다. 물론 첫 두 장을 기워 넣은 것부터 원래의 모습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책의 크기가 달라진 것과 제책의 면에서 달라진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가장 최근에詹 바에 의하면 훈민정음의 책의 크기는 세로 29.3cm, 가로 20.1cm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 책의 원래 크기는 아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은 아래위가 상당히 잘려 나간 책이다. 사실 잘려 나갔다고 하더라도 원문에 손상이 가지 않은 범위에서 잘려 나갔으므로 크게 문제 삼을 것은 못된다. 그러나 책의 원래 모습이 현재의 것보다는 더 컸다는 점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다. 여백이 넓으면 책의 품격이 달라진다. 책의 아래위, 즉 천지(天地)가 잘려 나갔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근거는 뒷면의 붓글씨이다. 뒷면 글씨란 책이 오래되면서 접은 부분[중봉(中縫)]이 헤어지면서 열려서 책의 뒷면이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 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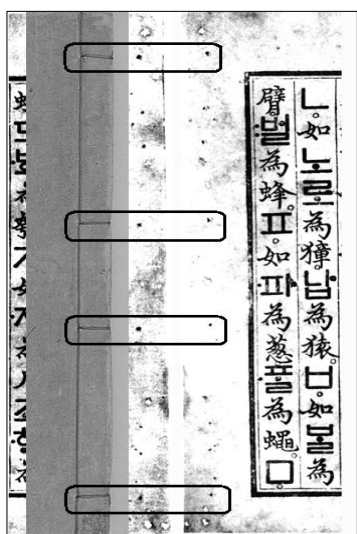


글씨를 말한다. 종이가 귀하므로 뒷면의 백면을 이용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일례로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제자해 부분의 사진(<사진 1> 참조)을 보면 뒷면에 한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무슨 글자인지 정확히 판독되지는 않지만 첫 글자가 모두 잘려 나간 것을 볼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아랫단의 글자들도 모두 잘려 나가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사진을 보면 자명하므로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요 임금이 말하되 아들이 많으면 두려움이 많고, 부자면 일이 많고, 장수하면 욕이 많다. 봉인이 말하되 하늘이 만민을 내심에 반드시 소임을 주시니 아들이 많으면 소임을 주면 어찌 두려움이 있으며, 부자면 사람들에게 나누면 어찌 일이 있으며, 천하에 도(道)가 있으면 만물이 다 창성하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어진 덕을 닦아 한가한 데 나갔다가 천년 만에 세상을 버리고 신선이 되어 흰 구름을 타고 하늘에 이르면 어찌 욕이 있겠습니까?

《십구사략언해(十九史略諺解)》

두 번째 근거는 침눈의 위치이다. 침눈이란 책을 묶기 위하여 뚫는 구멍을 이르는 것인데 <그림 1>을 보면 오른쪽에 희게 해진 부분과 검은 점이 보이는데 이것이 침눈이다. 그중에서 검은 점의 일부가 현재의 책을 묶기 위한 침눈이며 책의 맨 위와 맨 아래에 보이는 희게 해진 부분은 이전에 사용된



<그림 1> 훈민정음의 표지와 영인본을 합성한 그림

적이 있는 침눈이다. 이렇게 볼 때 이전에 사용된 침눈의 위치가 각각 너무 위로, 너무 아래로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침눈은 책의 가장자리로부터 최소한 1센티미터의 여백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위와 아래가 잘려 나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원본 훈민정음은 원래의 상태보다 책 크기가 작아졌다. 현재로써는 원래의 책 크기를 알 수가 없다. 현재에 알 수 있는 것은 재단(裁斷)된 시기이다. 물론 절대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뒷면 글씨를 쓴 이후에 아래위 부분을 잘랐다는 사실 정도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봉(中縫)이 해진 이후에 글씨를 썼고, 글씨를 쓴 후에 재단한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후대에 재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배접한 이후에 책을 매고 그 다음에 재단을 한다고 생각하면 1940년 이후에 원본의 아래위가 잘려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접을 한 후 재단을 하더라도 원래의 책 종이에는 칼이 가지 않도록 책의 바깥 면을 자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책이 도려내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제책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우리가 보는 훈민정음은 사침안정법(四針眼訂法)으로 제책되어 있다. 즉 네 개의 침눈을 뚫고 실을 넣어 책을 꿰맨 것이다. <그림 1>은 책의 표지와 훈민정음 영인본의 사진을 합성한 것인데 현재의 침눈이 네 개이며 영인본에서 그것이 검은 점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조의 책들은 극히 드문 한두 책을 제외하고는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 즉 다섯 침눈으로 책을 꿰매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사침안정법은 중국과 일본에서 사용하던 방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훈민정음이 원래부터 사침안정법으로 묶여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김주원 2006에서 발췌).

4. 글 훈민정음(한글)

4.1. 한글의 친제 :

ㄴ을 𐆫로 ㄷ을 𐆫로

세계의 모든 문자는 다음의 세 계열에 속한다:

이집트 성각 문자

한자

설형문자

한글은 여기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창적 문자이다.

한편 훈민정음의 창제자를 흔히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집현전의 학자들은 단지 보조적 역할을 했을 뿐이며 세종 1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4.2. 한글 창제의 배경: ㅅ 中國 文字 스몓 홀썩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쓴 글자(한자, 향찰, 이두, 구결)로는 우리말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 <참고: 일본인은 어떻게 한자를 이용한 가나 글자 변용에 성공했나?>

4.3. 한글 창제의 목적: 百姓 흥

문자는 통치의 수단이며 민중이 쓸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일수록 좋다. 그래야 문자를 장악한 관료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을 권위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4.4. 한글 창제의 원리

4.4.1. 상형과 가획

(1) 초성의 제자 원리

- ㉠ 기본자: 상형(象形)의 원리 (발음기관을 상형)

“초성은 17글자인데,

어금닛소리(글자)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는 모양을 본뜨고,

혓소리(글자)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뜨고,

입술소리(글자) ㄷ은 입 모양을 본뜨고,

잇소리(글자) ㄹ은 이의 모양을 본뜨고,

목소리(글자) ㅇ은 목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 ㉡ 그 밖의 글자: 가획(加劃)의 원리

ㄱ→ㅋ

ㄴ→ㄷ → ㄸ (ㄷ→ㄸ)

ㄷ→ㄱ → ㄲ

ㄹ→ㄺ → ㄻ (ㄹ→ㄻ)

ㅇ→ ㅎ → ㅎ (ㅇ→ㅎ)



㉔ 예외: 이체자(異體字) / 〇, ㄷ, △ (획을 더하는 뜻은 없다)

초성					중성		
이름	기본자	상형	가획자	이체자	기본형	자형	상형
牙音	ㄱ	象舌根閉喉之形	ㅋ	〇	·	圓	象乎天
舌音	ㄴ	象舌附上齶之形	ㄷ, ㄸ	ㄹ	—	平	象乎地
脣音	ㅇ	象口形	ㅍ, ㅑ				
齒音	ㄷ	象齒形	ㅌ, ㅍ	△		立	象乎人
喉音	ㅇ	象喉形	ㅎ, ㅎ				

(2) 중성의 제자 원리

㉕ 기본자: 천·지·인(天·地·人)의 삼재(三才)를 추상화하여 상형(·, —, |)

기본자	상형	혀뿌리의 모양	소릿값
·	天	舌縮	聲深
—	地	舌小縮	聲不深不淺
	人	舌不縮	聲淺

㉖ 그 밖 : 기본자를 바탕으로

초출자(初出字): ㄱ, ㄴ, ㄷ, ㄹ

재출자(再出字): ㅋ, ㆁ, ㆅ, ㆆ

(3) 중성

“중성은 다시 초성을 사용한다.” (중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

4.5. 한글의 우수성

당시의 한국어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한국어를 표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를 창안해 내었다. 즉 중국의 성운학을 바탕으로 하되 당시 성운학에 없던 개념을 창안하여 전혀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



■ 소리 글자는 문자 발달의 최고 단계의 문자 (한글은 자질 문자)

표의 문자(단어 글자)	표음 문자(소리 글자)		
	음절 문자	음소 문자	
		음소 문자	자질 문자
ㅁ[kou]	ㅁ[ro]	M (- P)	ㅁ[m]-ㅂ[p]
입 모양 상형	뿔의 일부	원 글자는 상형	상형-가획

■ 발음 기관을 상형한 인류 보편적인 글자

■ 음절의 삼분법

반절법 東 德紅切 (동= ㄷ+웅(웅))

초성-중성-종성 (ㄷ+ㄴ+ㅇ)

■ 자음과 모음을 분리해서 만든 글자

■ 모음 조화를 이해하고 만든 글자

양성 모음: ㅣ 의 오른쪽에 ㆍ, ㅡ의 윗쪽에 ㆍ ; ㆍ ㅏ ㅑ

음성 모음: ㅣ 의 왼쪽에 ㆍ, ㅡ의 아랫쪽에 ㆍ ; ㅡ ㅓ ㅕ

중성 모음: ㅣ

■ 설축(舌縮) 이론은 500년을 앞선 이론

■ 단, 세계의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4.6. 한글의 오늘

■ 어려운 표기법(형태 음소 표기)

[엹꼬]

/엹고/-/엹고/-/엹고/

■ 변하는 표기법

먹읍니다→먹습니다 ([대조] '없음'을 '없슴'으로 적는 것은 표기 오류)

나뭇꾼→나무꾼



영어 철자법은 이전의 것 그대로.

foot [fōt → fūt], night[nigxt →najt]

feet [fit]

한글 이름과 로마자의 대응 문제

- 한국인의 성씨 로마자 표기 이씨 [Lee], 구씨 [Koo, Goo]

■ 컴퓨터와 휴대 전화 등장

조합식-완성식(Unicode)

(예) [Ё] 글자가 도입되면 조합식 [1개]의 문자 코드 추가
완성식 최소한 [340개]의 문자 코드 추가

■ 쓰는 방식

모아쓰기 - 풀어쓰기

모아쓰기 - 풀어쓰기

4.7. 한글의 미래

지금보다 편리한 문자 생활

한글 나눔 - 인류 언어문화의 다양성 유지에 기여

참고 문헌

김주원(2006), 훈민정음 해례본의 겉과 속, 『새국어생활』 16권 3호: 35-49.

국립국어원 편(2008), 『알기 쉽게 풀어 쓴 훈민정음』, 국립국어원.



협력적 의사소통

1. 의사소통을 위한 전제

1.1. 의사소통의 정의

의사소통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생각과 감정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단지 말을 한다는 것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아니고, 소통이 더 중요한 요소이다.

화자	청자
(개념→말소리) 소리 내기	듣기(말소리→개념)
코드화	메시지
	코드 해독

1.2. 화자와 청자

대화의 요소는 화자와 청자 그리고 메시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화자와 청자는 고정적으로 결정된 역할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대화에서 이야기되는 화제가 계속 이어짐과 동시에 상대방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응대어를 구사하여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토대로 하여, 화자와 청자의 역할은 항상 순환되고 있다. 따라서 대화에서는 말하며 듣고, 들으며 말하는 역할이 계속 바뀐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어서 화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와 청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요구하는 것이 달라진다.

말을 조음해서 발화해야 하는 화자는 가능한 한 쉽고, 편하고, 간단한 언어 표현을 통하여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경제성의 원리를 추구한다. 거기에 비해서 발화를 지각해야 하는 청자는 뜻을 식별해야 하고, 의



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별성의 원리를 요구한다.

또한 화자는 자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만 말하려고 하고, 청자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 한다. 심지어는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부분만을 가려듣기도 한다.

이러한 화자와 청자 사이의 대립은 대화의 기본적인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대화는 자기중심적이 되려고 하는 욕구를 어떻게 조절하여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느냐의 문제와 직접 관련이 된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화자는 청자의 관점을 가장 잘 고려하는 화자이고, 가장 이상적인 청자는 화자의 관점을 가장 잘 고려하는 청자이다.

1.3. 메시지와 메타-메시지

언어적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것을 ‘음성 언어’라고 한다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몸짓, 표정, 목소리 등을 포괄적으로 ‘동작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 사용하는 동작 언어들도 있지만 어른들의 언어 행위 안에도 많은 동작 언어들이 사용된다. 사람들은 모두 온몸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음성 언어로 전달하는 정보를 ‘메시지’라고 하고 동작 언어와 환경 요소까지를 포괄하여 전달하는 정보는 ‘메타-메시지’라고 한다. 사람들은 메시지보다 메타-메시지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극단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의사소통에서 말의 내용이 전달하는 정보는 7%, 목소리나 억양이 전달하는 정보가 38%, 몸동작을 포함한 비언어적 요소가 전달하는 정보가 55%에 이른다(Mehrabian, 1972).

1)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는 개별성을 갖는다. 성문(聲紋, voice print)을 가지고 범인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음질이 다르다. 목소리를 가지고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식별할 수 있고, 노인인지 어린이인지도 구별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 상태나 성격, 정서 상태 등



도 판단할 수 있다.

사람의 목소리는 가변적이다. 상황에 따라 목소리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목소리를 바꾸는 요소인 소리의 길이, 세기, 높이 등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 말의 속도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 따라서 목소리를 단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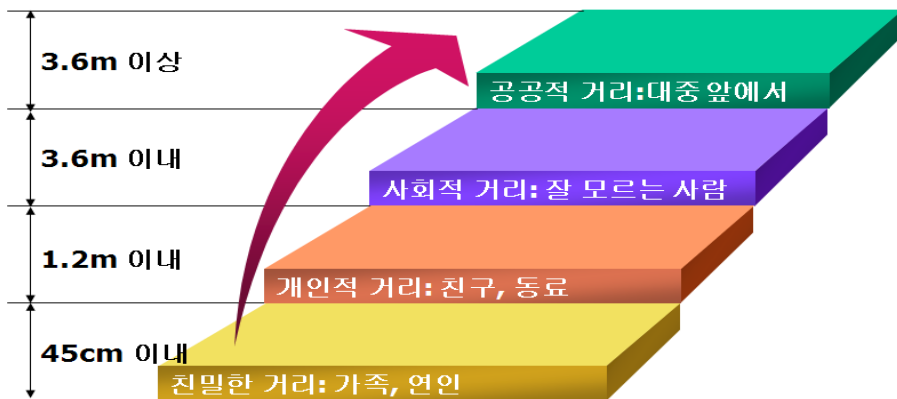
목소리는 온도도 가지고 있다. 차가운 목소리는 냉담함과 무관심을 나타내고, 따스한 목소리는 관심과 애정을 나타낸다. 따라서 대화할 때 들리는 상대의 목소리는 상대의 감정을 나타내는 신호판이다.

2) 근접 거리

대부분의 동물은 그들 신체 주변의 일정한 공간을 개인적{개별적} 공간으로 주장한다. 아프리카 밀림의 사자는 반경 50km 이상을 개별적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 감금되어 사육된 사자는 아주 좁은 공간을 개별적 공간이라고 받아들인다.

고슴도치는 겨울을 나기 위해 추위를 느끼면 서로 접근하여 모여든다. 그러다가 서로의 가시에 찢리면 다시 뒤로 물러가고, 추위를 느끼면 다가오기를 반복하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남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가깝게 있을 수 있는 거리, 즉 최적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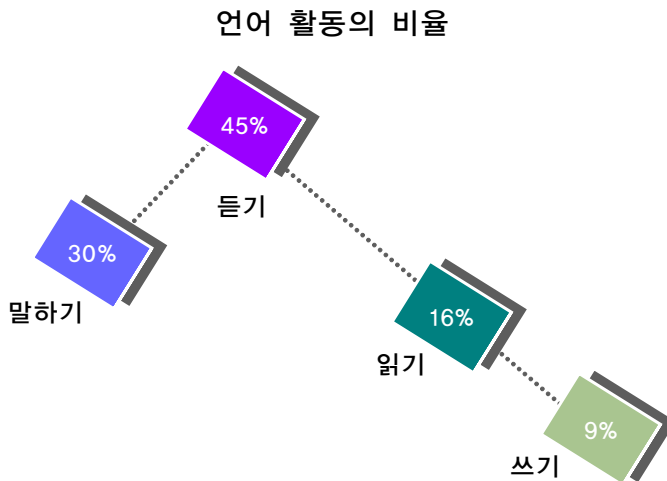
근접 거리는 다음과 같은 4등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Pease, 1987).





2. 효과적으로 듣기

2.1. 듣기의 유형



1) 듣기 미숙

일상적인 언어 활동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듣기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통 장애는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의 말을 평가하고 인정하고 부정하면서 듣기 때문에 일어난다. 스스로 열심히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난 직후에 들은 것의 반 정도밖에 기억하지 못한다. 더구나 들은 지 8시간 내에 자기가 들은 것의 절반 이상을 잊어버리고, 두 달 후에는 들은 것의 25%만 기억한다.

2) 듣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

- ① 듣기가 자연적인 과정이라고 믿는 것이 문제이다.
- ② 소리를 듣는 것과 의미를 듣는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 ③ 듣는 사람들이 가진 관심과 욕구와 동기가 다르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3) 의미 듣기와 의도 듣기

- ① 의미 듣기: 표현된 말의 단어나 문법을 통해 말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다.

예) 국어원이 어딘지 아세요?

예, 알아요. (그냥 지나간다.)



- ② 의도 듣기: 표현된 말을 넘어 숨겨진 메타-메시지를 찾고 말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해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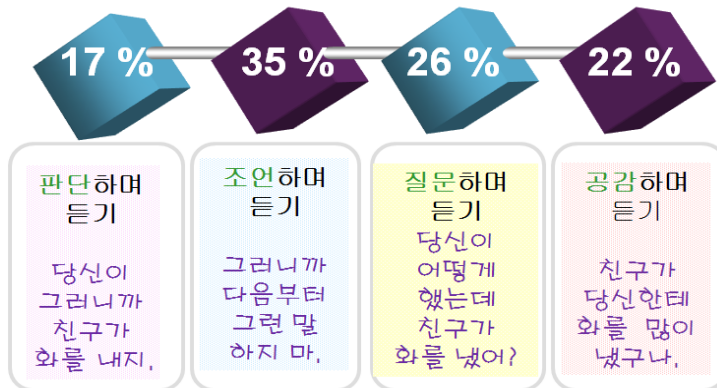
예) 국어원이 어딘지 아세요?

예, 길 건너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2.2. 공감적 경청

1) 듣기의 다섯 가지 수준

- ①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전혀 듣지 않는다.
- ② 경청의 표지를 사용하면서 듣는 척만 한다.
- ③ 선택적으로 듣는 것으로, 대화에서 어느 특정한 부분만을 듣는다.
- ④ 신중한 경청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충력을 기울여서 듣는다.
- ⑤ 가장 고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듣기인 공감적 경청을 한다.



2) 공감하며 듣기

- ① 공감적 경청은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청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즉 진정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 ② 공감적 경청을 하는 경우 우리는 귀로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눈과 가슴으로 듣는다.
- ③ 상대방이 생각하는 틀 속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 ④ 상대방의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거나 확인하는 종류의 언어적 반응을 한다.
- ⑤ 상대방의 메시지를 재구성해서 되돌려 준다.

3. 효과적으로 말하기

3.1. 대화의 특징

1) 순서 교대

대화는 반드시 말하는 사람인 화자와 듣는 사람인 청자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역할은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순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밝히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언제 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술이다.

첫째, 대화에서는 반드시 순서 교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너무 길게 하거나 대화를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자신의 대화가 문장 단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간격을 더 짧게 두어서 이어지는 대화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라도 너무 길게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자신의 말이 끝나갈 때는 다음 화자를 지목해 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호칭어를 사용하거나 시선, 억양 등을 사용해서 명시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 좋다.

넷째, 자신이 명시적 신호를 보내지 않아서 대화가 단절되고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는 이야기 되고 있던 화제가 더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할 화제라고 판단되면 하던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조금 더 부연하다가 다음 화자를 지목하는 신호를 보내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화제이거나 충분히 이야기되었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화제로 바꾸고 다음 화자를 지목하는 신호를 보낸다.

다섯째, 현재 화자가 다른 사람을 다음 화자로 지목했는데도 이를 무시하



고 대화에 끼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다음 화자가 대화를 이어가지 않아서 침묵이 흐르거나 대화 분위기가 경색될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말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현재 화자가 아직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화를 자르거나 가로채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일곱째, 현재 화자가 다음 화자를 지목하지 않았을 때는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아 결례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대화에 참여한다. 어떤 대화에도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여러 계층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경우는 서열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다른 모든 참여자들이 대화를 했는데도 적당한 순서를 발견하지 못해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화에 끼어들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대화 참여자들은 침묵하고 있는 특정인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대화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열심히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거나 시선을 주는 등의 동작 언어를 다소 과장되게 사용할 필요도 있다.

2) 대화의 중복

현재 화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화자가 말을 시작해서 둘 이상의 화자가 얼마간 동시에 말을 하는 경우가 대화의 중복이다. 대화의 중복이 일어나면 대체로 대화의 흐름이 깨지고 대화자들이 긴장하게 되지만 대화 방식에 따라서는 중복이 나타나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첫째, 대화에서 중복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의적으로 남의 말 가운데 끼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 대화의 중복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대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화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우연한 중복인지, 고의적인 방해인지, 반응 발화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셋째, 우연한 중복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중요한 말이 아니라면 끼어든 사람이 대화를 멈추는 것이 좋다.

넷째, 고의적인 방해의 경우는 방해가 일어난 대화 상황의 원인을 분석해



서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화 참여자의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는 화제를 오래 붙잡고 있었거나, 혼자서 대화를 오래 독점한 경우는 끼어든 화자에게 대화를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습관적으로 남의 말은 자르거나 불필요하게 끼어든 경우라면 상대를 무시하고 하던 대화를 계속해 가는 것도 무방하다.

다섯째, 중복이 일어났을 경우 상대방의 대화 습관을 고려해서 적극 관여형의 사람이 끼어든 경우는 반응 발화로 간주하고 하던 대화를 계속해 나가도 되지만, 중복 자체를 방해로 받아들이는 심사숙고형의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가급적 끼어들기나 반응 발화를 피하는 것이 좋다.

3.2. 대화의 원리

대화의 원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학자는 그라이스(Paul Grice)이다. 그는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서 출발하여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에서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는 데 어떤 묵시적인 지침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것을 격률(maxims)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Grice 1975, 1978). 그라이스는 먼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협동의 원리와 네 가지 기본 대화 격률을 제시하였는데, 이것들은 대화의 결속성을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1) 협동의 원리(The Co-operative principle)

협동의 원리는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상호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지금 하는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향한다고 생각되는 목적이나 방향의 요구에 합치되도록 말을 한다는 것이다. 화자의 관점에서는 가능한 범위에서는 협동의 원리를 준수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 대화의 방법이 된다.

2) 양의 격률(The maxim of Quantity)

양의 격률은 필요한 양만큼의 정보성만을 제공하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성을 가지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3) 질의 격률(The maxim of Quality)

질의 격률은 진실성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사람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타당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4) 관련성의 격률(The maxim of Relevance)

관련성의 격률은 적합성이 있는 말을 하라는 것이다. 적합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는 최소한 주어진 주제와 관련이 있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이다.

5) 방법의 격률(The maxim of Manner)

방법의 격률은 한마디로 간단·명료하라는 것이다. 방법의 격률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표현의 모호성을 피하라.

둘째, 중의성을 피하라.

셋째, 간결하게 말하라.

넷째, 조리 있게 순서대로 말하라.



3.3. 나-전달법

1) 나-전달법의 개념

대화에서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화 방법으로는 ‘나-전달법’(I-message)이 있다. 나-전달법이란 주어가 일인칭인 ‘나’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대화 방법을 말한다. 대부분 대화를 가로막는 대화의 걸림돌들은 주어가 ‘너’로 시작하는 ‘너-전달법’이다.

문제 상황에서 상대방의 문제에 관해 상대방을 주어로 이야기하는 너-전달법은 직접적이어서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대화에서 많은 역작용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을 받거나 위협을 받을 경우,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게 되고, 도덕적 훈계나 설교, 강의, 지시를 하는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너-전달법은 강압 때문에 선택 기회가 없어지게 하고, 반발적인 행위를 유발시킨다. 이러한 직접성을 간접화하는 방법이 주어를 ‘나’로 바꾸는 나-전달법이다. 상대방인 ‘너’의 문제를 말하는 사람인 ‘나’의 관점으로 바꾸어 이야기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체면이 손상되지도 않고, 화자의 심정이나 상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전달 효과도 더 확실해져서 효과적인 대화 방법이 된다.

너-전달법과 나-전달법의 전달 과정

메시지	코드	코드 해독·과장
	과장님, 어쩔 제 사정은 묻지도 않고 화를 내세요?	‘과장은 나쁜 사람이다.’
	저는 과장님이 제 사정을 묻지도 않고 화를 내셔서 서운했습니다.	‘윤계장은 서운하다’



2) 나-전달법의 세 가지 요소

나-전달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정보가 필요하다. 첫째, 문제를 유발하는 상대의 행동은 무엇인가? 둘째,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셋째, 나는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요소는 행동을 서술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이 섞이지 않은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그 행동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명백하고 구체적인 영향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

두 번째 요소는 그 행동이 주는 구체적인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는 영향을 밝혀야지만, 상대방은 왜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요소는 그 결과에 대한 나의 느낌이나 감정을 밝히는 것이다. 상대방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영향이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예를 들자면 실망, 분노, 슬픔, 당황, 걱정, 두려움 등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

3.4. 대화의 내용: 인간관계 지능

1) 대화의 단계 (Powell, 1969)

1단계: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말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준의 대화이다.

Peak Communication / 필요(Needs)

2단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준의 대화이다.

Gut-level Communication / 느낌(Feelings)

3단계: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수준의 대화이다.

Evaluative Communication / 견해(Opinions)

4단계: 사실 보고 수준의 대화이다.

Factual Communication / 사실(Facts)

5단계: 틀에 박힌 습관적인 대화이다.

Phatic Communication/ 상투어(Cliche)



2) 인간관계 지능

감성 지능, 다중 지능 등과 같이 인간관계 지능은 스테판 그로스(Stefan F. Gross, 1997)에서 제시되었다. 인간관계 지능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화를 할 때 감사, 칭찬, 존중의 말을 많이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불평, 비난, 무시를 많이 하는가에 따라 관계 지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감사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대화법이고, 이 반대가 **불평**이다.

칭찬은 상대방에게 힘과 동기를 부여하는 대화법이고, 이 반대가 **비난**이다.

존중은 상대방을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는 대화법이고, 이 반대가 **무시**이다.

3) 정중어법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언어학자들은 ‘정중어법’ 또는 ‘공손법(Politeness Principle)’이라고 하였다. 정중어법이란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정중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정중한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Leech 1983). 정중어법이란 한 마디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상대방 중심적으로 옮겨서 표현하는 것이고, 자기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표현하려는 것을 말한다.

① 요령의 격률

요령의 격률(Tact maxim)이란 청자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청자에게 혜택을 베푸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② 관용의 격률

관용의 격률(Generosity maxim)은 요령의 격률을 화자의 관점에서 말한 것으로,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③ 찬동의 격률

찬동의 격률(Approbation maxim)은 청자를 비난하거나 트집을 잡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청자를 칭찬하고 맞장구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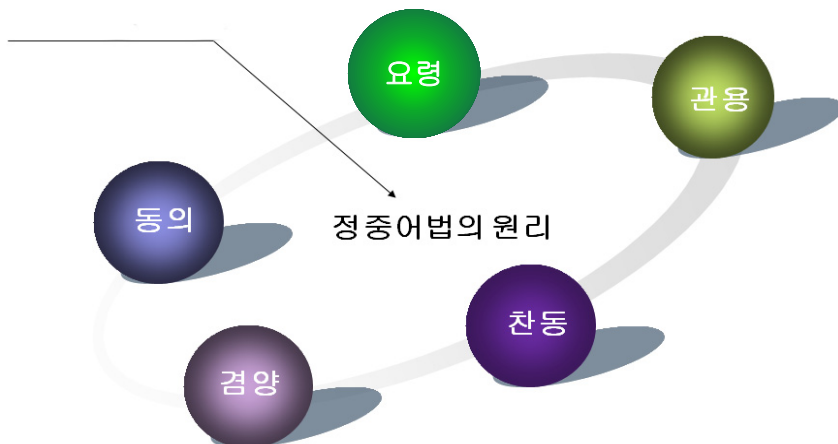
④ 겸양의 격률

겸양의 격률(Modesty maxim)은 찬동의 격률을 화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화자 자신을 칭찬하는 말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말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⑤ 동의의 격률

동의의 격률(Agreement maxim)이란 상대방과 불일치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방과 일치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Leech(1983) Politeness Principle



우리가 주고받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소리나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는 행동의 한 유형이다. 그 행동은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쓰다듬는 행동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야가와’는 말의 이러한 두 측면을 으르렁거리는 말(snarl-words)과 가르랑거리는 말(purr-words)로 나누었다(Hayagawa 1978). 이런 점에서 한 마디의 대화가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공격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청자의 관점에서는 화자가 말을 통하여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말은 그냥 듣고 흘릴 수 없는 인간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대화는 탁구와 같이 빈번한 움직임이 상호 간에 오고 가는 행동이다. 화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대화 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어떤 것이 적절한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반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 필요한 고난도 게임인 것이다.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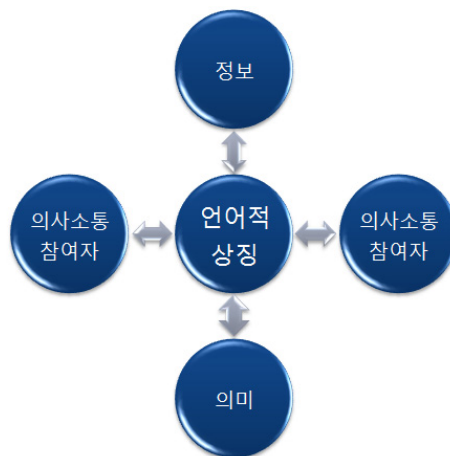
- 구현정. 2009[1997]. 대화의 기법, 도서출판 경진.
- Grice, H. Paul. 1975. Logic and conversation, Cole, P. and Morgan, J. L.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41-58, New York: Academic Press.
- _____. 1978. Further Notes on logic and conversation, Cole, P. (ed.), *Syntax and Semantics 9 Pragmatics*, 113 - 128, New York: Academic Press.
- Gross, F. Stefan. 1997. *Beziehungs intelligenz*, 박정미 역, 2000. 인간관계지능, 청년정신.
- Hayakawa, S. 1978. *Language in thought and action*, Fourth edition,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Leech, Geoffrey.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 Mehrabian, Albert. 1972. *Nonverbal communication*. Chicago, Illinois: Aldine-Atherton.
- Pease, Allen. 1987[1981]. *Body language: How to read other's thoughts by their gestures*, London: Sheldon Press.
- Powell, John. 1969. *Why am I afraid to tell you who I am?* Niles, IL: Argus Communications.
- Satir, Virginia. 1972. *Peoplemaking*.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이해와 훈련

1. 의사소통의 개념

인간의 의사소통은 언어라는 고도로 복잡하고 세련된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동물과 구별된다. 그러나 인간의 의사소통이 전적으로 언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언어 외에도 어조, 강세, 몸짓, 표정과 같은 요소들이 의사소통에서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인간의 의사소통은 ‘언어’가 아닌 ‘언어적 상징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의사소통은 일방적인 의사 표현이나 의사 전달과는 다르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의미가 다른 사람과 공유되거나 교환되어야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은 본래적으로 쌍방향적이며 상호교섭적이다.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어원인 ‘communicare’가 ‘나누다, 함께하다, 분배하다’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인간의 의사소통을 “언어적 상징체를 중심으로 서로 정보와 의미를 함께 나누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2. 의사소통의 성격

1)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통합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은 언어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의사소통에서는 언어 외에 어조, 강세, 몸짓, 표정 등의 비언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잘 어울려 통합되어야 한다. 비언어적 메시지는 언어적 메시지보다 본능적이므로,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상충되는 경우, 사람들 대부분이 비언어적 메시지를 신뢰한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메시지도 주의할 기울여야 한다.

2) 의사소통은 화행(話行) 목적과 관계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

화행 목적은 말을 하는 직접적인 이유이다. 우리는 대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어떤 행동을 요청하거나, 설득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 이처럼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화행 목적이다. 한편 관계 목적은 다른 사람과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려는 의도이다.

경우에 따라 화행 목적과 관계 목적의 비중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사소통에서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이 동시에 달성되어야 한다. 대화를 통해 화행 목적은 이루어졌으나 관계가 나빠졌다면 성공한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없다.

3) 의사소통은 상황 의존성을 지닌다.

의사소통은 상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의 연령, 성별을 고려하여 달리 표현해야 하고, 같은 상대라 하더라도



상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에서 상사에게 어떤 건의나 부탁을 하려면, 상사의 최근 업무, 스트레스, 기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의사소통은 참여자들의 상호 교섭 과정이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지만 모두 자기 이야기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대화라는 의사소통을 가장한 독백이다. 의사소통은 참여자들이 감정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교환하는 과정이므로, 서로의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에 대해 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 피드백을 줄 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 의사소통 참여자의 바른 듣기 태도

1. 시선을 맞추라.
2.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여라.
3. 진지하고 우호적인 표정을 지어라.
4.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쳐라.
5. 바꿔 말하기를 통해 말하는 사람을 신나게 하라.
6. 흥미 있는 화제라는 표시로 질문을 던져라.

3.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

1) 상황에 대한 지식

의사소통은 상황 의존성을 가지므로,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어렵다. 새로운 학교나 직장에서 의사소통이 곤란한 것도 상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무조건 의사소통을 미루는



것도 문제이지만, 상황이 파악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중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관계에 대한 지식

의사소통을 할 때는 상대방의 연령,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시도해야 한다. 특히 우리말처럼 대우법(높임법)이 발달한 언어에서는 관계에 따른 언어적 규범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의사소통 참여자의 연령, 성별, 사회적 신분이 동질적이라면 관계를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어 의사소통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의사소통 참여자의 연령, 성별, 사회적 신분이 다양하다면 여러 관계의 조합을 의식해야 하므로 의사소통이 보다 어려워진다.

3) 공감 능력

공감은 의사소통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의 내부로 옮겨 넣어 그 사람과 동질적인 심리적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공감 능력이 있어야 상대방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4) 객관적 판단 능력

공감 능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공감을 하다 보면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공감하면서도 공감 대상과 자기를 차별적으로 인식하여 상황이 나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5) 상황 운영 능력

1)~4)가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능력이라면 상황 운영 능력은 기본적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나오는 복합적 능력이다. 상황 운영 능력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소통 방식을 결정하고, 효과적인 설득 전략을 수립하며,



뜻밖의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이다. 의사소통에 뛰어난 사람들은 상황 운영 능력이 탁월하다.



※ 다음은 ‘달과 공주’라는 잘 알려진 동화이다. 이 이야기를 읽고 등장인물 중 의사소통에 가장 뛰어난 사람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옛날 어느 나라에 어린 공주가 있었다. 공주는 왕과 왕비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어느 날 공주는 달을 가지고 싶다며 달을 따다 달라고 보채기 시작했다. 왕과 왕비는 달은 따올 수 없는 것이라고 열심히 설득했다. 그러나 공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왕은 유명한 학자들을 불렀다. 학자들은 달이 얼마나 멀리 있고 얼마나 큰 것인지 설명했으나 공주는 듣지 않았다.

공주가 달에 골몰한 나머지 여위어 가자 왕은 의사들을 불렀다. 의사들은 달에 집착하는 것은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주는 계속 달을 따다 달라고 하면서 단식 투쟁을 했다.

이때 궁전의 광대가 공주를 만났다.

“공주님, 달은 어떻게 생겼나요?” 광대가 물었다.

“동그랗게 생겼지.” 그것도 모르냐는 듯이 공주가 대답했다.

“달은 얼마나 큰가요?” 광대가 다시 물었다.

“내 손톱만 해. 손톱으로 가려지잖아.” 공주가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럼 달은 어떤 색인가요?” 마지막으로 광대가 다시 물었다.

“바보, 황금빛이잖아.” 공주가 버럭 화를 내며 대답했다.

광대는 손톱 크기만 한 동그란 황금빛 구슬을 만들어 공주에게 가져다주었다. 공주는 펄 듯이 기뻐했다. 기뻐하는 공주를 보자 광대는 걱정이 되었다. 오늘날 달이 뜨면 공주는 뭐라고 할까?

“공주님, 달을 따 왔으니 하늘에 달이 없어질 텐데 어찌죠?” 광대가 물었다.

공주가 대답했다.

“그것도 몰라? 이를 빼면 새 이가 나오지. 달도 하나를 빼면 또 나오는 거야. 그리고 달은 여러 개잖아. 호수에도 있고 물컵에도 있고, 그러니 하나쯤 따와도 괜찮아.”



4. 의사소통 원리

의사소통은 어떤 원리나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리나 규칙을 따를 필요가 있다.

1) 협력의 원리 (Grice 1975)

의사소통은 참여자들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 의사소통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위해서는 발화 상황이나 주제에 맞게 최대한의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말을 하고, 상대방이 준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추론해야 한다.

(1) 양의 격률(The maxim of quantity)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라.

(2) 질의 격률(The maxim of quality)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하라. 거짓이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말은 하지 않는다.

(3) 관련성의 격률(The maxim of relevance)

화제와 관련이 있는 말을 하라.

(4) 태도의 격률(The maxim of manner)

명료하게 표현하라.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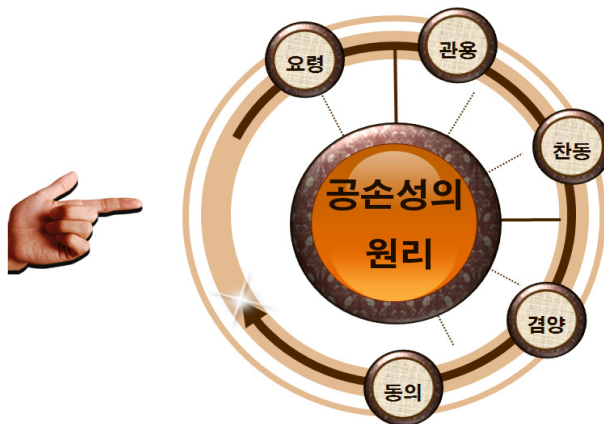


2) 공손성의 원리 (Leech, 1983)

의사소통에서는 화행 목적 못지않게 관계 목적도 중요하다. 관계 목적이 달성되려면 서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 (다음 정류장이 종각인 경우) 다음 정류장이 종각 맞나요?

- 1) 아니요. 조금 전에 종각을 지나왔잖아요.
- 2) 종각이요? 종각은 조선시대에 종루가 있던 곳이죠.
- 3) 글썄요, 다음 정류장이겠죠? 좀 더 기다려 보세요.
- 4) 다음 정류장 맞는데요. 종각에 가실 거면 이 버스 말고 100번 버스를 타는 게 더 좋았을 거예요. 아까 보니까 ○○에서 타시던데, 이 버스는 한참 돌아왔잖아요.



(1) 요령의 격률(tact maxim)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라.

- ㄱ. 이 보고서 마무리 좀 같이 하죠.
- ㄴ. 이 보고서 잠깐 검토해 주시겠어요?

- ㄱ. 옷 좀 단정하게 입으세요.
- ㄴ. 소영 씨는 캐주얼보다는 정장 스타일이 잘 어울려요.



(2) 관용의 격률(generosity maxim)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하라.

- ㄱ. 몇 번 말해도 못 알아들으시네요.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 ㄴ. 제가 좀 산만하게 설명했나요? 다시 설명할게요.

- ㄱ. 그게 말이 돼요? 전혀 현실성이 없잖아요.
- ㄴ.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현실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3) 찬동의 격률(approbation maxim)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극대화하라.

- ㄱ. 표지 색깔이 칙칙해서 우울해 보여요.
- ㄴ. 표지 색깔이 차분해서 안정감이 있네요.

- ㄱ. 우리 부장님은 너무 신경질적이야.
- ㄴ. 우리 부장님은 예민하신 편이야.

(4) 겸양의 격률(modesty maxim)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자신에 대한 비방은 극대화하라.

- 영민 씨, 이번에 일 처리 정말 훌륭했어요.
- ㄱ. 제가 원래 유능하잖아요.
- ㄴ. 저야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인 걸요.

- 김 대리, 또 야근해요? 우리 부서 일은 김 대리가 다 하는 것 같아.
- ㄱ. 사실입니다. 저 빼면 우리 부서는 쓰러질 거예요.
- ㄴ. 제가 좀 일 처리가 느려서요. 이제 조금만 하면 끝납니다.



(5) 동의의 격률(agreement maxim)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의 다른 점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의 일치점을 극대화하라.

책상을 창가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ㄱ. 싫어요. 저는 직사광선이 드는 자리에 못 앉아요.

ㄴ. 책상을 옮기면 기분이 새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눈이 좀 약해서 햇빛이 바로 들면 눈물이 나거든요.

재고 조사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ㄱ. 지금 시스템으로 바꾼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뭘 또 바꿉니까?

ㄴ. 재고 조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긴 해요. 하지만, 시스템을 너무 자주 바꾸면 업무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5. 의사소통의 실제 - 프레젠테이션

1)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의 개념

원래 발표라는 뜻이지만 오늘날은 파워포인트와 같은 시청각 도구를 이용한 발표를 특히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른다. 정보 전달 프레젠테이션과 설득 프레젠테이션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보 전달 프레젠테이션이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청중의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므로 설득 프레젠테이션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프레젠테이션의 요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요소를 3P라 한다. 즉 목적(Purpose), 청중(People), 장소(Place)이다.



(1) 목적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에 따라 프레젠테이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정보 전달인 경우는 무엇이 새로운 정보인지, 얼마나 정확한 정보인지, 어떻게 쉽게 설명할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태도는 객관적인 것이 좋다. 설득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가치에 집중하며, 이성적, 논리적 접근과 감성적 접근을 동시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표자의 태도가 확신에 차 있고 열의가 있어야 한다.

(2) 청중

청중의 지식, 태도, 요구를 분석하여 그에 맞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한다.

지식이란 주제에 대해서 청중이 알고 있는 정도이다. 청중이 전문가 집단인지, 일반인인지에 따라 프레젠테이션의 수준을 달라져야 한다. 전문가 집단에게 기초적인 상식을 설명하거나 일반인에게 전문 용어를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태도란 주제나 화자에 대해 청중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 측면이다. 프레젠테이션도 하나의 의사소통인 만큼, 관계 목적이 중요하다. 또한 화자와 청중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고 우호적일 때 프레젠테이션의 화행 목적이 성취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청중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념, 선입견 등을 미리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요구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청중이 기대하는 것으로, 프레젠테이션의 목적과도 직결된다. 화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기대하는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확한 분석을 기대하는지, 혁신적인 제안을 기대하는지를 알아야 그에 적합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수 있다.

(3) 장소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될 장소의 크기(수용 인원), 시설, 배치 등을 알아야 프레젠테이션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시설을 점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당일 기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필요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열심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물거품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3) 프레젠테이션 자료 작성 기술

말하기에 자신이 없다면 문서 자료를 풍부하게 배포하여 시각을 분산시킨다.
말하기에 자신이 있다면 프레젠테이션에 집중하도록 문서 자료는 배포하지 않는다.

하나의 슬라이드에 하나의 메시지를 담는다. (문단 개념)

완전한 문장 대신 구절, 핵심어를 사용한다.

하나의 슬라이드에 가로 7개의 단어, 세로 7줄 이상을 쓰지 않는다.

하나의 슬라이드에 표 또는 그래프는 2개를 최대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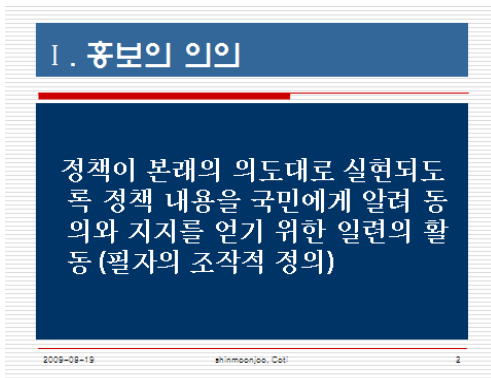
복잡한 통계나 표 등은 주목해야 할 부분을 별도로 표시한다.

고딕체를 주로 사용하고 명조체는 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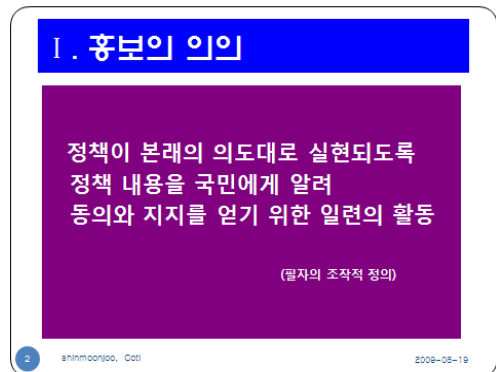
문자 언어 위주보다는 도형, 도표, 아이콘, 이미지 등으로 시각화하여 표현한다.

전체적으로 명도나 채도를 통일시킨다.

* 다음은 피피티 슬라이드를 수정하기 전과 수정한 후를 대비한 것이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 보자.



<그림 1-1>



<그림 1-2>



◆ 언론 보도용 보도자료 작성

3단 두괄식 작성법

- 1단계 (핵심본문 단락을 구성)
 - ❖ 절대 길게 하지 말 것 (5줄 이내)
 - ❖ 통상 “누가, 무엇을” 정도만 요약 제시
 - ❖ 심플하고 강렬한 표현 사용
 - ❖ 자기 칭찬식 표현은 자제

* 기자에게 보도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부분임.

꼭 익혀두기 바람

- 2단계 (핵심 본문 단락에서 제목을 뽑아 냄)
 - ❖ 핵심 본문 단락에서 핵심 용어를 2-3개 골라 내어 사용한다.
 - ❖ 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주의를 당기는 표현이어야 한다.
- 3단계 (상세한 본문 작성)
 - ❖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왜 기술 (5W1H).
 - ❖ 기자가 비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쓴다 (심각하면 안 됨)
 - ❖ 일방적 홍보자료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함

<그림 2-1>



<그림 2-2>

4) 프레젠테이션의 기술

(1) 성량과 발음

맨 뒷줄까지 잘 들리는 크기로 말해야 한다.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면



더욱 유의해야 한다.

가능하면 선명한 표준 발음으로 말해야 한다. 그러나 방언 화자라면 지나치게 표준 발음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또렷한 발음을 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입 모양을 평소보다 크고 분명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말하면 도움이 된다. 발음이 어려운 단어나 구절 등은 여러 번 읽고 연습하여 발음이 꼬이거나 뭉개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어조와 속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어조와 속도로 말해서는 안 된다. 내용에 따라 강약, 빠르기를 조절하고 쾌활한 어조와 진지한 어조 등으로 변화를 준다. 설득 프레젠테이션일수록 열정과 확신에 찬 어조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대목 또는 그 바로 앞에서 약간 천천히 말하여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위치 선정

기본적으로 스크린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청중을 기준으로 스크린 왼쪽에 서는 것이 좋다. 가로쓰기 문화에서는 사람의 시선이 자동적으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 발표자가 스크린 왼쪽에 서서 앞으로의 발표 내용에 대해 언급한 후 슬라이드를 넘기면 청중이 편안하게 발표자로부터 스크린으로 시선을 이동할 수 있다.

반대로 스크린 오른쪽에 서면 청중이 오른쪽에 있는 발표자를 보았다가 다시 시선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동시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왼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청중의 시선을 적게 받게 된다. 만약 청중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다면 스크린 오른쪽에 서는 것이 좋다.

15분이 넘는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발표자가 어느 한 곳에 계속 서 있으면 청중들이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중간에 잠깐씩 걸어 다니면서 설명을 한다든지 2명의 발표자가 교대로 발표를 한다든지 하여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때는 대체로 어둡기 때문에 발표자는 가능한 한 밝은 곳에 서야 한다. 발표자를 위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면 조명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4) 시선과 자세

시선을 맞춘다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며, 청중의 눈을 통해 반응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앞쪽이나 중앙에 있는 사람만 쳐다보지 말고 전체 청중들에게 고르게 시선을 보내도록 한다. 불안하게 눈을 굴리거나 허공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한 구절을 말하는 동안은 한 사람을 바라보도록 한다.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결정권자가 있는 경우는 중요한 대목에서 결정권자와 시선을 맞추는 것이 좋다.

자세는 등을 펴고 바르게 서서 양발에 체중을 고르게 싣는다. 앞에 탁자가 있더라도 탁자를 붙잡거나 기대서는 안 된다. 가볍게 손을 올려놓는 정도는 괜찮다.

(5) 마이크 사용과 제스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대부분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마이크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실수가 많다. 마이크는 한 손으로 가볍게 쥐어 턱 밑에 오도록 들고 몸과 평행이 되도록 한다. 마이크와 입의 거리가 바뀌면 소리 크기가 달라지므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손으로 감싸거나 선을 말아 쥐지 않는다. 이러한 자세는 노래를 부르는 듯한 인상을 주어 발표자답지 않다. 마이크를 든 손으로 제스처를 하지 않으며, 제스처를 하기 전에 마이크를 자연스럽게 다른 손에 바꿔 든다. 부착형 마이크를 사용할 경우 고개만 돌리고 말을 하면 마이크와 입의 거리가 멀어지므로 반드시 몸 전체를 돌린다.

한 손으로 마이크를 쥐다면 다른 손은 자연스럽게 내려도 된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내리는 일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넘기는 리모컨이나 메모지(A6 정도의 크기)를 들고 있는 것이 좋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착용 마이크를 사용할 경우는 두 손이 모두 자유로워지는데, 이럴 때도 역시 손에 리모컨이나 메모지를 들고 배꼽 근처에서 가볍게 모은다. 한 손으로 다른 손을 받친다는 느낌이면 좋다. 두 손을 다 내리고 있으면 경직되어 보인다.

제스처는 자연스러운 것이 좋으며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것은 너무 과장되어 보이므로 피한다. 제스처는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보다는 가끔씩 언



어적 메시지에 잘 어울리는 한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적절한 제스처는 프레젠테이션의 이해를 높이고 생동감을 준다.

(6) 표지어 사용

표지어란 프레젠테이션의 흐름이나 슬라이드 사이의 관계를 청중들에게 알려주는 말이다. 표지어를 적절히 사용하면 청중들이 프레젠테이션의 전체 맥락을 놓치지 않게 되므로 이해가 높아진다. 프레젠테이션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내용이므로 메타적 표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표지어를 사용할 때는 슬라이드와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부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문제점은 무엇인지 보시겠습니다.”라는 문장은 부서 현황의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발화되어야 한다. 이 경우 기대감이 고조된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높아지고, 부분과 부분 사이의 관계가 선명하게 파악되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인상을 갖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청각적 메시지보다 시각적 메시지에 쉽게 유인되므로, 문제점 슬라이드를 이미 띄어 놓은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언급이 무의미하다. 청중들은 이미 발표자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주로 사용되는 표지어는 다음과 같다.

“해결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분석된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7) 내용 표현과 암기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는 대본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설문처럼 대본을 써서 그대로 외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장을 외우기보다는 슬라이드를 보면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떠오르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진짜 이유이기도 하다.

먼저 각 슬라이드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내용을 요약식으로 정리한 다음, 여러 번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말하는 연습을 한다. 그 후 보다 편하고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의 순서나 내용을 수정하고 애니메이션을 추가한다. 이렇게 애니메이션과 나의 말의 호흡을 맞추면 외우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외워진다.

프레젠테이션을 실제로 할 때에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메모지(A6 사이즈)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프레젠테이션 중 보지 않더라도 메모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 진행 중에 갑자기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메모지를 넘겨서 내용을 찾는다. 당황하지만 않는다면 메모지를 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8) 스토리텔링 기법

설득이나 제안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스토리텔링(이야기하기) 기법을 많이 활용한다. 이것은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에 끼워 넣거나 이야기처럼 구성하는 방법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효과가 높다. 제품을 의인화하여 표현한다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특정 고객의 사연을 뼈대로 삼아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한다든가, 상황극을 설정한다든가 방법은 다양하다. 스토리텔링은 잘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지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프레젠테이션 내용 자체가 부실한데 스토리텔링에만 집착해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편집: 김문오(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 학예연구관)

집필: 〈가나다순〉

구현정(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협력적 의사소통
김문오(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구별해야 할 말
김세중(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김주원(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
박용찬(전 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장): 우리말 다듬기
박종덕(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강의교수) · 김문오(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공문서 바로 쓰기
양명희(전 국립국어원 국어정보화팀장): 문장 부호
유하라(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강의교수): 문장 바로 쓰기
정호성(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장): 한글 맞춤법
정희원(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장): 외래어 표기법
정희창(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띄어쓰기
지연숙(고려대학교 강사):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이해와 훈련
최용기(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 표준어 규정
최혜원(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표준 발음법

국립국어원 2009-3-18

바른 국어 생활

- 원내 국어문화학교 교재 -

2009년 9월 1일 인쇄

2009년 9월 4일 발행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권재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길 148(방화 3동 827)

<http://www.korean.go.kr>

전화: (02) 2669-9733